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 독일 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청년 괴테의 순수한 열정과 재능으로 빛을 보석 같은 작품이다. 베르테르와 샤를로테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통해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교수신문 선정 최고 번역본인 《파우스트》를 비롯해, 정확하고 유려한 번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인웅 한국외대 명예교수의 최신 완역본이다.



# 젊은 베프테르의 슬픔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http://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래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인웅 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① www.olje.or.kr ②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 차 례

역자 서문 .....	6
작품 해설 .....	10
머리말 .....	31
제 1 부 .....	32
제 2 부 .....	97
통지(通知)에 의해서 .....	113
편자(編者)가 독자에게 .....	139
작가 연보 .....	180

## 역자 서문

### 누구나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사랑 이야기

스물세 살의 젊은 괴테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작은 도시 베츨라(Wetzlar)에서 친구 케스트너의 약혼녀 샤를로테 부프에 대한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랑으로 끝나고 만다. 그리고 당시 유부녀를 사랑하다 실연한 청년 예루살렘이 케스트너의 권총을 빌려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난다. 이처럼 자신의 슬픈 사랑과 예루살렘의 자살 사건은 괴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괴테는 마침내 이들을 소재로 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적신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집필한다.

주인공 베르테르는 여주인공 로테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의와 번민에 사로잡힌다. 잠시 그녀 곁을 떠나 공무에도 종사해 보지만 베르테르에게는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는 결국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사랑하는 연인에게로 돌아온다. 그동안 새로운 가정을 꾸민 로테 역시 베르테르를 사랑하며 따뜻하게 보살핀다. 하지만 베르테르의 고독감은 더욱 깊어만 가고, 끝내 그는 자신의 연인이 건네준 권총으로 자살해 비극적 삶을 마감한다.

이 소설은 자살을 죄악으로 여기던 시대에 자살을 예찬한다고 해서 비도덕적 작품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단절로 고민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당시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는다. 이에 공감한 젊은 세대의 독자들은 베르테르같이 사랑하고 로테처럼 사랑받는 삶과 죽음을 갈망하면서, 작품의 주인공처럼 살다 죽는 모방 또는 동조 자살이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로 인해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 작품의 발간이 중단되는 일까지 생긴다. 유럽을 점령한 나폴레옹도 괴테 소설의 열렬한 애독자로서 전쟁터에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가지고 다니며 일곱 번씩이나 되풀이해 읽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파란색 연미복에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쏘 자살한 베르테르를

본떠서 그 당시 유럽에서만 무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고뇌에 빠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지만 이 작품이 영향을 끼친 18세기 당시부터 자살이란 단순한 죄악이나 병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양식이며, 때로는 낭만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결정 사항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이런 인식은 괴테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다. 일본의 유명 록밴드 엑스재팬의 기타리스트가 자살한 뒤 여성 팬들이 줄지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고, 모 방송국 아나운서가 해안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새천년 벽두에는 카자흐스탄의 세계적 슈퍼모델 코슈노바가 자살했다는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이웃 나라 중국에서도 유명 스타들의 자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연예인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일반 젊은이들만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기업인이나 지식인들도 무슨 원인에서든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신드롬(Werther Syndrome)’이란 전문 용어를 사용해 설명한다. 베르테르 신드롬이란 1774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David Phillips)가 이름 붙인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와 동일한 개념으로,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자신의 슬픈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1774년 출간한 서간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한다.

그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대체 어떤 작품인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중·고등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라는 점이다. 고전으로서의 이 작품을 읽고서 감상문 또는 독후감을 써 내기도 하고, 국어 시험을 보면서 이 작품에 대한 독서 시험을 함께 보기도 하며, 독서 퀴즈 문제를 내고 또 그 퀴즈를 풀기도 한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필독서로 추천될 만한 충분한 근거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이 작품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이나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의견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 작가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작품을 안겨 주기 위해 여기 새로운 번역을 내놓는다. 옮긴이로서는 먼저 반드시 읽어야 할 값진 고전인 이 작은 장편소설을 세밀히 읽으며 마음 깊이 느끼고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더 상세한 문예학적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책에 실린 〈작품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2014년 12월

옮긴이 이인웅



괴테가 즐겨 찾아갔던 베를라 근교 가르벤하임 마을광장의 옛 모습(1850년경).  
괴테는 작중에서 이곳을 발하임이라 하고 베르테르는 이 마을에서 두 아이들의 그림을 그린다.

## 작품 해설

### 사랑과 죽음의 신비주의자 베르테르

사랑한다는 것은 한없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한없이 달콤하고 행복한 일이다.



27세의 젊은 괴테.

언제 어떻게 누구와 사랑하느냐에 따라 사랑의 정의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젊은 두 연인 간의 사랑이란 한없이 슬프고 괴로울 수도 있고, 한없이 달콤하고 행복할 수도 있다. 우리는 청춘 시절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양면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사랑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맞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으며, 사랑 때문에 지고 한 기쁨에 젖어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지는 것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시성(詩聖)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역시 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인들과 애절한 사랑을 나누면서 갖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고뇌로 가득 찬 사랑의 체험을, 또 환희로 흘러넘치는 사랑의 경험을 불멸의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켜 놓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과 죽음의 비극을 그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아름다운 사랑의 행복과 조화를 노래한 《헤르만과 도로테아》이다. 25세의 젊은 나이에는 폭풍과도 같은 열정에 사로잡혀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인해

결국 파멸하고 마는 비극적 주인공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썼고, 47세의 원숙하고도 지혜로운 나이에는 끝없는 인간애와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행복에 가득 찬 조화를 이끌어 낸 두 주인공 헤르만과 도로테아의 이야기를 엮어 낸 것이다.

이 두 작품은 바로 사랑에 대한 괴테의 양면적인 고백서이다. 사랑을 슬픔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랑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나, 우리는 이 주인공들의 운명에서 정신적 위안이나 충고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이 바라는 대로, “만일 그대가 어떤 운명 때문이든 자신의 잘못 때문이든, 이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이 조그만 책을 그대의 벗으로 삼아 주기 바라오.”

## 1. 작품의 생성과 수용

고독을 즐기고 자연을 사랑하며 천진스러운 인간들에 대한 호감을 느끼던 젊은 시절의 괴테는 1774년 2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을 집필한다. 스케치와 그림을 좋아하던 괴테는, 베르테르와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속을 수없이 산책하면서 격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곤 한다. 오킥이 무르익은 곡식밭 사이를 거닐면서 이슬에 젖은 아침을 즐기고, 종달새와 메추라기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기운을 차리곤 했던 그는, 이 도시들의 주위 환경을 소설 속에 수용하여 상세히 묘사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자연 묘사가 처음에는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진정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도 주인공의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질 때는 영원히 그를 집어삼키며 영원히 반추하는 무시



로테의 모델이자,  
괴테가 사랑한  
샤를로테 부프 케스트너.

무시한 괴물로 변해 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괴테는 실제로 1772년 여름 베를라에서 케스트너라는 약혼자가 있는 여인 샤를로테 부프를 사귀게 된다. 그녀와 함께 산책을 즐기면서 열렬한 사랑의 감정에 빠지는 경험을 한다. 당시 괴테는 베를라의 고등법원에서 법무 실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의 법관 하인리히 아담 부프의 집을 드나들면서, 법관의 딸 샤를로테를 만나 사귀게 된다. 샤를로테(1753년생)는 15세 때에 법원의 서기관으로 있던 크리스티안 케스트너와 약혼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샤를로테는 18세에 어머니를 여윈 뒤 여러 동생들을 보살핀다. 괴테는 당연히 케스트너와도 사귀게 되는데, 케스트너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알베르트처럼 점잖은 신사였다. 케스트너는 그가 본 괴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괴테)는 여러 면에서 걱정적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정신은 아주 고결하며,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행동 양



샤를로테의 남편  
케스트너의 실루엣.

식이나 예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 그는 속박을 싫어한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며, 그들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다. 그의 행동이나 외모에는 좀 기이한 데가 있지만, 어린아이나 여자들에게서는 확실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약혼자가 있는 샤를로테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안 괴테는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샤를로테와 케스트너에게 아무런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1772년 9월 11일 베를라를 떠난다. 샤를로테와 케스트너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집필되기 전 해인 1773년 4월에 결혼한다.

작중의 여주인공 로테는 다분히 이 여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작중인물 알베르트는 케스트너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괴테는 그들의 결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고향인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다. 그러나 라 로슈 부인의 집에서 상인인 브렌타노의 젊은 아내 막시밀리아네를 알게 되며, 다시 그녀에 대해 연정을 느낀다. 그들은 오누이와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본래의 로테 모습에 유부녀로서의 성숙한 막시밀리아네의 성격을 가미시키게 된다.



괴테가 연정을 느낀 유부녀  
막시밀리아네 브렌타노.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던 괴테는 때마침 베를라에서 일어난 한 자살 사건을 만나게 된다. 1772년 10월 30일 카를 빌헬름 예루살렘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자살한 사건이다. 예루

살렘은 케스트너의 친구이며 괴테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불행하게도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살한다. 그는 친구 케스트너에게 빌린 권총으로 목숨을 끊는다. 케스트너는 이 소식을 괴테에게 알려 주었고, 괴테는 예루살렘이 라이프치히 대학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큰 충격을 받고 직접 베를라에 찾아가서 그 사정을 자세히 알아본다. 케스트너가 이 비극적 드라마의 자세한 사정을 괴테에게 전해 주는데, 자살한 이유는 세 가지였다. 이를 수 없는 사랑, 상류사회로부터 받은 모욕, 그리고 상사(上士)와의 불화이다. 이를 수 없는 사랑에 큰 상처를 입었던 괴테는 이 사건의 동기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특히 친구의 권총을 빌려 자살했다는 이야기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작가는 이 사건을 직접 작품에 끌어들이며 베르테르가 겪은 이를 수 없는 사랑의 고뇌, 자살 행위, 옷차림과 주인공의 성격,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과 장소 등을 거의 그와 같게 묘사한다. 특히 베르테르가 권총을 빌리기 위해 알베르트에게 보낸 쪽지 편지, 즉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당신의 권총을 좀 빌려 주시겠습니까?” 하는 대목은 예루살렘이 남긴 쪽지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들, 즉 베르테르는 괴테 자신이고, 로테의 실제 모델은 샤를로테 부프이며, 알베르트는 케스트너인가? 물론 일치하는 점



베르테르의 모델이 된  
카를 W. 예루살렘의 초상화.

이 많지만, 그러나 모든 점에서 다 작중인물과 같은 것은 아니다. 괴테 자신도 말했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괴테의 많은 작품들이 자전적(自傳的)이란 점에 주목한다. 괴테 자신이 그의 작품 《친화력》에 대해 쓴 글에서 한 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문장도 체험한 것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 괴테는 자신이 사귀 친구들, 그가 알았던 지인들 등 일상에서 직접 체험한 자전적 요소들을 작품에 끌어들인다. 그러나 그는 천(직물)을 짜듯 이런 요소들을 아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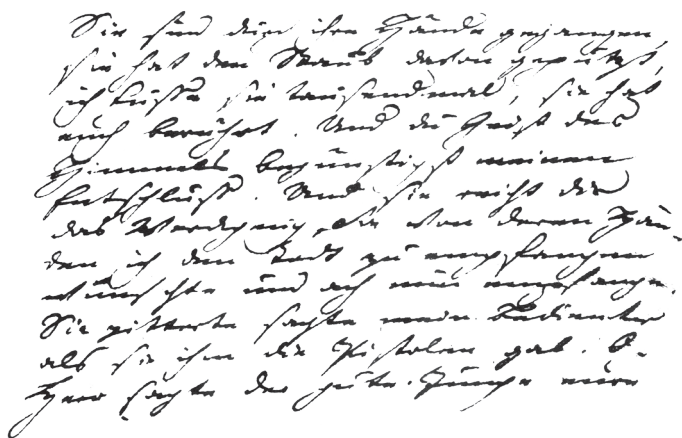
심스럽고 치밀하게 배합하고 조직하여 작중의 인물에 투영시키며,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그 인물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빈틈없이 통제해 나간다.

베르테르는 감성이 풍부하고 예민하며, 동정심이 많고 지적이며, 관대하고 견제하지 않는 성품을 지닌 젊은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그 감정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성격을 비교적 잘 제어하지만, 이야기가 종말로 다가갈수록 점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괴테는 베르테르의 마음 상태가 변해 가는 과정을 작품 구성상 계절의 변화와 일치하여 균형 있게 그려 낸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베르테르의 사랑이 싹트고, 여름에는 뜨거운 사랑의 불길 이 타오르며 환상적 마력에 사로잡힌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로테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여행에서 돌아오며 베르테르는 그들 곁을 떠날 결심을 하고, 겨울에는 격한 사랑의 감정도 잠을 자며 주인공은 공사관에서 일을 한다. 다음 해 봄이 되자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랑 생활을 하려 한다. 여름이 되면서 베르테르는 다시 사랑의 마음에 젖어 애인 곁으로 가며, 오시안의 시를 읽고 격정에 휩싸인

다. 뜨거운 불꽃이 타 버린 뒤 베르테르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창밖에는 가을비와 눈발이 혼날린다. 만물이 활동을 멈추는 겨울날 베르테르의 영혼 역시 고요히 침잠하며 고뇌에 찬 이 세상을 하직한다. 사계절 중 발아와 성장의 시기인 봄과 여름은 불꽃 튀는 생성 과정의 정열을 포괄하고, 자라나는 내면적 암흑의 영상인 가을 겨울은 가련한 영혼의 몰락 과정을 포괄한다. 우주 변화의 원리에 따라 자연과 더불어 베르테르가 겪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슬픔으로 변하고, 그 슬픔은 절정으로 다가갈수록 고통과 죽음으로 변해 가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폭풍처럼 쓰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감정을 소중하고 성스럽게 취급한다. 이런 내용이 벌써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게 되며, 그들을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 간다. 그러기에 젊은이들은 베르테르처럼 파란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즐겨 입으며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모든 젊은 여자들은 로테처럼 열렬히 사랑받기를 소망한다. 그 결과로 여자들은 평범한 남자들을 싫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고민을 안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목숨을 끊는 자살 행위가 수없이 일어난다. 그와 동시에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번역판이 잇달아 출간되었는데,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에도 이 소설을 항상 갖고 다니며 일곱 번이나 읽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Die fand ich im Grunde ganz schön,  
 wie ich das Leben selbst gesehen hab,  
 in Leipzig, in Brandenburg, wie ich  
 auch gewesen. Und ich hab's auch  
 gemerkt, daß ich mich immer  
 fühlte. Und ich weiß, daß  
 das Wunder ist, daß ich immer  
 das ist, das mich zu mir selbst  
 und ich hab's auch immer gemerkt.  
 Die gibt's auch, wie ich immer  
 als ich in der Welt war. O.  
 Ich hab's auch in der Welt gemerkt.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친필 원고.

그러나 당시의 계몽주의자들이나 정통파 종교인들은 베르테르를 감정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그의 자살 행위를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이라고 비난한다. 또한 이 소설을 예술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샤를로테 부프와 케스트너와 작가인 괴테의 삼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쓰인 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악을 초월하여 주인공이 짊어진 슬픈 운명과 고귀한 심성에 대한 감동과 경탄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깊이 감명 받고, 그의 기구한 운명에 눈물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1774년 가을, 이 조그만 책이 출간된 이후부터 2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작품은 끊임없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거듭 번역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 베르테르와 함께 사랑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또 죽어 가고 싶어 하며, 자신의 운명을 돌이켜 음미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 2. 소설 형식

마음의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모든 것이 ‘나(Ich)’로부터 출발하는 형식을 취한 주관주의(主觀主義)적 장편이다.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 빌헬름과 애인 로테에게 보내는 독백 형식의 서한문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어느 한 인간의 영혼사(靈魂史)를 이루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 사건과 감정, 견해와 사상 등을 기록하고 있다. 종교적 절망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이 사랑과 죽음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는 1771년 5월 4일부터 1772년 12월 23일까지 약 1년 반 동안에 독일 시민사회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서정적이며 감정적인 산문으로 쓰인 제1부와 제2부의 끝에서 각각 죽음에 대한 예감과 그 이념적인 의미, 그리고 실제적 행위로서의 자살 모티브가 서술된다. 종교와 사랑의 절망으로 인한 자살 모티브에는 사랑의 모티브가 불가분의 관계로 결부되며, 그 외에도 호메로스와 오시안의 모티브, 알베르트와 권총, 로테의 멜로디, 그리고 사랑과 자연, 종교와 예술, 사회적 문제성 등의 영역에 속하는 작은 모티브들이 취급된다. 그리고 〈편자(編者)가 독자에게〉 부분에 사용된 편집자의 보고문

은 객관적이고 사무적인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극도의 감정으로 충만한 베르테르의 언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베르테르의 서한문은 서정적이고 사실적이기도 하며, 장중하고 풍자적이기도 하다. 괴테는 여기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슈투름 운트 드랑(Sturm und Drang)(폭풍노도) 문학기의 문체, 그리고 민속적인 단어들도 사용하며, 그런 언어와 그 음향을 통해 누를 길 없는 사랑과 슬픔의 열정을 표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집필한 괴테의 책상.

한다. 불완전한 문장을 쓰고 더듬거리는 듯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어순(語順)을 자유로이 바꾸면서 리듬에 가득 찬 산문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그 서정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약 120쪽 정도의 이 작품은 18세기의 장편으로 볼 때 그 분량이 상당히 적은 특별한 서간체 소설이다. 그러나 그 구성이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사건은 처음부터 파국에 다다를 때까지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긴박하게 진행된다. 시민 생활의 생생한 상(像)들을 비극적인 영혼의 이야기와 결부시킴으로써, 비극적 소재가 주로 드라마라는 형식을 취하던 시대에 하나의 새로운 비극소설 형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인간 존재의 한계성에 대한 절망이 주인공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18세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란 무시무시한 죄악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천박한 인간에게서나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괴테는 자살을 정신적인 일이며, 교양이 높은 지식인의 행위로 다룸으로써 당시의 인생관 및 세계관에



14세의 괴테 실루엣(왼쪽)과 42세의 괴테 초상화.

크나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베르테르의 비극성은 로테가 결혼했다는 외적 환경에 있다기보다는 내면적 영혼의 상태에 기인한다. 즉 그는 사랑이란 것을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통하는 길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길이 불가능해지자 베르테르는 스스로 자유(自由)로 통하는 죽음을 택하게 되고, 이 죽음은 그의 행위를 단순한 불행의 영역에서 더 높은 비극의 영역으로 고양시킨다. 그러므로 내면 상태나 그 연관 관계를 서술하는 데 괴테는 드라마보다 서간체 소설을 더욱 효과적인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소설의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독일 문학사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특히 유럽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발자크나 플로베르의 소설들에서 예술가의 모델을 정하거나 예술가의 기질을 그려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탁월한 감성을 지니고 있으나, 냉혹한 사회에서 고립되고 마는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 소설은 낭만적인 시(詩)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으며,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Die schöne Müllerin)〉이나 〈겨울 나그네(Die Winterreise)〉에,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에도 영향을 끼친다. 마스네의 오페라 〈베르테르(Werther)〉의 주제가 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 3. 종교와 사랑과 죽음의 신비

괴테는 유한(有限) 속에서 무한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찾으려고 했다. 그의 세계관에서 볼 때 세상은 절대자의 반영이며, 이러한 반영은 우선 자연(Natur)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열적이며 감정으로 충만한 자연 체험으로부터 시작하여, 괴테는 점차 자연 탐구자로서의 날카로운 시선도 갖게 된다. 괴테는 이런 자연의 성스러움과 계시에서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법칙과 이념 속에도 무한한 것, 즉 절대적 요소가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념(Idee) 속에는 신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으며, 인간은 또한 도덕적 명령의 실행을 통해서도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 괴테는 파우스트처럼 부단히 노력하는 활동(Tätigkeit)을 통해서도 절대자로의 길을 추구한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는 활동 속에, 정의롭게 행한 모든 행위 속에도 절대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그 행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는 합리적 정신세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즉 사랑(Liebe)을 통해 절대적인 것과의 만남을 추구한다. 종교로까지 승화되는 진정하고도 강한 마음(Herz)을 통해 절대적인 존재로 통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자신이 무한한 것을 추구하는 젊은 베르테르는 지상의 뜨거운 소망들, 사회적 규범이나 제약 등을 벗어나 제한된 자아를 뛰어넘고자 한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이 베르테르를 깊은 절망으로까지 이끌어 가는데, 이는 가히 종교적인 절망에 가깝다. 그는 로테를 알기도 전에 이미 자살의 가능성에 대해 말함으로써 자살이 생활 감정의 한 요소임을 드러내며, 언제나 이 달콤한 “자유의 감정”을 지니고 다닌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자를 인식할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인간의 한계와 제한성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며, 결국 그는 죽음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만유(萬有)를 포괄하는 사랑의 감정과 더불어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이 한데 결합되어 베르테르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 그에게 사람의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며, 죽음을 동경하고 이상화한다.



베르테르에게 죽음의 동경은 사랑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거의 종교적 경지라고 할 만하네, 종교와 사랑의 단일성은 괴테에게 너무나도 신비롭고 성스러운 것으로서, 그의 모든 작품의 배경을 이룬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종교적 인간은 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또 신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며, 이를 지상적인 사랑의 언어로 파악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체험하며, 그 체험을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베르테르 역시 사랑 속에서 절대자와의 관계를 발견하고자 한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과 성스럽게 결합하는 것이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육체적인 것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영혼은 이를 초월하여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까지 승화해 간다.

베르테르는 사랑을 전부로 여긴다. 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로테를 순수한 이상적인 여성으로만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죽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르테르에게 로테란 여인은 직접 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몸으로 사랑을 느끼고 포용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살아 있는 여인이면서도, 그를 종교적 영역으로 이끌어 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속한 로테를 자신의 온 존재로 사랑하고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길, 즉 사랑의 길은 막혀 버린다. 더 이상 그는 숨을 쉴 수가 없고, 그의 영혼은 질식되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죽음을 자유로 통하는 길, 감옥으로부터의 해방, 자아의 한계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도 괴로워하던 한계성은 죽음을 통해 극복되기도 하지만, 사랑을 통해서도 극복된다. 그에겐 사랑과 죽음이 하나로, 단일성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결국 괴테는 이 장편에서 종교적인 것과 사랑의 신비스런 합일뿐만 아니라, 그와 결부되는 사랑과 죽음의 신비라는 또 하나의 근본 테마를 취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4. 신과 자연과 인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이 찾는 신은 만유를 자신 속에서, 자신을 통해 창조해 내고 그 피조물을 보존하는 영원한 창조자이며, 자연은 바로 그 신의 일굴로 나타난다. 또한 신은 다정다감하고 인정 있는 존재로 드러나며,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삼라만상을 자기 품 안에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 구현된 신은 범신론적이다. 이런 신의 두 가지 모습은 신으로 향하는 길도 두 가지로 제시해 준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즉 신은 자연의 도처에서 계시되고 있으므로, 다시 말해 자연 속에서는 어디에서나 신이 직감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피조물을 통해 창조자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을 동경하는 영혼이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능동적으로 신에게 접근하는 길이다. 그는 신의 성스러운 영(靈), 즉 성령을 기다리기도 하며, 그 성령을 만나기도 한다.

이 영혼과 자연을 통한 두 가지 길은 감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신에게 인도된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신의 나라는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자, 전(全) 창조의 조화를 자신의 영혼으로 즐겨워하는 자, 명랑하고 장엄하게 만유의 아름다운 생명을 언제나 활발한 감정 속에 경험하는 자, 바로 그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베르테르는 샘물가에 앉아 심연이 끝없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나무들이 쇠삭 소리를 내면서 활기차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다시 말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맛볼 때 신의 영역을 느끼며, 바로 자신 속에 신이 깃들어 있음을 느낀다. 즉 그는 열광적으로 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연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신이 계시되는 것을 본다.

또한 자연은 거의 전능하고 무한한 힘으로 나타난다. 모든 자연의 힘은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베르테르는 창조적인 면에서의 자연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면에서의 자연도 알게 된다. 생성하는 힘은 파괴하는 힘과 싸우고, 이 두 힘의 대립은 영원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러므로 자연은 그 어떤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개되는 변화와 창조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바

로 그 때문에 범신론적으로 본 베르테르의 신은 역시 영원한 창조자이다. 자연은 베르테르에게 생명의 총체이며, 창조하고 생성하고 변화하는 힘이다. 그의 내면에 서 창조의 충동과 창조적 환상을 일으키는 힘이기도 하다.

자연이란 만유를 그 내부에 품어 안는 역동적인 작용력을 가진다. 이 작용력은 동시에 외적·내적으로 인간에게까지 확대된다.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처럼 각 인간 생활도 상호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결과로 나타난다. 변화하고 생성하는 힘의 변화 관계가 그때그때의 생활 상태를 결정한다. 이는 육체적 현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현상에도 동일하게 관계된다. 왜냐하면 육체적 정신적 본질의 이원적 분리를 베르테르는 알지 못하고, 인간 생활은 그것이 육체적 과정으로 나타나든 정신적 과정으로 나타나든 자연적 운동의 결과, 즉 힘의 콤플렉스이기 때문이다. 베르테르는 자연 변화의 원리에 따라 생성하고 몰락한다. 그러한 한에서 그는 자연적이며, 그의 정신생활 역시 엄격한 자연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의 자연은 범신론적으로 이해된다. 베르테르는 그에게 가깝고 친밀한 모든 자연에 접근하며 자연을 이상화시킨다. 곧 그는 자연 속에 신이 깃들어 있음을 느끼고, 자연을 통해 신이 계시되는 것을 본다. 그뿐만 아니라 본래의 천성을 지닌 자연 그대로의 인간에서도 신의 현존을 느낀다. 그 자신도 영원하고 필연적이며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신성한 자연법칙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 그러한 한 신은 곧 자연이요, 자연은 곧 인간이다. 그리고 그 인간이 바로 선악의 피안에서 사랑과 죽음의 신비를 통해 무한으로의 길을 택한 예외 인간 베르테르인 것이다.

끝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번역 텍스트로는 *Johann Wolfgang von Goethe: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In: Goethes Werke,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Bd. VI, Mit Anmerkungen versehen von Benno von Wiese und Erich Trunz, 6. Aufl., Hamburg 1965, S. 7-124를 이용했으며, 그림 자료는 N. D. 코도비에키, W. 카울바흐, H. 람베르크 등과 같은 화가들의 작품과 옮긴이가 갖고 있는 화보나 그림엽서 등에서 선택했고, 작품 해설

에는 위 텍스트에 첨부된 Erich Trunz: *Anmerkungen des Herausgebers zu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Bd. VI, S. 536–595); Hermann August Korff: *Geist der Goethezeit. Versuch einer ideellen Entwicklung der klassisch-romantischen Literaturgeschichte. I. Teil: Sturm und Drang*, 8. unveränderte Aufl., Leipzig 1966; Curt Hermann: *Erläuterungen zu Goethes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7. Aufl., Hollfeld/Obfr. o.J. 등을 참조했음을 밝혀 둔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제2판 표지(1775년).



마인 강변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의 생가. 현재는 괴테 박물관.



괴테 생가의 호화스러운 응접실.



괴테 생가의 2층 계단.



괴테 생가의 서재.



괴테 생가의 음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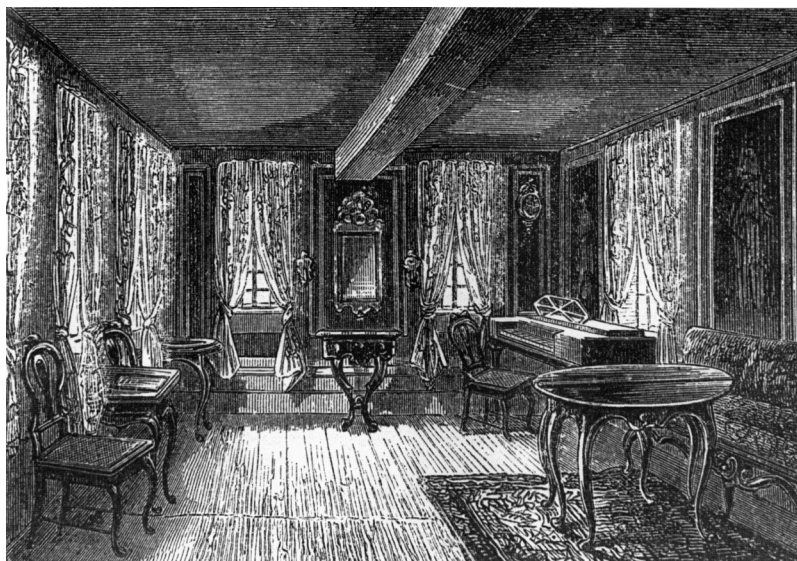
피테 생가의 그림 전시실.



피테 생가의 어머니 카타리나 엘리자베트의 방.



샤를로테 부프-케스트너가 살던 라인 강변의 소도시 베을라에 있는 '로테의 집'.



'로테의 방'.



‘로테의 집’ 부엌.



샤를로테의 사무용  
사면(斜面) 책상과 의자





샤를로테가 쓰던 양산.



샤를로테의 두 손녀(1833년 케스트너가 그린 연필 그림).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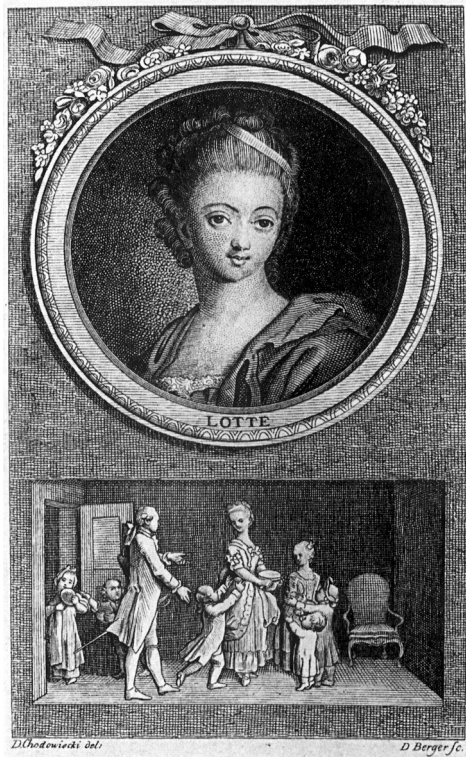
- 1 본문에 사용된 줄표(—)는 괴테의 원작에 있는 줄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넣은 것이다.
- 2 각주는 율겐의 주와 원주를 구분하기 위해 원주에만 각주 끝에 '원주'라고 표기했다. 또한 본문 중 율겐이의 설명이 들어간 부분은 '율겐이'라고 표기했다.
- 3 본문에 실린 그림 가운데 출처를 알 수 있는 그림의 작가와 연도는 다음과 같다.  
33쪽 : N. D. 코도비에키 동판화(1775) / 98쪽 : N. D. 코도비에키 그림, D. 베르거 동판화(1775) / 133쪽 : T. 요한노트 부식동판화(1844).

## 머리말

가여운 베르테르의 이야기에 관해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모아,  
여기 여러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내게 감사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정신과 인품에 대해서는  
온갖 경탄과 사랑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의 운명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혼을 가진 분들이시여,  
만일 그대가 베르테르와 똑같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의 슬픔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대가 어떤 운명 때문이든  
자신의 잘못 때문이든, 이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이 조그만 책을  
그대의 벗으로 삼아 주십시오.

## 제 1 부



로테의 초상화, 그리고 작품 중의 한 장면.

1771년 5월 4일

떠나고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친구여<sup>1</sup>, 사람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었던 자네와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자네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는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운명이 마련해 둔 것이 아니었을까? 불쌍한 레오노레! 그렇지만 내겐 잘못이 없었다네. 그녀의 여동생이 지닌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내가 편안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동안에, 가엾은 레오노레의 마음속에 정열이 불타올랐다 해서 내 어찌하겠는가? 아니 그렇지만—내게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걸까? 내가 그녀의 감정을 자극한 것은 아닐까? 그녀의 천성에서 나온 여러 진실한 표현들은 우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실은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도 나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나는—아아, 스스로 자신을 탓하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에게 약속하건대, 나 자신을 고치도록 하겠네.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지만, 이제 운명이 우리 앞에 놓아준 하찮은 불행을 더 이상 되씹지는 않을 걸세. 난 현재를 즐기려 하네. 그리고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덮어 두겠네. 친구여, 확실히 자네 말이 옳아. 만일 우리 인간이 열성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의 괴로운 추억들을 더듬는 일에 몰두하지만 않는다면,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냉정한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고통에 훨씬 덜 시달릴 것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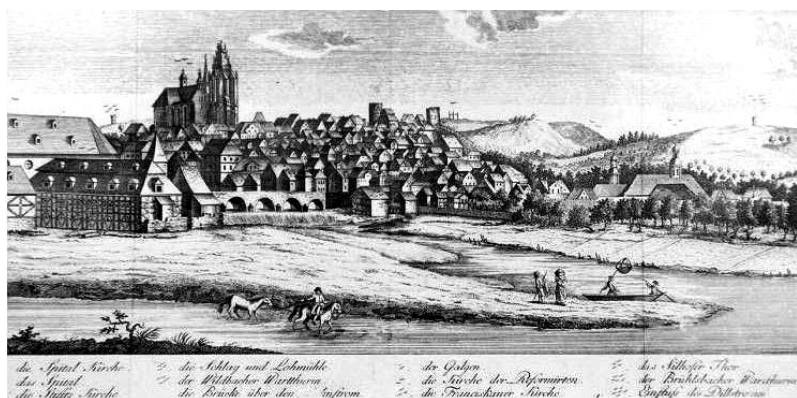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어머니께 좀 전해 주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일을 원만히 해결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그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말일세. 우리 아주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약한 분은 아니었어. 쾌활하고 성격은 강한 편이지만, 아주 마음씨 착한 여자였다네. 아주머니가 유산의 분배를 막고 있는데 대한 어머니의 불만을 설명 드렸더니, 아주머니는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시고, 조건에 따라서는 전부를 내주거나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1 작가 괴테는 베르테르가 남긴 편지들을 수집하여 이 소설을 집필하는 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서간체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빌헬름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더 많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여튼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네. 어머니께 그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만 전해 주게. 그리고 친구여, 이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는 술수나 악의에서보다도 오해와 태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 아무튼 술수나 악의로 인해 생기는 갈등이 훨씬 더 적을 것이야.

그건 그렇고 나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천국과도 같은 이 지방에서 고독은 내게는 값진 진정제가 되고 있어. 모든 것이 충만한 이 청춘의 계절은 가끔 오한을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을 따스하게 해 주지. 꽃이 만발한 나무들과 올라타는 마치 하나의 꽃다발 같아. 난 차라리 풍뎡이가 되어서 그 향기의 바다 속을 이리저리 떠다니며, 그 속에서 온갖 자양분을 빨아먹고 싶을 정도라네.

도시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위의 자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네. 이미 세상을 떠난 M 백작이 아름다운 자연에 감동되어 이 언덕에 자기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근처의 언덕들은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광경을 교차시키며 아주 멋진 골짜기를 이루고 있네. 그 정원은 소박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원이 어떤 전문적인 정원사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여기에서 스스로 즐기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는 점을 금방 느낄 수 있지. 나는 이 허물어진 정자에 와서 이미 세상을 떠난 백작을 생각하며 벌써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곤 했다네. 정자는 고인이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내게도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되었지. 머지않아 내가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거야. 며칠 되진 않았지만 정원사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이 그에게도 나쁘진 않을 것이네.



베를라의 옛 모습(동판화).

5월 10일

어떤 경이로운 즐거운 기분이 내 온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네. 내가 온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 이 달콤한 봄날 아침과도 같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마련된 이 고장에서, 나는 홀로 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여, 난 너 무나도 행복하다네. 고요한 생활이 가져다주는 아늑한 느낌 속에 너무나 빠져 있어 내 예술은 엉망이 되어 버렸지만 말이야. 지금 같아서는 아무 그림도 그릴 수가 없고, 선(線) 하나조차 그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도 이 순간보다 더 위대한 화가가 되어본 적이 결코 없었던 것 같네. 주변의 아늑한 골짜기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높이 솟은 태양은 어두컴컴하고 뻥뻥한 숲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 밖에 머문 채 그저 빛살 몇 줄기만을 이 성전(聖殿) 안으로 비치고 있을 따름이야. 그럴 때면 나는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가의 우거진 풀밭에 누워 대지에 얼굴을 대고 수천 가지의 풀잎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네. 풀포기 사이에 우글거리는 작은 세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은 벌레나 모기들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 느낄 때면, 나는 자신의 모습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느님의 현존(現存)을 느끼고, 우리를 영원한 환희 속에 떠 있게 하며 우리를 떠받쳐 주고 있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나부낌을 느낀다네. 친구여! 그때 내 눈가에 점점 어둠이 깃들고, 내 주위의 세계와 하늘이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처럼 내 영혼 속에서 고요히 휴식을 취할 때면, —나는 종종 그리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생각한다네. “아아, 너의 영혼이 영원한 하느님의 거울인 것처럼, 그 그림이 내 영혼의 거울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네 마음속에 그다지도 충만하고 따스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다시 표현할 수 있고, 입김처럼 종이에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하고 말아야. —친구여, 그러나 나는 그로 인해 파멸할 지경이며, 이 숭고한 현상들의 장엄한 위력 앞에 굴복해 버리고 만다네.

5월 12일

이 지방에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정령들이 떠돌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낙원으로 만들어 주는 따스한 천국적인 환상이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지 난 알 수가 없네. 저기 바로 마을 앞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나는 펠루지네<sup>2</sup>와 그 자매들처럼 마음이 이 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네. —자네가 나지막한 언덕을 내려가면 둥그스름한 아치 앞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스무 계단쯤 내려가면 그 아래 대리석 바위틈에서 아주 맑은 샘물이 용솟음치고 있네. 위쪽에 난간처럼 빙 둘러진 나지막한 담벼락, 그 부근 일대를 뒤덮고 있는 키 큰 나무들, 그리고 그곳의 서늘한 기운, 이 모두가 어딘지 매혹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전율케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지. 나는 한 시간 정도라도 거기에 앉아 지내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 그럴 때면 마을에서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옛날에는 공주들까지도 이 가장 순박하고도 없어서는 안 될 물 길는 일을 손수 했었지. 이렇게 거기 앉아 있노라면 옛날 가부장(家父長)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내 주위에 되살

- 2 펠루지네(Melusine), 중세 프랑스 전설에 나오는 아름다운 물의 요정이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어느 왕국의 백작과 결혼했으나 물을 잊지 못해 금요일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매들과 함께 샘물에서 살았다고 한다. 한 번은 남편이 나타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큰소리로 통곡하며 사라진다. 그 후로는 왕국이나 백작에게 위협이 닥칠 때면, 언제나 3일 전에 상복을 입고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

아난다네. 마치 옛 조상들이 이 우물가에서 서로 사귀고 구혼하는 듯하며, 이 용솨음치는 샘물 주위에는 자비로운 정령들이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 아아, 이러한 기분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여름날 힘든 (도보) 여행을 하고 나서 이런 서늘한 샘물의 상쾌함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야.

5월 13일

자네는 내 책들을 이곳으로 보내 주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지? —친구여, 부탁하건대 제발 보내지 말게! 이제는 더 이상 충고나 격려도, 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바라지 않네.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은 몹시 요동치고 있다네. 오히려 내겐 자장가가 필요한데, 이를 호메로스<sup>3</sup> 책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이 격동하는 피를 진정시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자장가를 불렀는지 모른다네. 아마 자네는 이 마음처럼 불안하고 침착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했을 걸세.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너 무나도 자주 비탄 속에 젖어 있다가 방종에 빠지고, 감미로운 우울 속에 잠겨 있다가 구제불능의 열정에 빠져 버리는 모습을 보아 왔던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내 이 연약한 마음을 마치 병든 아이처럼 다루고 있다네. 무엇을 원하든 그 소원을 다 들어주고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 주게. 그런 나를 나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5월 15일

이 지방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벌써 나를 알고 좋아하고 있다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러하다네. 그러나 슬픈 일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지. 내가 처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것저것에 관해 공손하게 물어보았을 때, 몇몇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을 조롱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날 아주 거칠게 배척해 버렸지. 그런 것을 난 불쾌하게

3 호메로스(Homeros), 기원전 8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서사 시인이다. 유럽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최대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작가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국민적 서사시로, 로마와 그 후의 문학·교육·사고(思考)에 큰 영향을 끼쳤다.

생각하지 않았네. 다만 지금까지 종종 알아차리곤 했던 사실을 더욱 생생하게 느꼈을 따름이지. 즉 어떤 계급의 사람들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가까이하면 무슨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그들과 냉담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가련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더욱 과시하기 위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는 척하는 경박한 사람들, 못되게 웃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네.

나는 우리가 모두 동등하지도 않고, 또 동등해질 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네. 그러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천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마치 패배가 두려워 적을 보고 숨어 버리는 겁쟁이와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네.

얼마 전 그 우물가에 갔다가 나는 한 젊은 하녀를 만났네. 그녀는 물둥이를 맨 아래 계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머리에 이어 줄 동료가 오지 않나 하고 사방을 돌아보고 있더군. 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녀를 바라보고—“도와드릴까요, 아가씨?” 하고 말했지. —그녀는 얼굴이 점점 빨개졌다네. —“아, 아니에요!” 하고 그녀가 대답했네. —“사양할 것 없어요.”—그녀가 머리 위의 파리를 똑바로 고쳐 놓기에 그녀를 도와주었지.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계단을 올라갔다네.

5월 17일

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가까운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 내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짧은 거리일 때면 몹시 섭섭한 마음이 든다네. 이곳 사람들이 어떠냐고 자네가 묻는다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인간이란 다 마찬가지이니까 말이야. 사람들은 대개 살아가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써 버리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자유로운 시간을 몹시 괴로워하며 거기서 헤어나라고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니 말이야. 아아, 인간의 운명이여!

하지만 이들은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야! 나는 가끔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더불어 아직 인간에게 허용된 기쁨을 즐기곤 하지. 소박하게 차려 놓은 식탁에 둘러앉아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산책을 하거나 적당한 때에는 춤을 추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내게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네. 그럴 땐 한 가지 씩씩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써쳐 버리는 다른 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도 많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며, 난 그러한 힘들을 조심스레 감추어야만 한다는 거야. 아아,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온통 답답해진다네. —하지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운명이 아닌가.

아아, 내 어린 시절의 친구인 그녀가 세상을 떠나다니! 아아, 난 그녀를 그렇게도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 너는 바보로구나! 넌 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없는 것을 찾고 있구나!라고. 그러나 나는 그녀를 차지했었고, 그녀의 마음, 위대한 영혼을 느꼈었네. 그 영혼 앞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었지. 그건 그녀 앞에선 내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야. 자비로운 하느님이시여! 그때에 내 영혼의 힘을 단 하나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겨 둔 것이 있었던가? 그녀 앞에서는 놀라울 만한 감정이 전개되어, 내 마음에 온 자연을 품어 안지 않았던가? 우리의 사귄은 아주 섬세한 감정과 가장 예리한 재치로 짜여진 영원한 직물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런 변화하는 재치에는 하찮은 장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천재의 낙인이 찍혀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는! —아아, 나보다 앞서 있던 그녀의 나이가 그 여자를 먼저 무덤으로 이끌어 가고 말았구나. 나는 결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네. 그녀의 확고한 마음과 거룩한 인내심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며칠 전에 나는 V라는 젊은이를 만났지. 얼굴도 아주 복스럽게 생기고 성격도 솔직한 청년이라네. 그는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똑똑하다고 자처하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여기고 있더군.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네. 간단히 말해 상당한 지식을 갖춘 청년이었지. 내가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리스어도 할 수 있다는 (이 지방에서는 두 개의 유성(流星)처럼 빛난다네) 이야

기를 듣자 그는 곧 나를 찾아와 자신의 잡다한 지식을 늘어놓더군. 바퇴<sup>4</sup>에서부터 우드<sup>5</sup>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제드 필<sup>6</sup>에서부터 빈켈만<sup>7</sup>에 이르기까지의 지식을 털어놓고, 다음에는 술처<sup>8</sup>의 이론 제1부를 완전히 독파했다고 말하면서, 고대(古代) 연구에 관한 하이네<sup>9</sup>의 원고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지.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네.

그뿐만 아니라 더욱 훌륭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영주의 주무관(主務官)<sup>10</sup>으로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사람들 말로는 아홉이나 되는 자식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분을 보면 정말로 흐뭇한 마음이 솟아오른다는군. 특히 그의 맏딸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다네. 그분이 내게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야. 그분은 여기에서 한 시간 반쯤 떨어진 영주의 사냥용 별장에 살고 있는데,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이곳 시내에 있는 관사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 아파서 허락을 받아 그리로 이사했다고 하더군.

그 밖에도 괴팍스러운 괴짜들도 몇 사람 알게 되었는데, 그들 태도가 불쾌하기 짝이 없다네.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나한테 친한 척하는 것이라네. 잘 있게! 이 편지는 자네 마음에 들겠군. 역사를 기록하듯 썼으니까 말이야.

4 찰스 바퇴(Abbé C. Batteux). 프랑스의 미학자로서 그는 저서 《아름다운 예술에 대하여》에서 예술의 근본을 아름다운 자연을 모방하는 데 두고 있다.

5 우드(Wood). 영국의 평론가이다.

6 로제드 필(Roger de Piles). 프랑스의 화가이며 미술평론가이다.

7 요한 요하임 빈켈만(Johann J. Winckelmann). 독일 신고고학의 창시자이다. 고대 그리스 예술을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8 술처(Johann G. Sulzer). 스위스의 철학자며 미학자로 《아름다운 예술의 일반 이론》을 저술했다.

9 하이네(Christian Gottlob Heyne). 독일의 고전 언어학자이다.

10 어떤 사무를 주장으로 맡아 처리하는 관리.

5월 22일

인생이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sup>11</sup>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일이지만, 내게서도 이런 감정이 떠나질 않는다네. 활동하고 연구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이 좁은 한계<sup>12</sup> 속에 구속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인간의 모든 노력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되고 있으며 그 욕망이란 것도 우리의 가련한 존재를 연장시켜 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어떤 연구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만족한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사방의 벽에 화려한 그림이나 밝은 풍경들을 그려 놓고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의 몽상 같은 체념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빌헬름이며, 그럴 때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말문을 막아 버리고 만다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의 내면으로 되돌아와 하나의 다른 세계를 발견하곤 하지! 명확한 표현과 생생한 활력의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희미한 예감과 어두운 욕망 속에서 말이야. 그럴 때면 모든 것이 내 감각 앞에 떠오르고, 나는 꿈을 꾸듯이 계속 이 세상에 미소를 보 내게 된다네.

아이들은 자기가 소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학식 높은 교장 선생님이나 가정 교사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네. 그러나 어른들 역시 어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 위를 비틀거리며 헤매어 다니고,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진정한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처럼 비스킷이나 케이크나 자작나무 채찍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야.

여기에 자네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아니까 솔직히 고백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네. 즉 어린아이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인형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고, 엄마가 과자를 넣어 둔 서랍 쪽으로 조심스레 살금살금 기어가서 마침내 원하던 것을 움켜쥐고 두 볼이 터

11 이 구절은 스페인의 극작가 칼데론 데라바르카(Pedro Calderón de la Barca, 1600~1681)가 쓴 철학적 드라마 <인생일장춘몽>을 연상시킨다.

12 인간에게 운명지어진 이 “한계”는 이 소설 주제들 중 하나로 몇 차례에 걸쳐 반복해 등장한다. 베르테르의 눈에 이 사회는 하나의 감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비쳐진다.

지도록 다 먹어 치우고서는 “더 줘!” 하고 외쳐 대는 사람들 말이야. —이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지. 또한 아무 가치도 없는 자기의 일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정열에까지 화려한 이름을 붙여 놓고, 그것으로 인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 역시 행복하다고 하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라고 하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흘러가 끝나는지를 겸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 또 소시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의 조그만 정원을 낙원처럼 손질하며 행복해하고, 비록 불행한 사람이라도 무거운 짐을 진 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해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저 밝은 햇빛을 단 일 분이라도 더 바라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그래, 그런 사람은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 내면으로부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데, 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역시 행복을 느낀다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무리 속박을 받는다 해도 마음속에 언제나 달콤한 자유 감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자기가 원할 때엔 언제라도 이 감옥<sup>13</sup>을 떠날 수 있다네.

5월 26일

자네는 오래전부터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알고 있겠지만, 난 어떤 은밀한 장소로 옮겨 가서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아주 조촐하게 그곳에 숨어 살고 싶네. 한테 여기서도 내 마음을 끄는 조그만 장소를 하나 발견했지.

시내에서 약 한 시간쯤 떨어진 곳에 발하임<sup>14</sup>이라는 곳이 있어.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 위치가 참으로 흥미로운 곳인데, 저 뒷마음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가노라면, 갑자기 온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곳이야. 나이에 비해서 시원스럽고 마음씨 착한 음식점 여주인이 포도주, 맥주, 커피를 팔고 있지.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보리수나무 두 그루인데, 활짝 펼쳐진 그 나뭇가지들이 주위의 농가와 창고와

13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플라톤의 사상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여기에 베르테르의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

14 독자는 여기에 거명한 장소를 찾아내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이지 말기 바란다. 불가피하게 원본에 나오는 진짜 이름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원주.





아이들을 그리는 베르테르.

안마당으로 둘러싸인 교회 앞 좁은 광장을 뒤덮고 있다네. 이처럼 정답고 은밀한 장소를 발견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음식점에서 조그만 탁자와 의자를 그리로 내다놓게 하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며 내 호메로스 책을 읽었다네. 어느 화창한 오후, 처음으로 우연히 이 보리수나무 밑을 찾아왔을 때, 이 작은 광장은 무척 한적했었지. 모두들 들뜬에 나가고 없었고, 네 살쯤 된 사내아이만이 땅바닥에 앉아서 태어난 지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두 다리 사이에 앉

혀 놓고, 두 팔로 감싸 안아 자기 가슴에 기대도록 하여 마치 안락의자처럼 해 주고 있었다네. 그 아이는 검은 두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으로 보아 무척 활발한 아이인 게 틀림없었지만 아주 얹전하게 앉아 있었지. 그 모습이 무척 내 마음에 들었다네. 그리하여 나는 맞은편에 있는 쟁기 위에 걸터앉아 한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형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았지. 그리고 옆에 있는 울타리와 창고 문짝과 몇 개의 부서진 마차 바퀴들을 모두 있는 그대로 나란히 그려 넣었다네. 한 시간쯤 지난 후에 나는 내 생각은 조금도 보태지 않고서도 아주 흥미롭고 구도가 잘 잡힌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에만 의지해 그리겠다는 내 생각을 더욱 굳혔다네. 자연만이 무한히 풍부하고,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라네. 우리는 규칙이 지닌 장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시민 사회를 찬양할 때도 같은 말을 하지. 규칙에 따라 교육받는 사람은 결코 멍청한 짓이나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여러 규범과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결코 못된 이웃이 된다거나 괴박

한 악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아.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규칙이란 다른 한편에서는 모두 자연이 주는 참된 감정과 자연이 나타내는 진정한 표현을 파괴해 버리고 말 거야! 자네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건 너무 가혹한 말이야! 규칙이란 약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일 따름이야. 지나치게 우겨진 덩굴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이지.”—사랑하는 친구여, 그렇다면 똑같은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볼까? 그것은 사랑의 경우와 같은 것이야. 어느 한 젊은이가 어떤 처녀에게 마음이 끌려서 하루 종일을 그녀 곁에서 지내며, 매 순간순간을 그 처녀에게 완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능력과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고 하세. 그런데 그때 어떤 속된 인간, 즉 공직에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 보세. “여보게, 젊은이! 사랑이란 인간적인 것이라네. 그러니 자네는 인간적으로 사랑해야만 할 걸세! 자네 시간을 나누어서 하나는 일하는 데 바치고, 나머지 휴식 시간을 연인에게 바치도록 하게. 그리고 재산도 잘 계산해 필요한 데 쓰고, 남는 것이 있어서 그녀에게 선물을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네. 그러나 너무 자주 하지는 말고, 그녀의 생일이나 세례축일 같은 때나 하도록 하게나.”—그리고 만일 그 젊은이가 그 말을 따른다고 하면, 그는 쓸모 있는 청년이 될 거야. 나라도 그를 관청에 취직시켜 달라고 어느 영주에게든 추천할 거야. 하지만 그 젊은이의 사랑은 끝장난 거지. 그가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이 끝장난 것이고, 아아, 친구들이여! 천재라는 물질이 터져 나오는 일이 어찌하여 그다지도 드물단 말인가? 그것이 거대한 홍수를 이루어 용솟음치며 그대들의 놀란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그렇게도 희귀하단 말인가?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것은 거기 천재라는 물질이 흐르는 양쪽 강변에 평범한 인간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이 자기의 조그만 정자나 툴립 화단이나 채소밭이 파괴될까 염려하여 미리미리 제방을 쌓고 도랑을 파서 미래에 닥쳐올 위험을 막아 놓기 때문이라네.



밭하임에서의 베르테르와 아이들.

5월 27일

보다시피 나는 황홀한 기쁨과 비  
유와 열변에 빠져 버려 그 아이들  
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  
기하는 걸 잊고 말았네. 어제 보  
낸 편지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  
는 완전히 그림 그리는 기분에 잠  
겨서 두 시간쯤 쟁기 위에 앉아  
있었지. 저녁 무렵이 되자 어떤  
젊은 부인이 조그만 바구니를 팔  
에 걸고, 그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던 그 아이들에게로 다가오면

서 멀리서부터 소리쳐 말했어. “필립스야, 너 정말 착하구나.”—그녀가 내게도 인  
사를 하기에 답례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서는 아이들의 어머니냐  
고 물어보았지.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큰아이에게 밀가루 빵 반쪽을 건네주고  
는 어린 아기를 안아 올리더니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쏟으며 키스를 해 주더군. —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했어. “필립스한테 어린 것을 맡겨 두고 저는 말아들을 데리  
고 흰 빵과 설탕과 죽 끓일 오지그룻<sup>15</sup>을 사러 시내에 다녀오는 길이에요.”—사실  
뚜껑이 떨어져나간 바구니 속에 그런 것들 모두가 담겨 있는 게 보였어. —“저녁  
에 한스(이건 막내아들 이름이네)에게 수프를 좀 끓여 주려 했어요. 그런데 천방지  
축인 큰애가 어제 남은 죽을 서로 먹겠다고 필립스와 싸우다가 그만 그릇을 깨뜨  
렸지 뭐예요.”—그래서 나는 그 큰애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지. 큰애는 거위 몇  
마리를 몰아오려고 초원으로 나갔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애가 달려오더니,  
둘째아들에게 개암나무 채찍을 건네주더군. 그 부인과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나  
는 그녀가 교장 선생님의 딸이며, 그녀의 남편은 사촌의 유산을 받기 위해 스위스

15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벌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 오깃물을 입혀서 다시 구운 질그릇.

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사람들이 그이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녀가 말하더군. “그이가 편지를 해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이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나쁜 일이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나는 그 부인과 헤어지는 것이 몹시 섭섭했어. 그래 아이들에게 일 크로이처<sup>16</sup>씩을 주고, 시내에 갈 때 막내아들 수프에 넣을 흰 빵을 사다 주라고 부인에게 일 크로이처를 맡겼다네. 그리고 나서 우린 헤어졌지.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에게만 말하는데,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미칠 것 같던 기분이 모두 침착하게 가라앉는다네. 그들은 비좁은 삶의 테두리 속에서 행복하고 침착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근근이 생계를 꾸려 가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저 겨울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따름이지. 그때 이후로 나는 종종 그곳을 찾아간다네. 아이들은 나를 잘 따르고 있어. 내가 커피를 마실 때면 그들은 설탕을 받아먹고, 저녁에는 나와 함께 버터 바른 빵과 신맛 나는 우유를 나누어 먹는다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빠지지 않고 일 크로이처씩을 주었는데, 기도 시간 이후 내가 가지 못할 때에는 음식점 여주인에게 대신 주도록 부탁해 놓았다네.

아이들은 아주 친해져서 온갖 이야기를 다 조잘거리지. 그리고 마을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물려올 때면, 나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격렬하게 느끼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마냥 순진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네.

혹시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느라 내가 많이 힘들었지.

5월 30일

얼마 전 내가 그림에 관해서 한 이야기는 틀림없이 시(詩)를 쓰는 데에도 해당되는 말이야. 우리는 아주 탁월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적은 표현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나는 오늘 어느 멋진 장면을 하나 목

16 13~19세기까지 남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통용되던 십자가가 새겨진 주화 이름.

격했는데, 그걸 그대로 베껴 놓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이사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이 왜 ‘시문(詩文)’이고 ‘장면’이어야 하고 ‘전원시’여야만 한단 말인가? 자연의 모습을 대학 때 우리는 왜 늘 그것을 가지고 기교를 부려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문을 여는 것을 보고 무슨 고귀하고도 우아한 것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한다면, 자네는 또다시 속는 꼴이 될 거네. 아무튼 이렇게 생생하게 내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그저 어느 한 젊은 농부에 지나지 않는다네. 여느 때처럼 나는 조리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고, 자네는 언제나처럼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여겨지는군. 이번에도 발하임에서 있었던 일일세. 이런 진귀한 일이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발하임이라네.

어떤 사람들이 바깥 보리수나무 아래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 모인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핑계를 대고는 뒤에 처져 있었네.

그런데 이웃집에서 젊은 농부 한 사람이 나와 최근에 내가 스케치했던 쟁기를 매만지며 뭘가를 고치려 하고 있었어.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형편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네. 우리는 서로 친해졌는데, 이러한 사람들과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곧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지. 그는 어느 과부 집에서 일을 해 주고 있는데, 대우를 아주 잘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 과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녀를 칭찬했는데, 그가 몸과 맘을 다하여 그녀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릴 수 있었네. 그렇게 젊은 여자는 아닌데, 첫 번째 남편에게 몹시 학대를 당했으며, 이젠 재혼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더군. 한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첫 남편의 잘못에 대한 나쁜 기억을 씻어 버리기 위해 그녀가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얼마나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네. 이 사람의 순수한 연정과 사랑과 충실성을 자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야만 될 것 같네. 그래, 내가 위대한 시인의 재능을 지녔다면 그 남자의 몸짓이나 조화로운 목소리,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 나타난 은밀한 불길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어떤 말로도 그의 온갖 모습과 표정에 깃들어 있는 다정함을 표현할 수는 없을 거야. 내가

다시 표현해 낸다 해도 그것은 모두 천하고 서투를 따름이야. 특히 내가 여자에 대한 그의 태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녀의 훌륭한 품행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네. 그가 그녀의 자태에 관해 말할 때, 젊음이 주는 매력도 없으면서 그 남자를 자신에게로 힘차게 끌어당겨 사로잡고 있는 여자의 육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나는 이것을 그저 내 깊은 내면의 영혼 속에서만 되새겨 볼 수 있을 뿐이라네. 나는 일생을 통해 이토록 절실한 갈망과 그렇게도 열렬한 그리움이 이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없네. 그래, 이런 순수한 모습은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어 보지도 못했다고 말해야겠지.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회상할 때면 내 깊은 내면의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며, 이런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의 영상이 어딜 가나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그로 인해 저절로 불이 붙여진 것처럼 나 또한 애타게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꾸짖지는 말아 주게.

가까운 시일 안에 그녀를 한번 만나 볼 생각이네.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차라리 만나는 걸 피하고 싶기도 해. 오히려 그녀 애인의 눈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좋을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다를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영상을 망쳐 버리겠는가?

6월 16일

왜 편지를 하지 않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자네가 학자란 말인가?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쯤은 알아야지. 그것도—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마음을 사로잡은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네. 나는 말이야 …… 나는 모르겠네.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조리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야. 난 기쁨에 들떠 있고 행복할뿐더러, 어차피 지난 일을 있는 그대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못 되니까 말이야.

천사 같아! 천사!…… 제! 누구나 자기 애인을 그렇게 부르지, 그렇지 않나? 하지

만 난 자네에게 그녀가 얼마나 완벽하며, 왜 그렇게도 완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네. 그저 그녀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어.

그렇게 지혜로우면서도 단순하고, 그렇게 깨끗하면서도 너무나 친절하고, 그토록 발랄하고 활력이 넘치면서도 영혼의 평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 —

내가 여기 그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시시한 수다에 불과하며, 진정한 그녀의 모습을 전혀 표현해 주지 못하는 초라한 추상에 지나지 않는다네. 다음에, —아니,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겠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결코 말하지 못할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나는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뒤 벌써 세 번이나 펜을 내려놓고, 말에 안장을 엮고는 밖으로 달려 나가려 했기 때문이야. 오늘 아침엔 말을 타고 외출하지 않기로 결심했건만, 순간순간 참지 못하고 창가로 달려가서 태양이 이제 얼마나 높이 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지 뭐가. —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으며, 그녀에게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네. 빌헬름, 이제 나는 다시 돌아와 버터 바른 빵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자네에게 편지를 쓰는 거라네. 그 사랑스럽고 명랑한 아이들, 여덟이나 되는 남매들 사이에 둘러싸인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 주는지! —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내려 간다면, 자네는 결국 처음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겠지. 그럼 좀 들어 보게나. 억지로라도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네.

얼마 전에 쓴 편지에서 나는 주무관 S 씨를 사귀게 되었으며, 그가 가까운 시일 안에 자기의 은거지로, 아니 그의 조그만 왕국으로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지. 난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네. 만일 우연하게도 이 한적한 고장에 파묻혀 있던 보물을 발견해 내지 못했더라면, 결코 그곳에 가 보지 못했을는지도 모르지.

이곳의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무도회를 연다고 하기에, 나도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었지. 나는 이 고장 출신으로 선량하고 예쁘긴 하지만, 그 밖에 별다른 특징은 없는 처녀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다네. 그리고 내가 마차를 빌려 내 파트너와 그녀의 사촌 여동생을 태우고 무도회장으로 가다가 도중에 S. 샤를로테라는 아가씨를 데



리고 가기로 이야기가 되었지. —나무를 일부 베어 낸 드넓은 숲을 지나 사냥용 별장으로 마차가 달리고 있을 때, 내 파트너가 말하더군. “당신은 이제 아주 예쁜 여자를 사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에게 반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녀의 사촌 여동생이 덧붙여 말했네. —“어째서요?” 하고 내가 물었지. —“그녀는 이미 약혼한 몸이거든요.” 내 파트너가 대답했어. “그 약혼자는 아주 성실한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정리도 하고, 훌륭한 일 자리를 구하기도 할 겸 지금은 여행을 떠나고 없지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내게 별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네.

우리가 별장 대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서산에 해가 지기 15분 전쯤이었지. 날은 몹시 무더웠고, 여자들은 지평선 주위로 습한 회색빛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비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네. 나는 엉터리 같은 기상학 지식을 내세우며 그녀들의 걱정을 떨쳐 버려 주려고 했지만, 날씨로 인해 우리의 즐거움이 망쳐질 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네.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가 대문 앞으로 나오더니, 로테 아가씨가 곧 나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 나는 마당을 지나 깨끗하게 지어진 집을 향해 걸었지. 그 앞에 놓인 계단을 올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매력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네. 현관의 홀에는 열한 살부터 두 살까지의 아이들 여섯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 아가씨 주위에 몰려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보통 키에다가 팔과 가슴에 연분홍 장식이 달린 소박한 하얀 옷을 입고 있었지. 검은 빵을 손에 들고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 나이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를 보아 가며 빵을 잘라서 정답게 나눠 주고 있었어. 아이들은 아직 빵을 자르기도 전에 그 작고 예쁜 손을 오랫동안 높이 쳐들고 있다가 빵 조각을 받으면 아무런 꾸밈도 없이 “고맙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야. 어떤 아이는 저녁 빵을 받아들고 흐뭇해하며 뛰어갔고, 성격이 차분한 어떤 아이는 만족해하며, 낯선 손님과 로테가 타고 갈 마차를 구경하려고 정원 대문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기도 했어.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시게 해서, 그리고 여자분들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지. “제가 없는 동안 여러 가지 집안일을 처리하느라고 그

만 아이들에게 저녁 빵 나눠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빵을 잘라 주어야지, 다른 사람이 주면 받으려 하질 않아요.”—나는 되는 대로 인사를 했지만, 내 영혼은 온통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보여 주는 몸가짐에 사로잡혀 있었다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방으로 달려갔을 때에야 나는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 어린아이들이 약간 떨어진 채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기에, 나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막내아이에게로 다가갔네. 그 아이가 약간 뒤로 물러서는데, 마침 로테가 문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네. “루이스, 이분은 너와 친척이라네, 악수해야지.” 그 아이는 서슴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고, 코를 흘리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키스하지 않을 수 없었다네. —“친척이라고요?” 나는 로테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지. “제가 당신의 친척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려도 좋겠습니까?”—“오오” 하고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네. “우리의 친척 관계는 아주 범위가 넓답니다. 한테 당신이 사이가 가장 나쁜 분이 되신다면 섭섭할 거예요.”—걸어가면서 그녀는 자기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동생, 즉 열한 살쯤 되어 보이는 소피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말을 타고 산책 나가신 아빠가 돌아오시면 잘 맞아들이라고 부탁하더군.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겐 소피 언니를 자기처럼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데, 몇몇 아이들은 분명히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지. 그러나 여섯 살쯤 된 자그마하고 참견하기 좋아할 것 같은 금발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 “그렇지만 소피 언니는 아냐. 우린 로테 언니가 더 종단 말야.” 큰 사내아이 둘은 벌써 마차에 기어 올라와 있더군. 내가 그냥 두라고 하자 로테는 애들이 장난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있겠다고 약속한다면, 숲이 있는 데까지만 함께 타고 가게 해 주겠다고 허락해 주더군.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입을 옷들, 특히 모자에 대해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고는 오늘 있을 사교 모임에 대해 의견들을 말하더군. 그때 로테는 마차를 세워 동생들을 내려 주도록 했지. 그 아이들은 다시 한 번 로테의 손에 키스하려 했어. 큰 아이는 열다섯 살에 어울리게 아주 정답게 키스했지만, 아래 아이는 격렬하고 거칠게 하더군. 그녀는 어린 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인사를 시켰고, 우리는 계속해 마차를 타고 달려갔다네.

내 파트너의 사촌 여동생이 로테에게 지난번에 보내 준 책을 다 읽었느냐고 물어 보더군. —“아뇨” 하고 로테가 대답했지. “그 책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돌려 드릴게요. 먼젓번 책도 나올 게 없었어요.”—그게 무슨 책들이냐고 내가 물어 보자, 로테가 ○○라고<sup>17</sup>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네. —나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는 특별한 것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네. 말을 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매력과 새로운 정신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지. 내가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고 느끼자,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점점 더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지. “일요일이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앉아 미스 제니<sup>18</sup>와 같은 여인의 행복과 불행을 진정으로 느낄 때, 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책에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요즘엔 책을 읽을 틈이 거의 없어서 제 취미에 맞는 책이라야 좋아요. 저의 세계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제 주위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며, 그 이야기가 마치 제 자신의 가정생활처럼 그렇게 관심을 끌고 마음을 쓰게 되는 작가가 제일 좋아요. 물론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쩐지 무한한 행복의 원천인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느낀 감동을 감추느라 무척 애를 썼다네. 물론 오랫동안 감추지는 못했지. 왜냐하면 로테가 곁들여서 웨이크필드의 교구 목사<sup>19</sup>에 관해서, 그리고 ○○에<sup>20</sup> 관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

17 누구에게든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편지의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삭제한다. 근본적으로는 한 소녀나 아직 안정을 얻지 못한 젊은이의 비판을 난처하게 여길 작가는 없겠지만 말이다.—원주.

18 헤르메스(Johann Timotheus Hermes, 1738~1821)의 장편 소설 《미스 제니 와일크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다. 교구 감독이며 교수였던 헤르메스는 합리적 대중 소설 작가로, 대표작으로는 독일 시민전쟁 시대를 다룬 문화사적 장편 소설 《소피의 여행, 메멜에서 작센까지》가 있다.

19 영국 작가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의 가정적 전원 소설 《웨이크필드의 교구 목사》(1766)의 주인공이다.

20 여기서도 몇몇 독일 작가들의 이름을 삭제했다. 로테의 감채에 동조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을 때, 틀림없이 그가 누구라는 것을 마음에 느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원주.

을 차리지 못하고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털어놓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한참 뒤에야 나는 로테가 몸을 돌려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런데 그때 다른 여자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마치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한참 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네. 사촌 여동생이 여러 번이나 비웃는 듯 나를 쳐다보았지만, 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

대화는 이제 춤이 주는 즐거움으로 옮겨갔지. —“춤을 정열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결점이라 한다 해도” 하고 로테는 말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춤을 추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건 없어요. 때때로 머리가 무거울 때 제대로 조율도 안 된 피아노로라도 대무곡(對舞曲)을 한바탕 두드리고 추고 나면, 모든 게 다시 좋아지거든요.”

이런 대화를 하는 동안 난 그녀의 검은 두 눈에 황홀하게 빠져 있었네. —그 발랄한 입술과 신선하고 귀여운 뺨이 내 영혼을 온통 사로잡고 말았어.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놀라운 내용에 완전히 빠져 버려서, 난 로테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다네. —자네는 날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간단히 말해서, 마차가 별장 앞에 멈추었을 때, 나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마차에서 내렸네. 주위 세계에 황혼이 깃드는 가운데 꿈속에 젖어 있는 것처럼 났을 옳고 있었기 때문에, 밝게 불이 켜진 홀에서 울려오는 음악 소리에도 거의 주위를 기울이지 못했다네.

내 파트너의 사촌 여동생과 로테의 파트너가 될 아우드란과 아무개라고 하는 두 신사가—누가 이름을 다 기억하겠는가—마차 앞에서 우리를 영접하며 자기 파트너들을 데리고 가 버렸고, 나는 내 파트너를 데리고 올라갔지.

우리는 서로 휘감기어 미뉴에트<sup>21</sup> 춤을 추며 돌았다네. 나는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례로 춤을 청했지. 함께 춤을 추고 나서 다른 남자에게 손을 넘겨주어도 나와 춤을 끝내려 하지 않는 여인들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네. 로테와 그녀의 파트너가 경쾌한 영국식 춤을 추기 시작했지. 그녀가 우리와 같은 대열 속으로 들어와 여러 형태의 춤을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네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야. 그녀가 춤추는 모습을 보았어야만 해!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춤

21 4분의 3박자인 프랑스의 우아한 무도곡.

을 추며, 온몸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자유로워 보였어. 그때 오로지 춤이 전부이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았네. 사실 그 순간엔 춤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이 그녀 앞에서 사라져 버린 듯했네.

나는 로테에게 두 번째 춤을 청했네. 그녀는 세 번째 춤을 약속해 주면서, 자기는 독일식 왈츠를 아주 좋아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솔직한 모습으로 말해주더군. —“이곳에선 왈츠를 출 때 자기와 짝을 이룬 파트너와 끝까지 함께 추는 게 유행이에요” 하고 그녀가 말을 계속했네. “제 파트너는 왈츠를 잘 추지 못하니까, 그 수고를 면해 주면 오히려 감사해할 거예요. 당신 파트너도 왈츠를 잘 추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까 영국식 춤을 출 때 보니까 당신은 왈츠를 아주 잘 추시더군요. 왈츠를 출 때 제 상대가 되시려면, 제 파트너에게 가서 부탁하세요. 전 당신 파트너에게 가서 말하겠어요.”—나는 그러기로 약속했고, 우리가 춤추는 동안 로테의 파트너가 내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의했네.

이제 춤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한동안 다양하게 팔을 휘감으며 흥겹게 춤을 추었지. 로테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얼마나 경쾌하게 춤을 추었던지! 막 왈츠가 시작되어 서로를 잡고 빙빙 돌 땐, 춤을 제대로 출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뒤죽박죽이었어. 우리는 재치 있게 그들을 피해 가며 그들이 마음대로 추도록 내버려 두었네. 그리고는 서투른 사람들이 춤추는 걸 포기하고 자리를 비워 주었을 때, 우리가 뛰어들어 또 다른 아우드란 쌍과 함께 끝까지 신나게 춤을 추었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벼운 스텝으로 춤을 추어 본 적이 없었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을 팔에 안고 번개처럼 나는 듯 돌아갈 때, 주위의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 그리고—빌헬름이여,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때 난 멍세했어.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 여인을 나 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과도 왈츠를 추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그로 인해 내 비록 파멸한 다 할지라도 말이야. 자네는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숨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홀 안을 몇 바퀴 돌았네. 그리고 로테는 자리에 앉았고, 몇 개 남겨 놓은 오렌지를 내가 가져왔는데, 그 효과가 아주 좋았

어. 그러나 로테가 옆에 앉은 염치없는 여인에게 오렌지 조각들을 나누어 줄 때는 내 심장이 쿵쿵 찢리는 것만 같았다네.

세 번째 영국식 춤을 출 때, 우리는 다시 두 번째로 한 쌍이 되었어. 우리가 대열을 따라 춤추며 돌아갈 때, 내가 얼마나 큰 환희를 느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그녀의 팔을 잡은 채 아주 솔직하고도 순수한 표정으로 충만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녀의 눈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어느 한 부인 곁을 지나가고 있었어. 그 부인은 그렇게 젊어 보이지는 않은 얼굴이었으나 표정이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 주의를 끌었지. 그녀는 미소를 띤 채 로테를 바라보며 위협조로 손가락을 쳐들고 옆을 지나가면서 의미심장한 투로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말하더군.

“알베르트가 누군가요?” 하고 나는 로테에게 물어보았네. “질문이 실례되지 않는다면요.”—그녀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커다랗게 8자 모형을 그리느라고 서로 떨어쳐야만 했어. 그리고 다시 서로 마주치며 지나칠 때 그녀의 얼굴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로테는 프로메나데를 하기 위해 내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지. “알베르트는 좋은 분이에요. 저와 약혼한 거나 다름없어요.”—그건 별로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었네.(여기로 오는 도중에 여자들이 그 이야길 했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지금 그 말은 전혀 새로운 사실처럼 들려왔어.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순간에 것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 버린 그녀를 그런 관계에 놓고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여하튼 나는 혼란스러워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한 쌍 사이로 끼어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로테가 옆에서 끌어당기며 이끌어 주어 곧 다시 질서를 지킬 수 있었지.

춤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지평선에서 번쩍거리던 번개가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 나는 그걸 계속 마른번개라고 둘러대고 있었지만, 곧 천둥소리가 음악 소리를 압도하게 되었다네. 여자 세 명이 춤추던 대열에서 빠져나가자 그 파트너들도 뒤를 따라 나갔지. 그러자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음악도 멎어 버렸네. 아주 즐거운 순간에 어떤 불행이나 끔찍한 일이 닥쳐오면, 우리에게 보통 때

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겨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건 그 두 가지의 대조가 그만큼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아니 그보다는 우리의 감각이 예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 그만큼 더 빨리 인상을 받아들이기 때 문일 거야. 많은 여자들이 놀라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네. 현명한 어떤 여자는 구석에 가 앉아서 창을 등진 채 귀를 막고 있었어. 다른 어떤 여자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첫 번째 여자의 무릎 사이에 파묻고 있었지. 또 다른 여자는 그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들을 끌어안더군. 몇몇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고, 또 다른 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젊은 장난꾸러기들이 뻘뻘스러운 짓을 해도 그것을 저지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더군. 젊은이들은 하늘을 향해 격정스럽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여자들의 입술을 짹짹 혀를 내밀어 내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만 같았어. 우리 신사들 중 몇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 조용히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덧문과 커튼이 있는 방을 내주며 그리로 가자는 안주인의 현명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지. 우리가 그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로테는 열심히 의자들을 빙 둘러 놓았으며, 한 가지 게임을 하자는 그녀의 제안에 따라 일행은 모두들 자리에 앉았다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키스 벌칙이라도 받으리라는 희망에서 입술을 뽀족하게 내밀고 사지를 쭉 내뻗고 있는 것처럼 보였네. —“지금부터 숫자 세는 놀이를 하겠어요!” 로테가 말하더군. “자, 조심하세요! 제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은 순서대로 차례가 오면 그 숫자를 세야 해요. 속사포처럼 빨리할 텐데, 끊어지거나 틀리는 사람은 뺄을 한 대씩 맞을 거예요. 그렇게 천까지 세겠어요.”—그 게임은 보기도 즐거웠다네. 로테는 한쪽 팔을 쭉 뻗고 원을 그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지. “하나” 하고 첫 번째 사람이 시작하면, 그 옆 사람은 “둘”, 그 다음 사람은 “셋” 하는 식으로 계속되는 놀이였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더 빨리,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네. 그때 한 사람이 숫자를 틀려 찰싹! 하고 뺄을 얻어맞았는데, 그 다음 사람은 웃다가 그만 또 찰싹! 그러면서 점점 더 빨리 돌아갔지. 나도 뺄을 두 대나 얻어맞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게 맞은 것 같



았지만 속으로는 기뻐다네. 모두가 웃어 대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이 게임은 천까지 세기도 전에 끝나 버리고 말았지. 그러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게 되었고, 그사이 천둥번개도 그쳐 버렸어. 나는 로테를 따라 홀 안으로 들어갔네. 가면서 로테는 이렇게 말했네. “뺨을 때리고 맞고 하느라 천둥번개 같은 건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네. —그러자 로테가 말을 계속했어. “저 역시 아주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다 보니, 저도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우리는 창가로 다가갔네. 천둥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대지에 단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네. 기분을 상쾌하게 해 주는 향기가 따스한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로 가득 불어왔지. 그녀는 팔꿈치를 받치고 서서 시골 풍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 하늘을 우러러보고는 내게로 시선을 돌렸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네. 로테는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더니, “클롭슈토크!”<sup>22</sup>라고 말하더군. —나는 곧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저 장엄한 송가<sup>23</sup>를 떠올려 보았지. 그리고는 그녀가 이 한 마디 암호로 내게 쏟아 부은 감정의 격류 속에 잠겨 버리고 말았네. 나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그녀의 손 위로 몸을 굽혀 환희로 가득 찬 눈물을 흘리며 그 손에 키스를 퍼부었지.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네. —아아, 고결한 시인이여! 그녀의 눈길에 신을 우러러보는 듯한 당신에 대한 숭배가 깃들어 있음을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 그 신성함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22 클롭슈토크(Friedrich G. Klopstock, 1724~1803)는 독일 계몽주의 문학 시대의 대표적 시인으로, 감성적인 송시를 많이 썼다.

23 천둥, 번개 등 뇌우와 자연 현상에 대한 고귀한 서술이 담겨 있는 클롭슈토크의 송시 <봄 잔치(Frühlingsfeier)>를 말한다.

6월 19일

지난번 내 이야기를 어디서 끝냈는지 알 수가 없네.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잠자리에 누운 시각이 새벽 2시였다는 것, 그리고 만일 그 이야기를 편지로 쓰지 않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아마 아침까지 자네를 붙잡아 두었으리라는 것뿐이야. 무도회에서 돌아올 때 있었던 일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그럴 만한 시간이 없네.

그날 아침의 해돋이는 정말 장엄했다네! 주위의 수풀에서는 물방울이 푹푹 떨어지고 온 들판에는 신선함이 가득 배어 있었어! 우리와 같이 간 여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 그때 로테가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 여자들처럼 좀 눈을 붙이지 않겠느냐고 물었네. —“당신의 말뚱뚱한 눈을 바라보는 한,” 하고 말하며 나는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 “그동안은 결코 잠들 염려가 없습니다.”—이렇게 우리 두 사람은 뜬눈으로 그녀의 집 앞까지 왔다네. 때문에 이르자 하녀가 살며시 문을 열어 주었는데, 로테가 아버지와 아이들은 잘 있으며 아직 자고 있냐고 묻자 하녀는 그렇다고 대답하더군. 헤어지면서 나는 그날 다시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간청했다네. 로테는 그러라고 허락해 주었고, 나는 다시 찾아갔지. —그 시간 이후에도 해와 달과 별들은 조용히 그 운행을 계속하고 있겠지만, 나는 낮이 되는지 밤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네. 그리고 온 세상이 내 주위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네.

6월 21일

나는 하느님께서 성인(聖人)들에게나 베풀어 주었을 것 같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나는 기쁨을, 인생의 가장 순수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는 말하지 못할 거야. —자네도 발하임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완전히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네. 그곳에서 30분이면 로테에게로 갈 수 있지. 거기에서 나는 내 자신을 느끼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느끼고 있다네.

내가 산책지로 발하임을 택했을 때만 해도 그곳이 천국에 그처럼 가까우리란 것을 어찌 생각했겠나! 멀리까지 산책하면서 난 이제 내 모든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냥용 별장을 때로는 산 위에서, 때로는 평원에서, 강 건너로 얼마나 자주 바라보았던가!

사랑하는 빌헬름, 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네. 자신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자유로이 방랑을 해 보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네. 그리고 제한이나 속박에 기꺼이 순응하고, 좌우 어느 것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습관의 궤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내면의 충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지.

내가 어떻게 이곳으로 와 언덕에서 이 아름다운 골짜기를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위의 경치가 왜 이토록 내 마음을 사로잡는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네. —저편에 있는 조그마한 숲! —아아, 그 그늘 속에서 그것과 하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쪽에 있는 산봉우리! —아아, 그 봉우리로부터 드넓은 이 고장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겹겹이 이어지는 언덕과 정다운 골짜기들! —아아, 나 그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급히 달려갔다가 되돌아오고 말았다네. 내가 바라던 것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오오, 저 먼 곳이란 마치 미래와도 같은 것이로세! 거대한 전체의 우주가 어스름하게 우리 영혼 앞에 휴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감성은 두 눈과 마찬가지로 그 속을 잘 보지 못하고 몽롱하게 헤매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아아! 우리의 온 존재를 다 바쳐 단 하나의 거대하고 화려한 감정의 환희로 우리를 가득 채우려는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네. —그런데 아아! 우리가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서 ‘저기’가 ‘여기’가 되어도, 모든 것은 예전이나 다름없게 되어 버리고 말지 않는가. 우리는 결국 여전히 가난과 속박 속에 놓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사라져 버린 청량제를 다시 갈망하게 된다네.

그러면 이 불안한 방랑자는 결국 고향을 다시 그리워하게 되지. 그리고 자기의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아내의 품 안에서, 자식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면서, 드넓은 세상에서 헛되이 찾아 헤맸던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네.



가르벤하임 마을(작중 '발하임') 전경.

아침에 동이 트면 나는 발하임으로 나가 그곳 주인의 채마밭에서 완두콩을 꺾고 그 자리에 앉아 콩을 까면서 간간히 호메로스를 읽는다네. 그러고는 조그만 부엌에 들어가 냄비를 하나 골라 버터를 도

려내어 바른 뒤 뚜껑을 덮고 완두콩을 불에 익히며 그 옆에 앉아 이따금씩 콩을 휘저어 주지. 그럴 때면 나는 페넬로페<sup>24</sup>의 오만한 구혼자들이 황소와 돼지를 잡아 그 고기를 잘라 불에 굽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보게 된다네. 이렇게도 고요하고 진정한 느낌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는 것은 바로 옛 가부장(家父長) 시대에 살았던 삶<sup>25</sup>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을 나는 감사하게도 아무런 꾸밈없이 지금의 내 생활 속에 옮겨 놓을 수가 있다네.

자신이 재배한 양배추를 식탁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걸 심고 가꾸던 즐거운 나날들, 배추를 심던 아름다운 아침, 그리고 그 배추에 물을 주며 커 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던 아늑한 저녁들, 이 모든 것을 그 한순간에 다시금 즐기고 있는 사람의 소박하고도 순결한 환희를 내 마음 또한 함께 느낄 수 있다니, 난 얼마나 행복한가.

24 페넬로페(Penelop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아의 충실한 아내로서, 그녀는 남편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혼자들을 물리치고 20년이나 정절을 지켰다.

25 베르테르는 옛 가부장 시대와 호메로스의 세계를 빌려 '단순한 삶'을 찬미하고 있다.

6월 29일

그저께는 시내에서 의사 한 사람이 주무관 집을 찾아왔는데, 그때 그는 내가 로테의 동생들과 땅바닥에서 놀고 있는 걸 보았다네. 어떤 아이는 내게 매달리기도 하고, 다른 아이는 나를 놀려 대기도 했는데, 내가 간지럼을 태우니까 큰소리를 질러 대기도 했지. 몹시 독단적인 꼭두각시 같은 의사 선생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옷소매의 주름을 펴는가 하면 가슴에 달린 장식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그는 아이들과 노는 나의 행동을 분별 있는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의 짙은 코끝에서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지. 그러나 난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가 분별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혼자 떠들어 대도록 내버려 둔 채 아이들이 망가뜨린 카드로 만든 집을 다시 지어 주었지. 그 후에 그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만을 터뜨렸어. 주무관 집 아이들은 안 그래도 버릇이 없는데, 베르테르란 자가 완전히 망쳐 놓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 사랑하는 빌헬름.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네.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조그만 아이들 속에 언젠가 그들에게 필요하게 될 모든 덕망과 모든 힘의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지. 아이들이 부리는 고집 속에서는 미래의 확고하고 강인한 성격을 알아보게 되고,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인 장난 속에서는 세상의 온갖 위험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훌륭한 유머와 경쾌함이 조금도 구김 없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지! —그럴 때면 언제나, 언제나 나는 인류의 스승<sup>26</sup>이 남긴 금언을 되풀이해 새겨보게 된다네. “너희가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sup>27</sup>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와 동등한 존재이며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아이들을 우리는 마치 부하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아이들은 의지를 가져선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에게도 의지가 없단 말인가? 그런 특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나이 몇 살 더 많고, 세상 물정을 좀 더 잘 알기 때문이란 말로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당신이 보시기에는

26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27 <마태복음> 18장 3절의 금언 : “나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나이 많은 아이들과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기쁨을 느끼시는지는 당신 아들이 이미 오래전에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이 많은 아이들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말씀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 또한 오래된 버릇이지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만 기르단 말입니다. —잘 있게, 빌헬름! 더 이상 이런 허튼소리를 늘어놓고 싶지가 않네.

7월 1일

로테가 병든 환자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네. 병상에서 야위어 가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하는 내 가련한 마음 때문에 나는 그걸 잘 알고 있다네. 로테는 며칠 동안 시내에 사는 어느 정숙한 부인의 집에서 지내게 될 거야. 의사의 말로는 그 부인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으며, 이 마지막 순간에 로테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한다고 하네. 지난 주일 나는 로테와 함께 한 시간쯤 떨어진 산기슭의 조그만 마을에 사는 성(聖) ○○라는 목사를 찾아갔었어. 우린 오후 4시쯤 그곳에 도착했지. 로테는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갔다네. 커다란 호두나무 두 그루가 그들을 드리운 목사관 안마당에 들어갔을 때, 그 선량해 보이는 노인은 현관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어. 로테를 보더니 그는 당장 기운을 차리고 지팡이조차 잊어버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하려 했지. 그러자 로테가 재빨리 그에게로 달려가 억지로 다시 앉히며 그의 곁에 다가앉아서서는 아버지의 간곡한 인사말을 전하고는 노인이 늘그막에 낳은 더럽고 지저분한 어린 사내아이를 품에 안아 주더군. 로테가 그 노인을 돌보아 주는 모습을 자네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반쯤 귀가 먹은 노인이 아이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가 하면,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카를스바드 온천<sup>28</sup>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금년 여름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노인의 결심을 칭찬하며, 지난번에 보았을 때보다 그가 훨씬 건강하고 꽤

28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유명한 요양 온천장.

활해 보인다고 말하는 모습을 말아야. —그러는 사이 나는 목사 부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 노인은 아주 쾌활해 졌으며, 내가 우리에게 그토록 정다운 그들을 드리워 주는 아름다운 호두나무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더니 그는 약간 힘들어 하면서도 그 나무의 유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네. —“저 오래된 나무는 누가 심었는지 알 수가 없대요.” 노인이 이렇게 계속 말했지. “누구는 이 목사가 심었다 하고 누구는 저 목사가 심었다고 하니까. 한데 저 뒤에 있는 젊은 나무는 내 집사람과 나이가 꼭 같은데, 오는 10월이면 쉰 살이 된대요. 어느 날 아침 장인이어른이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태어났던 거래요. 그분은 내 선임목사였는데, 이 나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소. 물론 나도 그분 못지않게 좋아했지요. 바로 27년 전 가난한 대학생인 내가 이 안마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집사람은 저 나무 아래 긴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요.”—로테가 그의 딸의 안부를 물었지. 노인은 딸이 슈미트 군과 함께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고 하고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어. 선임목사도 자기를 좋아하고 그의 딸도 자기를 사랑해서, 처음에는 부목사가 되었다가 다음에는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목사의 딸이 슈미트라는 사람과 정원을 지나 걸어 들어왔지. 그녀는 로테를 진정으로 따스하게 맞이했으며, 나도 그녀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네. 성숙하고 몸매가 날씬한 갈색 머리의 처녀로서 시골에서라면 얼마 동안 사귀어 볼 만한 여자였네. 그녀의 애인(슈미트 씨는 곧 그렇게 소개되었기 때문이지)은 세련되긴 했지만 조용한 사람으로, 로테가 계속 대화에 끌어들이려 해도 결코 마음 내켜 하지 않더군. 그의 인상으로 보아 그가 대화에 끼지 않는 건 지식이 모자라기보다는 고집이 세고 유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몹시 실망했네. 얼마 안 가서 이런 사실은 아주 명백해졌지. 왜냐하면 산책을 하면서 프리데리케가 로테와 함께 걷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함께 걷기도 했는데, 그때 그렇지 않아도 갈색인 슈미트 씨의 얼굴색이 눈에 떨 정도로 어두워졌으며, 그럴 때면 로테가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프리데리케에게 너무 친절하게 굴지 말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불쾌한 일은 없지. 더구나 마음을 열어 놓고 온갖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꽃다운



시절의 젊은이들이 얼마 안 되는 행복한 날들을 얼굴을 찌푸린 채 망쳐 버린 다음, 뒤늦게 돌이킬 수 없는 나날들을 낭비해 버린 사실을 깨달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 때문에 난 기분이 상했지. 저녁에 목사관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인생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그 실마리를 잡아 불쾌한 기분에 대해 힘주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네. —“우리 인간들은 종종 불평을 하지요.” 이렇게 나는 말을 시작했지. “행복한 날은 너무 적고 불행한 날은 너무나 많다고들 하는데, 그건 대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이 매일매일 마련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비록 불행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그 불행을 이겨 낼 수 있는 힘 또한 충분히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분이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부인이 대답하더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따라 좌우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은 법이에요.” —나는 부인의 말이 옳다고 시인했네. —“그럼 그런 것을 병이라고 보아야겠지요.” 나는 말을 계속했지. “그리고 거기에 잘 듣는 약이 없을까를 물어봐야겠지요?” —“그건 그렇겠군요.” 로테가 말하더군. “전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불쾌해지려고 하면, 저는 곧장 벌떡 일어나 정원을 거닐며 춤곡 한두 곡을 흥얼거려요. 그러면 기분이 곧 가라앉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대답했지. “불쾌한 기분이란 정말이지 게으름과도 같습니다. 그건 확실히 일종의 게으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본성이란 몹시 게으름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용기를 낼 만한 힘을 갖게 되면, 일은 손쉽게 힘차게 진행되고, 우리는 활동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됩니다.” —프리데리케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지만, 그 젊은 슈미트 씨는 내 말에 반론을 펴면서,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더욱이 감정을 지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불쾌한 감정이지요.” 내가 대답했지. “누구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자기 능력을 시험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의사를 두루 찾아다니며 진찰을 받을 것이고, 바라는 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아주 힘든 절제

도 하고, 쓰디쓴 약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나는 그 점잖은 노인도 우리들 토론에 참여하려고 애써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네.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말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 “약을 극구 비난하는 설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분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는 말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sup>29</sup>—“도시의 목사들은 그런 설교를 해야겠지.” 노인이 말했네. “시골 농부들에게는 불편한 기분이란 게 없지요. 하지만 때때로 그런 설교를 하는 게 해가 되진 않을 거요. 최소한 우리 집사람이나 주무관 양반에겐 좋은 약이 될 테니까.”—그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노인도 즐거운 듯 함께 웃었는데, 결국엔 아주 심한 기침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토론이 한동안 중단되었지. 그 다음에 젊은이가 다시 말을 꺼냈네. “당신은 불편한 기분을 죄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지나친 과장이라 생각합니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지. “자신과 자기 이웃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하지요.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각자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기쁨마저 서로 그렇게 빼앗아야만 하겠습니까? 불편한 기분에 젖어 있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즐거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불쾌감을 감추고 홀로 견뎌 나가는 그런 홀륭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혹 나쁜 기분이란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의 불만이거나, 바보스러운 허영심이 일으킨 질투심과 결부된 자신에 대한 불쾌감이 아닐까요? 우린 가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준 것도 아니면서 그걸 못 견뎌 하지요.”—로테는 내가 감동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네. 그리고 프리데리케의 눈에 눈물이 꾀는 것을 보고 나는 힘을 얻어 말을 계속했지. —“누군가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소박한 기쁨을 앗아 버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질투심에 가득 찬 폭군의 나쁜 기분으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한순간의 기쁨이 망가져 버렸다면, 세상의 어떤 선물이나 어떤 친절도 그 망가진 기쁨을 보상해 줄 수 없을 겁니다.”

29 이에 관하여는 라마티의 홀륭한 설교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요나의 책에 관한 설교가 그러하다.—원주.

이 순간 내 가슴은 너무나 벅차올랐다네. 지난 일들에 대한 여러 추억이 마음속에 밀려오며, 두 눈에는 눈물까지 솟구쳐 올랐다네.

“누구나 매일매일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큰소리로 말했다. “네가 친구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란 오로지 그들의 기쁨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함께 기쁨함으로써 그 행복을 더해 주는 일뿐이다. 만일 친구의 영혼이 불안한 격정에 시달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갈갈이 찢어졌다면, 그때 넌 친구에게 진통제 한 방울이라도 건네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꽃다운 젊은 시절에 내게 짓밟힌 처녀가 마지막으로 지독한 병에 걸려 쓰러지고, 이제 비참하게 지친 몸으로 병석에 누워서, 멍한 눈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창백한 이마에는 간간이 식은땀만 흘러내린다고 하자. 그럴 때 너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 침대 앞에 서서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죽어 가는 여인에게 한 방울의 강장제나 한 점 불티 같은 용기를 넣어 줄 수만 있다면, 너는 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불안한 심정에 마음속 깊이 경련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때의 회상이 몰밀듯이 덮쳐 왔다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감추며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지. 이제 그만 가자고 로테가 말하는 소리에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지. 돌아오는 길에 로테는 내가 모든 일에 너무나 정열적으로 몰두한다고 꾸짖으며, 그 때문에 파멸할지도 모른다!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하더군. —오오, 천사여! 난 그대 때문에 살아야만 해요!

7월 6일

로테는 여전히 죽어 가는 부인 곁에 머물러 있다네.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우러나온다네. 어제저녁 그녀는 마리아네<sup>30</sup>와 더불어 어린 말헨<sup>31</sup>을 데리고 산책을

30 로테의 친구인 죽어 가는 부인의 이름.

31 로테의 여동생으로 여섯 살쯤 되는 금발의 소녀.

나갔었지. 난 그걸 미리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만나 함께 산책을 했지. 한 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한 다음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그 샘물터를 들르게 되었네. 내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그 샘물은 이제 수천 배나 더 값진 곳이 되었지. 로테는 낮은 돌담에 걸터앉았고, 우리는 그녀 앞에 서 있었네. 주위를 돌아보니, 아! 내 마음이 그다지도 외로웠던 시절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더군. —“다정한 샘물이어.” 내가 말했어. “그 후로 난 너의 서늘함을 즐기며 쉬어 보지도 못하고, 너무 바쁘게 지나치는 바람에 가끔 너를 쳐다보지도 못했구나.”—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말헨이 물을 한 컵 들고 부지런히 올라오더군. —그리고 나는 로테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꼈다네. 그러는 동안 말헨이 물컵을 가지고 올라왔지. 마리아네가 컵을 받으려 했네. “안 돼!” 어린 소녀는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외쳤어. “안 돼, 로테 언니, 언니가 먼저 마셔야 돼.”—그렇게 말하는 소녀의 진실하고 착한 마음씨에 감격한 나머지, 나는 내 감정을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안아 올려 열렬히 뽀뽀를 해 주었지. 그러자 소녀는 소리치며 울어 대기 시작했어. —“당신이 잘못했어요.” 로테가 말하더군. —나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지. —“자, 이리 와, 말헨.” 로테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말을 계속했어. “깨끗한 물로 어서 세수를 하렴, 어서. 그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내가 그냥 서서 바라보니, 어린 소녀는 열심히 작은 손을 적서 뺨을 문질러 대더군. 마치, 기적의 샘물이 부정한 것을 모두 깨끗이 씻어 버리고, 보기 흉한 수염을 돌아나지 않게 해 준다<sup>32</sup>고 믿는 것 같았어. “그만하면 됐어!” 하고 로테가 말을 해도 소녀는 모자라는 것보다는 많은 게 낫다는 듯이 계속 열심히 닦아 내는 거야. —빌헬름, 솔직히 말하건대, 난 어떤 세례식에도 이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 본 적이 없다네. 그리고 로테가 올라왔을 때, 나는 한 민족의 죄를 모두 사해 주는 예언자 앞에 있는 것처럼,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네.

그날 저녁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늘 일을 한 남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그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인정도 있으리라 믿었건만, 이게 웬 일인가! 그 사람은 로테가 나뻐다고 말하지 뭐가.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거짓을 믿

32 젊은 남자가 어린 소녀에게 키스를 하면 수염이 난다고 하는 미신이 있다.

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여러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미신을 믿게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거야. —그제야 그 사람이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 말을 흘려버리고 말았다네. 그리고 내 마음 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믿게 되었지. 하느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고. 하느님이 우리를 기분 좋은 망상에 빠뜨려 비틀거리게 할 때 우리는 더없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7월 8일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네! 단 한 번의 눈길을 이렇게 갈망하다니!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똑같아! —우린 발하임에 갔었다네. 여자들은 마차를 타고 갔고, 산책하는 동안에 나는 로테의 검은 눈 속에서—난 바보와도 같네, 용서해 주게! 자네가 그녀의 눈을 보았더라면, 이 눈길을, —간단히 쓰기로 하지(졸려서 자꾸만 눈이 감기기 때문이야). 여자들은 마차에 올라탔고, 그 주위에 젊은 W와 켈슈타트, 아우드란과 내가 서 있었지. 그때 마차 문짝 너머로 경박스럽고도 꽤 활한 녀석들과의 잡담이 오갔다네. —나는 로테의 눈길을 찾았어. 아아, 그런데 그녀의 눈길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옮겨 다니는 거야! 그러나 내게는! 내겐! 나에게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는! —나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나 작별을 고했지! 그래도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 마차가 떠나가자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지. 그녀의 모습을 뒤쫓고 있노라니, 로테의 머리장식이 문짝 밖으로 비스듬히 나타나는 게 보였어. 그리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어. 아아! 나를 보기 위해서였을까?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 들뜬 채 위안을 찾고 있다네. 아마도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을 거야! 아마도 틀림없이! —잘 자게나! 오오, 정말 난 어린애 같아!

7월 10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로테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지 자네가 보았어야 하는데! 더구나 그녀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보기라도 할 땐 어떨 것 같은가? —마음에 든다니! 나는 이 말을 죽도록 싫어한다네. 로테를 마음에 두면서도 모든 감각과 모든 감정이 그녀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대체 그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란 말인가! 마음에 든다니! 얼마 전에는 오시안<sup>33</sup>이 마음에 드느냐고 묻는 인간도 있더군!<sup>34</sup>

7월 11일

M 부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됐네. 나는 그 부인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네. 로테와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이야. 오늘은 그녀가 아주 놀라운 사건을 얘기해 주었어. —늙은 M 씨는 아주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구두쇠였는데, 살면서 자기 부인을 몹시 괴롭히고 궁색한 살림까지 강요했지. 그러나 부인은 살림을 그럭저럭 꾸려 나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네. 며칠 전 의사가 부인의 생명이 가망 없다고 하자, 그녀는 남편을 불러 놓고(그때 로테는 함께 방 안에 있었다는군) 이렇게 말했다네. “당신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언짢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나는 가능한 한 바르게 절약하며 집안 살림을 꾸려 왔어요. 하지만 지난 삼십 년 동안 당신을 속여 왔는데, 날 용서해 주리라 믿어요. 결혼 초에 당신은 식비와 기타 생활비로 아주 적은 액수를 정해 주셨어요. 살림이 커지고 사업이 번창해졌을 때도 거기에 맞게 매주 나가는 생활비를 늘려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간단히 말해서,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살림의

33 오시안(Ossian), 3세기경 고대 켈트 족의 전설적 시인이며 용사이다. 아버지인 영웅 핑갈을 노래한 낭만적 서사시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의 시인 J. 맥퍼슨이 그의 서사시를 수집·영역(英譯)하고, 그 자료에 의한 자작시 <고대시가단장>, <핑갈>, <테모라>를 발표했다. 뉘랑콜리한 낭만적 정서를 담은 이 시들은 헤르더, 괴테, 실러 등 1760년대의 독일 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34 <오시안의 노래>는 당시의 유럽, 특히 독일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낭송되었다. 괴테는 이 시를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규모가 가장 커졌을 때도 당신은 나에게 7굴덴<sup>35</sup>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난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모자라는 액수는 매주 판매대금에서 가져다 썼어요. 어느 누구도 안주인이 자기 집 금고에서 돈을 훔치리라곤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난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난 이런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어도 편안하게 저세상으로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죽은 다음 살림을 맡게 될 여인이 어떻게 꾸려 가야 할지를 알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당신이 첫 번째 아내는 그 돈으로도 살림을 잘 꾸려 나갔노라고 고집하는 일만 없다면요.”

나는 로테와 더불어 인간의 분별력이 때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네. 생활비가 두 배 이상 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누군가가 7굴덴으로 잘 꾸려가고 있다면, 그 뒤에는 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니 말이야. 그러나 자기 집에는 예언자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 단지가 있다고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네.<sup>36</sup>

## 7월 13일

아니, 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난 그녀의 검은 두 눈에서 나에게 대한, 그리고 내 운명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읽어 낼 수 있어. 그래, 난 느껴. 그 점에서는 내 마음을 믿어도 좋을 거야. 그녀가 나를—아아, 이 말 속에 천국이 깃들어 있거늘, 말해도 될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녀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나를 사랑하는 거라네! —그러니 나 자신이 얼마나 값진 몸이 되었겠나. 내가 얼마나—자네에겐 말해도 될 거야. 자넨 그런 마음을 이해할 테니까. —그녀가 날 사랑

35 중세에 독일에서 사용되던 금화와 은화. 오늘날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로 사용되는 1굴덴은 미화 약 1 달러에 해당한다.

36 구약성서 <열왕기 상> 17장 참조. 예언자 엘리야는 사렘다의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뿔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 단지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게 된 이후로 난 내 자신을 얼마나 숭배하고 있는지 모른다네!

이제 주제넘은 생각일까, 아니면 실제의 관계에서 나온 감정일까? —약간이나마 로테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 만한 사람을 난 아직 알지 못하네. 그러면서도—그녀가 자기 약혼자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그렇게도 따뜻하게 사랑이 충만한 태도로 이야기할 때면, —나는 모든 명예와 품위를 빼앗기고, 자신의 칼마저 빼앗겨 버린 사람 같은 기분이 된다네.

7월 16일

어쩌다가 내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건드리게 될 때나 탁자 밑에서 우리의 발이 서로 스치게 될 때면, 아아, 나는 온몸의 피가 솟구치는 것 같네! 나는 불에 닿기라도 한 듯 몸을 움츠리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몸을 앞으로 내밀지. —내 모든 감각에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야. —아아! 그녀의 천진난만하고도 거리낌 없는 영혼은 그런 사소한 친밀감이 날 얼마나 괴롭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네!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손을 내 손에 올려놓을 때나, 이야기가 재미있어 그녀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 입에서 흘러나오는 다정한 입김이 내 입술을 스치기라도 할 때면, —난 벼락이라도 맞은 듯 가라앉는 기분이라네. —그런데 빌헬름! 이런 천국과 이런 신뢰를 내 어찌 감히! —자넨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그래,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어! 그저 약할 따름이야! 아주 나약해! —그런데 그 약하다는 것이 바로 타락이 아닐까? —

로테는 내게 성스러운 존재라네. 그녀가 있는 곳에서는 온갖 욕망이 잠잠해지니 말이야. 그녀 곁에 있을 때는 내 기분을 알 수가 없어. 마치 내 영혼이 모든 신경 속에서 마구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로테는 자기 나름의 멜로디를 갖고 있다네. 천사 같은 힘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다네! 그것은 그녀가 좋아하는 가곡인데, 이 악보의 첫 음을 치기만 해도 나는 온갖 고통과 방황과 시름을 잊어버리게 된다네.

옛날부터 전해 오는 음악의 마력(魔力)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말 같지가 않아. 그

소박한 노랫소리가 내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는지! 그리고 그녀는 언제 노래를 연주해야 할지를 안다네. 종종 내가 머리에 총알을 한 발 쏘고 싶은 때를 맞춰 노래를 연주하곤 하지! 그러면 내 영혼의 방황과 어둠은 사라지고, 나는 다시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된다네.

7월 18일

빌헬름, 사랑이 없다면 그 세계란 대체 우리 마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빛이 없다면 미술 램프가 무슨 소용 있겠나! 조그만 램프를 빛 속에 넣기만 하면, 곧 하얀 벽에 오색찬란한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지! 그것이 덧없이 흘러가는 열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소년들처럼 그 앞에 서서 경이로운 영상들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실어다 주지 않을까. 오늘 나는 로테를 찾아갈 수가 없었네. 피할 수 없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나는 오늘 로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을 내 곁에 두기 위해 하인을 그녀에게 보냈다네. 얼마나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으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를 다시 맞이했는지 모른다네! 부끄럽지만 않다면, 나는 하인의 머리를 잡고 그에게 키스라도 했을 거야.

형광석(螢光石)은 햇빛을 받으면, 그 빛을 흡수했다가 밤이 되어도 한동안 빛을 낸다고 하지. 내게는 그 하인이 바로 그런 존재였네. 로테의 눈길이 닿은 그의 얼굴과 뺨, 저고리 단추와 외투 칼라 그 모든 것이 그렇게도 신성하고 귀한 것이 되어 버리지 않겠나! 이 순간에는 수천 탈러<sup>37</sup>를 준다 해도 이 젊음을 내놓지 않았을 거야! 그가 앞에 있기에 나는 정말 행복했다네. —이런 날 비웃지 말아 주기 바라네. 빌헬름, 행복하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37 16세기 보헤미아 지방에서 사용되던 은화.

7월 19일

“그녀를 만나리라!” 나는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 명량한 기분으로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친다네. “오늘은 그녀를 만나리라!” 그것 외에는 온종일 다른 어떤 소망도 갖지 않네. 모든 것, 모든 일이 그 희망 속에 휘감겨 버리고 만이니까.

7월 20일

공사(公使)와 함께 ○○로 가라고 하는 당신네들<sup>38</sup> 의견에 난 동의할 수가 없네. 나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걸 몹시 싫어하는 데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 공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야. 어머니께서 내가 활발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자네는 말하는데, 그것은 웃기는 일이지. 그럼 내가 지금은 활발하게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완두콩을 세거나 강낭콩을 세거나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 아닌가? 세상의 일이란 모두가 쓸데없는 하찮은 일에 불과하지. 그리고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욕구도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돈이나 명예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인간이란 언제나 바보 천치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라네.

7월 24일

내가 그림 그리기를 게을리하지 않나 자네가 몹시 마음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그림을 거의 그리지 못했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차라리 그냥 넘겨 버리고 싶네.

그러나 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었어. 자연에 대한 내 감성(感性)이 조그만 돌이나 가냘픈 풀 잎사귀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풍부하고 강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말이네. 그러면서도—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내 표현력이 너무나 미약하여, 모든 것이 윤곽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 앞에서 희미해지

38 베르테르의 어머니와 친구 빌헬름을 말한다.



*Lothar, gütliche Frau.  
am 9. Febr. 1774.*

로테의 모델인 샤를로테 부프의 실루엣 초상화.  
이 실루엣은 괴테가 베를린을 떠난 뒤인 1772  
년 10월 괴테에게 보내졌다. 1774년 괴테는 《젊  
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다 쓰고 난 뒤 이 실루  
엣 아래에 자필로 이렇게 써 넣었다. “로테 잘  
자요, 1774년 7월 17일에.”

며 흔들리고 있네. 그래도 나는 점토나  
밀랍이 있으면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  
다는 상상을 한다네. 이런 기분이 오래  
지속된다면, 점토를 손에 들고 빚어 볼  
거야. 그것이 비록 과자 부스러기가 된다  
할지라도!

로테의 초상화를 세 번이나 시작했지만,  
세 번 다 실패하고 말았네. 얼마 전에는  
그래도 제대로 그릴 수 있었기에 그만큼  
더 화가 나는군. 그 뒤로는 그녀의 실루  
엣<sup>39</sup>만 그렸는데, 우선은 그것으로 만족  
해야겠네.

7월 26일

그래요, 사랑하는 로테, 무슨 일이든 기꺼이 보살피고 돌보아 드리지요. 무엇이든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청이 있다면, 제게 보내  
는 편지에는 모래를 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도 편지를 재빨리 입술에 갖다 댔  
다가 와드득 모래를 씹었습니다.

39 실루엣(그림자 그림) 기법의 그림은 1770~1810년대의 독일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7월 26일

로테를 너무 자주 만나지 않겠다고 나는 벌써 여러 번 결심했다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날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내일은 한번 만나지 말아 봐야지 하고 거룩하게 자신과 약속을 하지.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구실을 찾아내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 곁에 와 있다네. 저녁때 그녀가 “내일 또 오시겠죠?” 하고 말을 한다면,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혹은 그녀가 무슨 부탁을 하면, 내가 직접 만나 알려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지. 혹 날씨가 좋아서 발하임까지 가게 되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30분이면 그녀 집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녀의 영향권에 가까이 가게 되면, —순식간이야! 난 벌써 그곳에 가 있는 거야. 할머니께서 언젠가 자석산(磁石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지. 배가 그 산에 너무 가까이 가면, 갑자기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빼앗겨 버린다는 거야. 못이란 못은 몽땅 산으로 날아가 버리고, 불쌍한 선원들은 차레로 무너져 내리는 널빤지 밑에 깔리고 배는 난파당하고 만다는 것이지.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다네. 이제 난 떠나려 하네. 어느 점으로 보나 그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잖고 고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지닌 그를 바라본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 —완벽한 모습을 지녔어! —됐네, 하지만 빌헬름, 로테의 약혼자가 온 거야! 누구나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지. 다행스럽게도 그가 왔을 때 난 그 자리에 없었네! 그 광경을 보았다면 가슴이 찢어졌을 거야. 그는 점잖은 사람이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번도 로테에게 키스를 하지 않았네. 그 점에 대해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가 여인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라면, 나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네. 내게도 잘 대해 주고 있는데, 그건 자신의 감정이 우러나서라기보다는 로테가 시킨 것 같아. 그런 점에 대해 여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일을 잘 처리

하기 때문이지. 자기를 좋아하는 두 남자가 서로 사이 좋게 지내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 이득은 언제나 여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지. 어찌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말이야.

아무튼 나는 알베르트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숨길 줄 모르는 내 불안정한 성격과 생생하게 대조되다니. 그는 감정도 풍부하고, 로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 자네도 알다시피 우울한 기분이란 죄악이며, 인간의 그런 죄악을 나는 다른 무엇보다 싫어하고 있단네.

알베르트는 나를 분별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 내가 로테에게 애착을 보이는 것이나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따뜻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그의 승리감은 고조되며, 그럴수록 그는 로테를 더욱 사랑하지. 어찌다 약간 질투심이 나서 로테를 괴롭혔는지 아닌지는 묻지 않고 버려두겠네. 적어도 내가 그 입장이라면, 악마 같은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으리란 보장도 없을 거야.

그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상관인가. 로테 곁에 있다는 내 기쁨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네. 이걸 어리석다고 할까, 아니면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까? —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실 자체가 분명히 말해 주고 있는데! —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난 알베르트가 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녀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네. — 이를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이야. — 그런데 이제 다른 남자가 와서 그 여인을 빼앗아가 버리니, 이 우둔한 인간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단네.

나는 이를 악물고 내 불행을 비웃고 있지.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단념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두 곱 세 곱 비웃어 줄 생각이야. — 그런 허수아비들을 쫓아 버려야지! — 내가 이리저리 숲 속을 돌아다니다가 로테를 찾아가면, 알베르트가 그녀와 나란히 정원 정자에 앉아 있곤 하지. 그러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자할 정도로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익살을 떨며, 되지도 않는 짓들을 해 대곤 한단네. — “제발 부탁해요.” 오늘 로테가 말하더군. “제발 어젯밤에 한 것 같은

짓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익살을 부리면 당신이 무서워져요.”—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나는 알베르트가 바쁜 시간을 엿보고 있네. 그때 짹째! 달려가지. 로테가 혼자 있는 것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행복해진다네.

8월 8일

사랑하는 빌헬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그대로 복종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신랄하게 비난한 것은 결코 자네를 두고 한 말은 아니야. 정말로 난 자네가 그와 비슷한 의견을 가졌다고는 생각지 않았네. 한데 근본적으로는 자네 말이 옳아. 다만 한 가지, 사랑하는 친구여! 이 세상에는 이것이나 저것이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네. 매부리코와 납작코에도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도 여러 가지 농담(濃淡)의 차이가 있는 법이니까.

그러니 자네의 의견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양자택일의 사이로 빠져나가려 하더라도 나쁘게 생각지 말아 주게.

자네 말은 내가 로테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것이지. 그래, 첫 번째 경우라면 그 희망을 관철시켜 소망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 모든 힘을 소모시켜 버리는 비참한 감정에서 헤어나도록 용기를 내라는 것이었네. —친구여! 참으로 옳은 말이네. 하지만 말하기는 쉬운 법이지.

그럼 자네는 만성질환에 걸려 점차 죽어 가고 있는 불행한 사람에게 그 고통을 단칼에 베어 끝내 버리라고 요구할 수 있겠나? 그 질병은 힘을 잠식하는 동시에 고통을 벗어나려는 용기까지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닐까?

하지만 자네는 비슷한 비유를 들어 대답할 수도 있겠지. 머뭇거리며 두려워하다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팔을 자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야. —난 잘 모르겠네! —비유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은 그만두도록 하세. 그만 됐네. —그런데 빌헬름, 나도 순간적으로 박차고 일어나 뿔뿔 털어 버리고 싶은 용기를 느끼는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럴 때—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내 기꺼이 그리로 가련만.



그날 저녁에

얼마 전부터 소홀히 했던 일기장을 오늘 다시 손에 들었네. 뻔히 알면서도 모든 일에 얼마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었는지를 알고 놀랐다네! 내 상태를 늘 분명히 간파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던 거지. 지금도 명확히 보이는데, 나아질 것 같은 낌새는 조금도 보이지 않네.

8월 10일

내가 바보만 아니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곳처럼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아, 확실한 것은 우리 마음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네. —따뜻한 가정의 일원이 되고, 노인<sup>40</sup>에게서는 아들처럼 사랑을 받고, 아이들로부터는 아버지처럼 존경받으며, 더구나 로테에게서도! —게다가 점잖은 알베르트는 한 번도 기분 나쁜 태도나 무례한 태도로 내 행복을 깨뜨린 적이 없고, 진정한 우정으로 날 감싸 주고 있네. 이 세상에서 나는 로테 다음으로 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라네! —빌헬름, 산책하면서 우리가 로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본다면 자네도 즐거워할 거야. 세상에 이런 관계보다 더 우스꽝스런 것은 결코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종종 눈물이 솟곤 한 다네.

알베르트는 언젠가 내게 로테의 올곧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지.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로테에게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에게는 로테를 부탁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로테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정성스럽게 살림을 돌보고 성실하게 정말 어머니처럼 보살피게 되었다는군. 열심히 사랑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이 잠시도 없으면서, 결코 명랑하고 경쾌한 기분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와 나란히 걸어가며 길가에 핀 꽃을 꺾어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었다네. 그리고 흘러가는 시냇물에 던지고는 그 꽃다발이 조용히 떠내려가는 모

40 로테의 아버지를 말한다.

습을 바라보았지. —자네에게 써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알베르트는 여기에 머물면서, 그가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이곳 영주의 궁정에서 보수가 상당한 관직을 얻게 될 거야. 것처럼 사무를 처리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adne.

8월 12일

확실히 알베르트는 하늘 아래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어제 그와 더불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다네.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를 찾아갔었지. 실은 갑자기 말을 타고 산속을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네. 이 편지도 그 산에서 쓰고 있adne. 알베르트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의 권총들이 눈에 들어왔지. —“여행을 가는데 권총을 좀 빌려 주십시오.”<sup>41</sup> 내가 말했네. —“그러시지요.” 그가 대답하더군. “직접 총알을 장전하겠다면 말입니다. 여기엔 그저 장식용으로 걸어 둔 것이니까요.”—내가 한 자루를 집어 내리자 그가 계속 말하더군. “조심하라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그런 물건을 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 —알베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 “내가 석 달쯤 시골에 사는 친구 집에 머물러 있을 때였지요. 비록 총알이 장전되진 않았지만 소형 권총을 두 자루 가지고 있어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할 일도 없이 앉아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 권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런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도 알 겁니다. —그래서 권총을 하인에게 내주며 손질을 하고 장전을 해 두라고 했지요. 그런데 하인 녀석이 하녀들과 장난을 치며 놀래 주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꽃을대<sup>42</sup>가 그대로 꽃혀 있었는데 총이 발사된 겁니다. 총알이 하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볼록한 부분에 맞는 바람에 엄지손가락이 으스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한바탕 야단이 났고, 나는 치료비까지 물어 주었지요. 그 뒤로는 총이란 총은 모두 장전을 해 놓

41 피테의 친구 예루살렘도 자살하기 전날 케스트너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42 총포에 화약을 재거나 총열 안을 청소할 때 쓰는 쇠꼬챙이.

지 않는답니다. 친구, 조심한다는 게 뭐겠소? 위험이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자네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짐작하겠지만, 그가 말하는 ‘다만’이라는 단서만은 제외하고 말이네. 물론 일반적인 법칙에도 언제나 예외는 있게 마련이지. 하지만 그는 정말 주도면밀한 사람이야! 자기가 한 말이 너무 경솔하거나 평범하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는 지체 없이 그 말을 바꾸고 취소하거나 덧붙여서,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네. 이번 경우에도 몹시 파고들어 장황하게 설명하더군. 그래서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에 잠겨 있었지. 그러면서 느닷없이 몸을 돌려 총구를 내 오른쪽 눈 위 이마에 갖다 댔다네. —“저런! 그게 무슨 짓이오?” 알베르트는 권총을 뺏으면서 말하더군. —“총알도 없는데요, 뭐.” 내가 대답했지. —“그래도 그렇지, 대체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초조하게 대답했네. “어떻게 인간이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수 있는지 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답니다.”

“당신네 같은 사람들은” 하고 내가 소리쳐 말했네.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이건 바보짓이다, 저건 현명한 일이다, 이건 훌륭하다, 저건 나쁘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어떤 행위의 내면적 관계를 모두 파헤쳐 보셨습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째서 일어나야만 했는가 하는 원인을 명확히 밝혀 보았던가요? 만일 그렇게 해 보았다면,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행위는 틀림없이 최악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시겠지요.” 알베르트가 말했네.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그의 말을 인정해 주었네. —“하지만 알베르트, 이 점에서도 예외란 게 있지요.” 내가 말을 계속했네. “도둑질이 최악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장 굶어 죽어 가는 자신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면, 그는 동정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남편이 정당한 분노를 터뜨려 부정한 자기 아내와 그 아내를 유혹한 비열한 간부(姦夫)를 희생시켰다면, 대체 누가 그에게 첫 번째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처녀가 환희로 충만한 순간에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에 자신을 내맡겼다면,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꼼꼼한 냉혈한(冷血漢)과도 같은 우리 법률까지도 감동하여 처벌을 면해 줄 것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알베르트가 대답했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정뱅이나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아, 당신네 이성적인 인간들이란!” 나는 미소를 머금으며 소리쳐 말했네. “당신네는 걱정! 술주정! 광증!이라고들 하지요. 당신네 도덕군자들은 태연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며, 주정꾼을 비난하고 미치광이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네처럼 그 옆을 피해 지나가며, 마치 바리새파 사람처럼<sup>43</sup> 하느님이 당신네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지요. 난 벌써 여러 번 취해 보았고, 내 열정은 광증이나 다를 것도 없지만, 나는 어느 하나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뭔가 위대한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해낸 비범한 인간들을 옛날부터 주정뱅이나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는 점을 내 나름으로 배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대담하고 고상하지만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면, ‘저 인간 취했어, 저자는 멍청이야!’ 하고 외쳐 대는데,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지식한 당신네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당신네들, 수치스럽게 여기란 말입니다!”

“그것 역시 당신의 망상 때문입니다.” 알베르트가 말했네. “당신은 모든 일을 너무 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살만 하더라도 그것을 위대한 행위와 비교한다는 것은 확실히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란 나약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통에 찬 삶을 깨끗하게 견디며 사는 것보다는 죽는 일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야기를 중단해 버리려고 했네. 내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는

43 그리스도 시대에 가장 성했던 유대교의 한 종파.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주장했다. <누가 복음> 18장 11절 참조.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기도하였다.”

데, 상대방이 무의미하고 평범한 말을 하고 나오면, 이런 논쟁만큼 나를 참을 수 없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지. 그러나 벌써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었고 또 화를 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간 언성을 높여 대답했네. “그걸 나약함이라 합니까? 걸만 보고 잘못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느 폭군의 견딜 수 없는 압제 때문에 신음하던 국민이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쇠사슬을 끊어 버린다면, 그걸 나약하다 말할 수 있으십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온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평소 때는 움직이지도 못할 무거운 짐을 가볍게 옮겨 놓는 사람도 있고, 또 모욕을 당해 화가 나서 여섯 명에게 달려들어 이들을 거뜬히 해치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모두 나약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한데, 보십시오. 노력하는 것을 강점이라고 본다면, 극도로 긴장한다는 것은 어쩌서 그 반대가 된단 말입니까?”—알베르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 “언짢게 생각하는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열거한 예는 전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렇지도 모르지요.” 나는 대답했네. “내 연결 방식이 때로는 엉터리에 가깝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가끔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 보통 때 같았으면 즐겁게 짊어졌을 인생의 짐을 내던지기로 결심한 사람의 기분이 대체 어떤 것인지 다른 식으로 상상해 볼 수는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런 문제에 대해 토론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 낼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곧 파멸하고 맙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람이 약하냐 강하냐가 아니라, 고통의 어느 정도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건 도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열병으로 죽은 사람을 비겁자라 부르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설이요! 지독한 역설입니다!” 알베르트가 소리쳤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한 역설은 아닙니다.” 내가 답변했지. “당신도 인정하시겠지만, 사람의 몸이 너무 쇠약해진 나머지 한편으로는 그 힘이 다 쇠진해 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되살릴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마비되어, 아무리 신통하다는 치료를 해도 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가망이 없는 경우, 우리는 이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경우를 정신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인상에 사로잡히고 굳어진 생각에 구속당하며, 결국은 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빼앗긴 채 파멸하고 맙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 불행한 인간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도 헛된 일이고, 그에게 충고를 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환자 침대 곁에 서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원기를 환자에게 넣어 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은 알베르트에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였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된 처녀를 상기시키며, 다시 그 처녀 이야기를 꺼냈지. —“그 착하고 젊은 처녀는 집안일이나 매주 정해진 일을 하며 비좁은 환경에서 성장했지요. 그녀의 즐거움이란 그저 일요일이면 겨우 장만한 외출복을 입고 친구들과 교외로 산책을 나간다가, 어쩌다 축제일이 되면 한 번쯤 춤을 춘다가,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이 있더라도 하면 정말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 신이 나서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떠는 게 고작이었지요. —그런데 마침내 그녀의 불같은 성격이 남자들의 아침 소리에 더욱 달아올라 더욱 강렬한 욕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즐거움에 점차 싫증을 느끼다가 드디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까지 느껴 보지 못했던 감정에 저항할 수 없이 사로잡혀 그 남자에게 모든 희망을 걸게 되었지요. 주위 세계도 잊어버리고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으며, 오로지 그 남자 하나만을 그리워했습니다. 부질없는 허영이 가져다주는 공허한 쾌락에 물들지 않은 채, 한 가지 목적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여자가 되는 바람이었습시다. 그와 영원히 결합함으로써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모든 행복을 맛보며, 그리워하던 온갖 기쁨을 함께 누려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약속이 거둬지자 모든 희망에는 확신이 생기고, 대단한 애무로 욕망은 더욱 커져서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모든 환희의 예감 속

에 들떠서 극에 달할 정도로 긴장했지요. 마침내 그녀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온갖 소망을 품에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비된 채 넋을 잃고 나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은 암흑일 따름이고, 아무런 희망도 위안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해 주던 그 남자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 앞에 놓인 드넓은 세상도, 상실감을 채워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자신만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극심한 고통으로 눈이 멀어 버린 채, 그녀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품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끝낼 작정으로 나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알베르트.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이러하답니다! 말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병에 걸린 경우가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은 혼란스럽고 모순된 힘들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바보 같은 계집이로군! 조금만 기다릴 것이지,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그럼 절망도 사라질 것이고, 자기를 위로해 줄 다른 남자도 만나게 될 텐데’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자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지요.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자식, 열병에 걸려 죽다니! 조금만 기다릴 것이지, 그럼 원기를 되찾고 기력이 호전되고 피의 순환도 안정될 텐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져서 오늘까지 살아 있을 걸!’ 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베르트는 이런 비유를 들어도 수긍하지 않고 몇 가지 반론을 펴더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말을 했네. 즉 내가 이야기한 것은 한 단순한 처녀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편협하지도 않고 여러 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간의 경우였다면 자살이 어떻게 변명되었을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이것 보십시오.” 나는 소리를 질렀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알팍한 이성은 열정이 끓어올라 인간의 한계를 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나, 그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렇게 말하고 나는 모자를 집어 들었어. 아아, 그때 내 마음은 터질 것 같았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헤어졌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

8월 15일

확실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보다 더 절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나는 로테가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며, 아이들도 언제나 내가 내일 다시 오리라는 것밖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네. 오늘은 로테의 피아노를 조율해 주려고 찾아갔었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라 댔고, 로테도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 주라고 말했기 때문이네. 나는 아이들에게 저녁 빵을 잘라 주기도 했지. 그들은 로테가 잘라 줄 때처럼 이제 나한테도 잘 받아먹는 다네. 그러고는 여러 손들의 시중을 받는 공주 이야기<sup>44</sup>를 대충 해 주었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네.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를 알고 놀랐지. 두 번째로 이야기를 되풀이해 줄 때 간간이 어떤 대목을 잊어버려 그걸 내 마음대로 꾸며 대면, 아이들은 당장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이네.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가 조금도 틀리지 않게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노래하듯이 암송하는 연습을 하고 있지. 여기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작가가 제2의 개정판을 내면서 이야기를 변화시키면, 그것이 문학적으로 훨씬 더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작품 자체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네. 첫인상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데, 우리 인간이란 첫인상을 가장 신기하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네. 게다가 곧장 이런 인상에 단단히 집착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깎아 내거나 말살시키려 하는 자는 실패하고 말 거야!

44 무방비 상태로 잠금된 공주에 대한 동화. 감옥의 천장에서 여러 손들이 자라 나와 공주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여러 가지 시중을 들어준다.

8월 18일

만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단 말인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던 바로 그것이 다시 금 불행의 원천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살아 있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하고도 따스한 감정은 나를 환희로 가득 흘러넘치게 하고, 내 주위의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나를 견딜 수 없게 괴롭히며, 어디를 가나 나를 따라다니며 고통을 주는 유령으로 변해 버렸다네. 예전에는 바위에 앉아서 강 건너 저편 언덕까지 이르는 기름진 계곡을 둘러보며, 주위의 만물이 싹트고 융솟음치는 것을 바라보았지.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은 기슭에서부터 높은 봉우리까지 높이 솟은 나무들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굽이치는 저 골짜기들은 정다운 숲으로 그늘져 있었지. 잔잔한 강물은 속삭이는 갈대밭 사이로 흘러가고, 부드러운 저녁바람에 나부끼며 하늘 높이 동실 떠가는 아름다운 구름을 물그림자로 비춰 주었지. 주위를 에워싼 숲에서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수백만 마리의 모기떼는 불게 타오르는 마지막 저녁 햇살 속에서 힘차게 춤을 추었으며, 딱정벌레들은 마지막으로 경련하는 햇빛을 받고 왕잉거리며 풀 속에서 기어 나왔지. 봉봉거리며 부산하게 움직이는 주위의 소리에 이끌려 땅바닥으로 눈을 돌리면 내가 앉아 있는 딱딱한 바위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이끼나, 메마른 모래언덕 아래에서 자라난 덩굴들이 자연 속에서 불태우고 있는 성스러운 생명 활동을 볼 수 있었네. 그럴 때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끌어안았으며, 흘러넘치는 충만감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성화(聖化)된 느낌을 받았던지. 그리고 무한한 세계의 장엄한 모습들은 내 영혼 속에서 만물을 소생시키며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지. 웅장한 산들은 나를 에워싸고, 깊은 심연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었으며, 소나기로 흘러넘치는 시냇물은 저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발밑에는 강물이 흘러내리며 온 숲과 산맥에 그 소리 낭랑하게 울려 퍼졌지. 그리고 나는 대지의 깊은 내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얹혀 작용하며 창조하는 무진장한 힘을 보았네. 그래서 땅 위와 하늘 아래에는 온갖 종류의 피조물들이 다양하게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 우주 만물이 수만 가지 모습으로 수없이 무리지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조그마한 집 안에

모여 겨우 안전하게 기틀을 틀고 살면서도 이 드넓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네! 바보 같은 인간들이여! 네가 그렇게 왜소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니라. —영원한 창조주의 정신은 오를 수 없는 산맥에서부터 발길이 닿지 않은 황야를 지나 미지의 대양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감돌고, 창조주의 그 정신을 느끼며 살아가는 온갖 티끌 같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네. —아아, 그때 나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두루미의 날개를 빌려 끝없는 바다 저편 기슭으로 날아가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영원한 분<sup>45</sup>의 거품이 이는 술잔으로 저 부풀어 오르는 삶의 환희를 얼마나 마시고 싶어 했으며, 단 한순간이라도 내 가슴의 제한된 힘 속에서나마 저 모든 것을 자신 속에 받아들여 자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의 지고한 행복을 한 방울이라도 느껴 보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친구여, 그런 시간들을 회상할 때만 난 행복을 느낀다네. 그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을 불러일으켜 다시 이야기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내 영혼이 한층 고양되기도 하지만, 다음에는 지금 나를 에워싼 불안스런 상태가 갑절로 느껴지기도 한다네.

내 영혼 앞에 드리운 장막 같은 것이 걷혀 버리고, 무한한 삶의 무대가 내 앞에서 영원히 입을 벌리고 있는 무덤의 심연으로 변해 가고 있네. 모든 것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네는 ‘다 그런 거야!’ 하고 말할 수 있겠나? 모든 것은 번개처럼 빨리 흘러가 버리며, 존재의 완전한 힘이 지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아아! 그렇게 모두가 거센 강물에 밀려가고, 그 속에 가라앉다가 암벽에 부딪쳐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걸까? 언제라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좀먹지 않는 순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언제고 파괴자가 아니라거나 파괴자가 되지 않는 순간이란 없다네. 아무런 악의가 없는 산책이라도 수많은 가련한 벌레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발자국 하나가 애써 지은 개미집을 파괴하고 그 작은 세계를 짓밟아 처참한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네. 아아!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세상에 가끔 일어나는 큰 재난, 마을을 씻어 버리는 홍수, 도시를 삼켜 버리는 지진과 같은 것이 아닐세. 내 마음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대자연의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잠식력(蠶食力)이라네. 자기 이웃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힘

45 창조주, 즉 하느님을 가리킨다.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현기증이 난다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내 주위에서 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여, 거기엔 영원히 집어삼키고 영원히 되새김질하는 괴물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8월 21일

괴로운 꿈으로 잠을 설치다 깨어나는 아침이면, 나는 그녀를 향해 팔을 내뻗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지. 초원에서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수없이 키스를 퍼붓는 행복하고도 천진스러운 꿈에 현혹되어 밤마다 잠자리에서 애타게 그녀를 찾아보지만 역시 헛된 일이네. 아아, 반쯤 잠에 취한 채 더듬거리며 그녀를 찾다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짓눌린 마음속에서 억수 같은 눈물이 쏟아진다네. 그럼 나는 암울한 미래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네.

8월 22일

빌헬름, 정말 불행한 일이네! 내 활동력은 불안한 게으름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네. 난 아무런 상상력도 자연에 대한 감정도 없으며, 책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네. 우리는 자신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법이지. 자네에게만 말하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만이라도 그날에 대한 기대, 하나의 욕망, 하나의 희망을 가져 볼 수 있도록 벌써 여러 번이나 차라리 날품팔이가 되었으면 하고 바랐었지. 종종 나는 서류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알베르트를 부러워하고, 내가 그 사람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지를 상상해 본다네! 벌써 서너 번 자네에게 그리고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공사관에 취직자리를 부탁하려고 생각했었지. 자네도 그런 자리라면 확실히 거절당하지는 않을 거라 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장관은 예전부터 나를 좋아했고, 내게 무슨 일이라도 해 보라고 오랫동안 권해 왔지.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잠시 생각했어. 그 다음에 다시 그 생각을 하다가 말에

대한 우화가 떠올랐네. 갑자기 자유로운 시간을 건널 수 없어서 안장과 마구(馬具)를 얹어 달래 가지고 한없이 달리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말 이야기 말이야. —지금 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데, 친구여!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내 마음속의 갈망은 어디를 가나 날 따라다닐 내면의 불쾌한 초조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8월 28일

사실 말인데, 내 병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고쳐 줄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일 거야. 오늘이 내 생일이라 아침 일찍 알베르트로부터 조그만 소포를 하나 받았네. 소포를 뜯자마자 연분홍 리본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로테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달고 있던 것으로, 그 후 몇 번이나 내게 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지. 또 베트슈타인 출판사에서 나온 12절판의 조그만 호메로스 책 두 권도 들어 있었네. 이권 산책할 때 에르네스티 판<sup>46</sup>은 무거워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내가 간절히 갖고 싶어 했던 책이네. 보게, 이렇게 그들은 내 소망을 들어주고, 온갖 사소한 일일까지 우정 어린 호의를 베풀어 준다네. 이런 선물이야말로 보내는 사람의 허영심으로 우리 마음을 굴욕스럽게 하는 현란한 선물보다 수천 배나 값진 것이지. 난 이 리본에 수천 번도 더 키스를 했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다시 못 올 며칠 동안 행복으로 가득 찼던 추억을 들이 마시고 있다네. 빌헬름이여, 이게 내 현실이라네. 인생의 꽃이 그저 일시적 환영일 따름이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네! 얼마나 많은 꽃들이 아무런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단 말인가! 얼마나 적은 수의 꽃들만이 열매를 맺으며, 또 열매를 맺은 꽃들 중 얼마나 적은 것들만이 무르익는단 말인가! 하지만 무르익은 열매도 얼마든지 있다네. 그런데—오오, 사랑하는 친구여! —이 무르익은 열매들을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며, 맛도 보지 않은 채 씹어 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잘 있게! 화려한 여름일세. 나는 종종 로테네 정원에 가서 과일 따는 장대를 가지고 과일 나무에 올라가 꼭대기에 달린 배를 따곤 한다네. 그럼 그녀는 밑에 서서

46 독일의 고전학자 에르네스티(Johann Heinrich Ernesti)가 간행한 8절판으로 된 커다란 호메로스 책.

내가 따 주는 배를 받는다네.

8월 30일

불행한 자여! 넌 정말 어리석은 바보가 아닌가? 너 자신을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이 미쳐 날뛰는 끝없는 열정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난 지금 그녀를 위한 기도 외에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다네. 내 상상력 속에는 그녀의 모습 이외엔 다른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난 오로지 그녀와 연관시켜서만 생각한다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녀와 다시 헤어져야 하는 때까지 만이라도 말이야! 아아, 빌헬름! 어찌하여 내 마음은 이렇게 자주 날 몰아붙이는 걸까!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그녀 곁에 앉아서 그녀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고상한 말을 보고 듣고 즐겨워하다 보면 점차로 내 모든 감각이 잔뜩 긴장하게 되고, 눈앞이 흐릿해져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살인자의 손아귀에 잡힌 것처럼 목구멍이 죄어들게 되는데, 그럴 때면 가슴이 거칠게 고동치며 짓눌린 마음의 숨통을 터 주려 하지만, 마음의 혼란은 더욱 커지기만 한다네. —빌헬름이여, 이럴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지도조차 알 수가 없네! 그리고—때때로 이런 비애에 압도되어 로테의 손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한 마음을 풀어 버릴 수 있는 슬픈 위안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면, —난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네. 그러고는 멀리 허허벌판을 헤매며 돌아다니지.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고, 길도 없는 숲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울타리에 걸려 상처를 입고 가시에 찔려 살이 찢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땐 희열을 느낀다네! 그러면 기분이 약간 좋아지지! 아주 약간 말이야! 그러다가 지치고 목이 말라 몇 번이고 도중에 쓰러져 있기도 한다네. 어떤 때는 깊은 밤이 되어 높이 솟은 보름달이 머리 위를 비추는데, 상처 난 발바닥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보려고 휘어진 나무 위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그럴 땐 지친 휴식을 취하다가 희미한 달빛 속에 잠어들기도 한다네! 오, 빌헬름이여! 감방과도 같은 고독한 오막살이집과 거친 털로 짠 옷에 가시 박힌 허리띠가 차라리 위안이 되겠네. 내 영혼은 애타게 그런 것을 그리

워하고 있네. 잘 있게! 무덤에 이르지 않는 한 이 불행을 끝내지 못할 것 같네.

9월 3일

나는 떠나야만 하겠네! 빌헬름, 흔들리는 내 결심을 굳혀 주어 고맙네. 벌써 두 주 일 전부터 그녀를 떠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난 떠나야만 해. 그녀는 다시 시내에 사는 친구 집에 가 있네. 그리고 알베르트는—그런데—난 떠나야만 하겠네!

9월 10일

괴로운 밤이었네! 빌헬름! 이제 난 모든 것을 이겨 낼 거야.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오오, 사랑하는 친구여, 지금 자네의 목을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회에 젖어 마음에 솟구치는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게 슬프다네! 나 여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네. 동이 트는 대로 마차를 오라고 부탁해 놓았네.

아아, 그녀는 편안히 잠들어 다시는 날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하겠지. 두 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결심을 밝히지 않으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정도로 단단히 마음먹었었네. 맙소사, 그런데 그 대화란 대체 어떠했던지! 알베르트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곧 로테와 함께 정원으로 나온다고 약속했네. 나는 커다란 밤나무 아래 있는 테라스에 서서, 정다운 골짜기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 저편으로 넘어가는 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지. 전에도 종종 그녀와 함께 여기 서서 저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곤 했었지. 한테 지금은, 나는 평소에 좋아하던 가로수 길을 이리저리 거닐어 보았네. 로테를 알기 이전에 벌써 웬지 모를 은근한 정감에 끌려 자주 이곳에 머물곤 했었지.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두 사람 다 이 장소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네. 이곳은 내가 본 예술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낭만적인 곳이라네. 우선 밤나무 사이로 뻗어 있는 드넓은 전망을 생각해 보게. —아, 생각이 나는군.



벌써 여러 번 자네에게 이곳 경치에 대해 써 보냈지. 큰 떡갈나무들이 장벽을 두른 듯 에워싸고, 거기에 연결된 잣목 숲이 가로수 길을 더욱 음침하게 만들며, 마지막에는 사방이 막힌 이 장소에서 끝나는데, 여기엔 몹서리칠 정도의 적막함이 감돌고 있네. 내가 대낮에 처음 이곳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땐, 얼마나 신비스런 느낌이 들었던지 지금도 그런 기분이 드는군. 어렴풋이나마 나는 이곳이 내 지고한 행복과 끝없는 고통의 무대가 되리란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

내가 삼십 분 정도 이별과 다시 만남에 대한 애절하고도 달콤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이 테라스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네. 난 그들에게로 달려가, 몸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를 했어. 우리가 위로 올라오자 숲이 우거진 언덕 위에 달이 떠오르더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어두컴컴한 정자 가까스로 다가갔지. 로테가 정자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알베르트가 그 옆에 앉기에 나도 그렇게 했네. 그러나 난 마음이 불안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앉았네.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지. 로테는 떡갈나무 숲 끝에 걸린 채 테라스를 밝게 비춰 주는 아름다운 달빛을 좀 보라고 했어. 우리 주위에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기에 그 광경은 더욱 감동적이었지. 우리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로테가 말을 시작했네. “달빛을 받으며 산책할 때면, 전 고인이 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그녀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네. “그런데 베르테르 씨, 우리가 저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다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로테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건 저세상에서건 꼭 다시 만날 겁니다!”—난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네. —빌헬름이여, 이다지도 쓰라린 이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때, 그녀가 하필 그런 걸 물어보다니!

“그리고 세상을 떠난 정다운 고인들도 우리를 알아볼까요?” 그녀가 말을 계속했네. “우리가 파스한 사랑으로 고인들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도 느끼실까요? 아! 고요한 저녁에 이젠 제 자식들이나 다름없는 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 그리고 저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저를 에워쌀 때면, 어머니 모습이 언제나 제 주위를 맴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전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순간만이라도 우릴 굽어보시기를 빌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제가 저 아이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요. 그러고는 감정에 복받쳐 전 이렇게 외친답니다. ‘어머니, 만일 제가 당신처럼 이들을 돌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세요. 아! 그렇지만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아아, 무엇보다도 정성껏 보살피며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실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어머니, 그럼 당신이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들의 행복을 간구하시던 하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 거예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네! 오오, 빌헬름, 그녀가 한 말을 누가 되풀이할 수 있겠나! 차갑게 죽어 버린 글자들이 어찌 천국의 꽃 같은 그녀의 정신을 묘사할 수 있겠나! 알베르트가 슬며시 말참견을 했지.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로테! 당신이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만 부탁이니…….”—“오오, 알베르트.” 그녀가 말했네. “당신도 그날 밤을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빠는 여행을 떠나셨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우린 조그마한 원탁에 함께 앉아 있었지요. 당신은 때로 재미있는 책을 들고 있었지만, 읽는 일은 드물었어요.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지 않았나요? 어머니 정말 아름답고 상냥하며, 명랑하고 항상 활동적인 분이셨죠! 하느님께서 제 눈물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잠자리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며 저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사 하고 빌곤 했어요.”

“로테 씨!” 나는 외치면서 그녀 앞에 몸을 던져 손을 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네. “로테여! 하느님의 은총과 어머니의 영혼이 당신을 굽어살피고 계십니다!”—“당신도 어머니를 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네. —“당신이 알고 지내셔도 아주 좋을 분이셨어요!”—나는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네. 나에게 대한 이처럼 위대하고 자부심 넘치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지. —그녀가

말을 계속했어. “어머니께선 한창 꽃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막내 아이가 채 여섯 달도 되지 않아서예요! 병환도 오래 계속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모든 것을 내맡긴 듯했는데, 다만 아이들 특히 막내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임종이 다가왔을 때, 어머니께선 ‘아이들을 데려오라!’ 하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어쩔 줄 모르는 큰아이들이 침대에 빙 둘러서 있는데, 어머니께선 두 손을 들어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차례로 키스를 하시고는 아이들을 내보내시더니, 제게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다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구요! —‘사랑하는 내 딸아, 참으로 어려운 약속을 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눈을 가져야 한다. 네가 종종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동생들을 그렇게 보살펴 주고, 아버지는 아내의 성실과 순종으로 모시도록 해라. 아버지를 잘 위로해 드려야 한다.’—그리고는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한테 아버지께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밖에 나가 계셨어요. 그분께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알베르트, 그때 당신은 함께 방에 있었죠. 어머니께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물으시더니 당신을 가까이 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행복하게 잘살 것이라는 위안에 찬 고요한 눈길로 당신과 날 번갈아 바라보셨지요…….”—알베르트는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그녀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외쳤어. “그렇고 말고! 우린 행복할 거야!”—그 침착하던 알베르트도 완전히 자제심을 잃고 말았지. 그리고 나 자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네.

“베르테르 씨.” 그녀가 다시 말을 시작했네. “그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다니요! 하느님 맙소사! 일생 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아이들만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엄마를 데려갔다고 아직도 여전히 한탄하고 있거든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 나는 펄떡 정신이 들었지만, 너무 감동에 젖어 그냥 자리에 앉은 채 그녀의 손을 잡았네. —“이제 그만 가실까요.” 로테가 말했네. “갈 시간이 되었어요.”—그녀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나는 더 꼭 잡았어.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외쳤지.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서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전 떠납니다.” 나는 말을 계속했네. “기꺼이 떠납시다만, 영원히라고 말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안녕, 로테여! 안녕히, 알베르트여!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내일이면 다시 만나겠지요.” 그녀가 농담이라도 하는 듯 대답하더군. —난 그 내일이 어찌할지를 느끼고 있었지! 그러나 아아, 그녀는 내게서 자기 손을 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두 사람은 가로수 길을 따라 걸어갔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달빛 속에 멀어져 가는 그들 뒷모습을 바라보다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한참을 울었네. 그러고는 다시 벌떡 일어나 테라스 위로 뛰어 올라갔네. 저 아래 커다란 보리수나무 그늘 속에 정원 문 쪽으로 걸어가는 로테의 하얀 옷이 가물거리고 있었지. 두 팔을 내뻗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네.

## 제 2 부



베르테르의 초상화, 그리고 작품 중의 한 장면.

1771년 10월 20일

우리는 어제 이곳에 도착했네. 공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며칠 동안 집에 있을 모양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까다롭지만 았다면, 모든 일은 잘 되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운명이 내게 가혹한 시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네. 하지만 용기를 낼 거야! 기분이 가벼워지면 모든 것을 이겨 낼 수 있겠지! 가벼운 기분이 라고? 어떻게 내가 나의 펜으로 이런 말을 쓰게 되었는지 참으로 웃기는 일이야. 오오,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가벼웠더라면 태양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과 재능에 느긋하게 자기 만족을 느끼며 내 앞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는 내 능력과 재능에 절망을 느껴야 한단 말인가? 제게 모든 것을 내려 주신 하느님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그 절반 정도를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자신감과 자족감으로 채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친구여, 내 고백하건대, 자네 말이 맞네. 내가 매일 사람들 틈에 끼여 돌아다니며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나 자신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네. 틀림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 자신을 모든 것과 비교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란 우리가 관계하는 대상에 달려 있다네. 따라서 고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우리의 상상력은 상상력 그 자체를 높이려는 천성이 있는데, 여기에 시문학(詩文學)의 환상적 이미지까지 작용하여 일련의 인간 존재들을 상상해 내게 마련이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미친한 사람이며, 우리 이외의 모든 것은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더 완전한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지.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해 어떤 이상적인 안락까지 누리고 있다고 여긴다네. 이렇게 하여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 창조물이지.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온갖 약점을 지니고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똑바로 노력

해 나간다면, 좀 꾸물거리고 진로를 바꾸며 나아가는 일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순풍에 돛을 달고 노를 저어 가는 것보다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지. —그런데—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가거나, 심지어는 앞서  
달려갈 때에 느끼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감정이라네.

1771년 11월 26일

이만하면 이제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견딜 만하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할 일이 많  
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갖가지 유형의 인간들과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이 내  
영혼 앞에 오색찬란한 광경을 보여 주고 있다네. 나는 C 백작도 알게 되었는데, 그  
분은 날이 갈수록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네. 박학다식하면서도 그렇  
다고 차가운 분도 아닌데, 많은 것들을 널리 보고 있기 때문이지. 그 백작과 사귀  
면서 우정과 사랑에 대한 감정이 충만하게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네. 내가 백  
작이 부탁한 일을 다 해 주었을 때, 그는 나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관심을 갖게 되었지. 나에 대한 그분의 솔직한 태도는 아무  
리 찬양한다 해도 충분치 못하다네.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태도를 보이는 위대한  
영혼을 대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고 따뜻한 기쁨이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1771년 12월 24일

공사가 내게 몹시 불쾌한 일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네. 그는 세  
상에 흔치 않은 바보 천치같이 아주 정확한 인간이라네. 시누이처럼 하나하나에  
까다롭게 굴지. 그는 결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누  
가 무엇을 해 주어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지. 나는 일을 쉽게 해치우는 것을  
좋아하고, 이미 처리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네. 그런데 그는 내게 문서를 되돌  
려 주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네. “그대로 좋기는 하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오.



좀 더 적당한 단어가 있고 좀 더 분명한 접속사 같은 게 있을 것ियो.”—그럴 때면 나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네. ‘그리고’라는 말이나 아무리 하찮은 접속사라도 빼놓을 수가 없지. 그는 내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도치(倒置)된 문장을 죽도록 싫어한다네. 문장구조를 이제까지 써 오던 어조에 따라 써내려 가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네. 그런 사람과 일을 해야만 하다니 정말 괴로운 일이야.

C 백작의 신임만큼은 그래도 유일하게 내 마음을 보상해 준다네. 얼마 전에 그는 아주 솔직하게 공사의 느려 빠지고 머뭇거리는 태도가 불만스럽다고 하더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곤란하게 한다오. 그러나” 하고 그가 말하더군. “우리는 산을 넘어가야 하는 여행자처럼 참고 견디어 내야 하오. 물론 산이 없다면 길은 훨씬 평탄하고 더 가깝겠지. 그러나 산이 있으니, 그 산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오.”—

그런데 늙은 공사는 자기 앞에서 백작이 나의 장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 일에 대해 몹시 화를 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백작을 비난한다네. 당연히 나는 반박하지만, 그 때문에 일은 더욱 악화될 따름이지. 어제는 날 몹시 흥분시켰는데, 그가 나까지 싸잡아 비난했기 때문이라네. 백작은 세상일을 처리하는 데 아주 능란하고, 무슨 일이나 쉽게 처리하며 글재주도 좋지만, 문필가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에겐 근본적인 학식이 부족하다고 하더군. 그때 공사는 “이 따끔한 말뜻을 알아듣겠나?” 하고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 그러나 그런 것은 내게 아무런 효과도 없었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인간을 경멸하기 때문이지. 나는 그의 말에 반대하며 상당히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네. 백작은 그의 성격은 물론 그의 학식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내가 말했지. “저는 아직” 하고 나는 말했네. “자기 정신을 확장시켜 수많은 사물에 미치게 하면서도, 이러한 활동력을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데 성공한 사람을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그런 머리로선 이런 말도 이해하지 못하더군. 그 이상 이해도 하지 못하는 말을 했다가는 더욱 기분이 나빠질 것 같기에,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네. 일이 이쯤 된 것은 자네들 모두의 책임이네. 자네들은 내게 명예를 씌우려 했고,

그렇게도 일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예찬했었지. 활발하게 일한다는 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감자를 심고 시대로 곡식을 팔러 나가는 자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내가 얹매여 있는 이 노예선에서 십 년이라도 더 일을 해 나가겠네.

이 부근에 얼굴을 나타내는 자들은 외모만 번지르르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구역질나는 족속들이야! 그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명성을 차지하려고 서로 감시하고 경계할 따름이지. 아주 비참하고도 가없는 열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지.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귀족 가문이나 고향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여인이 있다고 하세. 그럼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녀는 대단치도 않은 문벌과 고향에 대한 평판을 굉장한 것이라고 상상하는 바보스런 여인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더욱 한심스런 일은 바로 그 여인이 이곳 이웃에 사는 관청 서기의 딸이라는 점이네. —생각해 보게. 나는 그렇게도 지각없이 자기 자신을 마구 드러내 놓는 그런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네.

사실 내가 매일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일인데, 친구여,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 관계된 일도 많고, 이 마음이 이다지도 격하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아아,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려는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나도 기꺼이 그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거야.

내 마음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운명적 계급 관계라네. 나도 신분 높은 사람으로서 계급 차이가 얼마나 필요하며, 내게도 얼마나 많은 장점을 부여해 주는지 잘 알고 있지만 말이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약간의 기쁨을 맛보고 희미하게 빛나는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길을 계급 차이란 것이 가로막지는 말았으면 좋겠네.<sup>1</sup> 얼마 전에 산책을 하다가 귀족계급의 B 양을 사귀게 되었는데,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천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랑스런 아가씨였지. 대

1 베르테르가 말하고 있는 1770년대 독일의 계급 차별은 프랑스보다 더 심했다. 스파엘 부인은 이 시대의 유럽의 계급 관계에 대해 주목한 글에서 독일에서의 계급 차별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심했다고 지적했다. 베르테르가 귀족계급을 대하는 입장은 단순히 않은데, 귀족계급의 어떤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그들의 경직된 계급적 편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헤어질 때 나는 그녀의 집을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부탁했지. 그녀가 아주 쾌히 승낙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찾아갈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네. 그녀는 이곳 출신이 아니며, 어느 아주머니 집에 살고 있었지. 아주머니라는 노인의 인상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네. 그렇지만 나는 그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대부분 그녀를 상대로 대화를 나누었지. 채 삼십 분도 지나지 않아 나는 B 양이 후에 이야기한 정황들을 대충 파악하게 되었네. 즉 그 아주머니는 그만한 나이에도 모든 것이 부족하며, 준비한 조상들 이외엔 이렇다 할 만한 재산이나 자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며, 자신을 지켜 주는 문벌 이외엔 보호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 이층에서 시민계급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 이외엔 아무런 낙도 없다는 것이었네. 한창 나이 땀 그래도 미모가 좀 있어서 요술을 부리듯 인생을 살아가며 제멋대로 젊은 남성들을 괴롭히기도 했는데, 중년이 되어서는 머리를 숙이고 어느 늙은 장교 밑으로 들어가 지냈다고 하네. 그런데 그 장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생활비를 대 주며 그녀와 함께 말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군. 지금은 아주 다 늙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만일 그 노인의 조카가 그렇게 돌봐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네.

1772년 1월 8일

온 정신이 허레허식에만 쏠려 있고, 온 세월 동안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더 높여 상석에 앉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니, 대체 무슨 인간들이 그럴까! 그런 것 이외에 다른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라네. 그래, 오히려 사소하고 불쾌한 일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내팽겨진 채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지. 지난주에도 썰매를 타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즐거운 기분을 온통 망쳐 놓고 말았다네.

사실 지위란 것이 조금도 중요치 않고,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가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야!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자기 장관들의 지배를 받으며,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자기 비서관들의 지배를 받  
는단 말인가! 그럼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두루 보살피 주고,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들이 힘과 정열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량과 수완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네.

1월 20일

사랑하는 로테, 난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흑심한 눈보  
라를 피하려고 들어온 초라한 농가의 조그만 방입니다. 우울한 D 마을에서 낯선  
사람들, 내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 틈에 끼여 살아갈 때에는 당신에게 편지를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두막집, 이 쓸쓸하고 비좁은 방에서,  
조그만 창에 눈보라와 우박이 부서지는 이곳에서 당신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설 때 당신의 모습, 당신에 대한 생각이, 오오, 로테여, 그렇게도  
성스럽고 그렇게도 파스하게, 아, 하느님, 당신을 처음 본 그 행복했던 순간이 다  
시 떠올랐습니다.

그리운 그대여, 마음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나를 당신이 보신다면! 내 감각은  
마를 대로 다 말라 버렸습니다! 마음이 단 한순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즐거울 때  
라곤 한 시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마치 요지경 앞  
에서, 작은 사람들이나 작은 말들이 내 앞에서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  
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나도 함께 유희를 하고  
있지요. 아니, 그보다는 꼭두각시처럼 놀이의 대상이 되어 때때로 이웃 꼭두각시  
의 나무손을 붙잡았다가 깜짝 놀라 움츠리곤 한답니다. 저녁에는 다음 날 해돋이  
를 구경하기로 마음먹지만,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지요. 낮에는 저녁 달빛을 즐겨  
보겠노라고 마음먹지만, 그대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리에  
서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에 활력을 주는 효소(酵素)가 빠져 버렸습니다. 깊은 밤에 나를 명랑하게  
깨어 있도록 해 주고, 아침에는 번쩍 잠을 깨워 줄 자극제도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만난 유일한 여성은 귀족계급의 B 양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누군가를 당신과 비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머니, 듣기 좋게 사람을 놀리시네요!” 하고 당신은 말하겠지요. 그러나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무척 은근해졌습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익살도 제법 부리는데, 여인네들은 찬사의 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거짓말을 잘한다고 덧붙이겠지요. 그러지 않고는 사람을 제대로 사귀지 못하기 때문이란 걸 당신도 이해하겠지요?) 사실 B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영혼은 푸른 두 눈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소망을 하나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자기의 사회적 계급을 고통스러운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혼잡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시골 풍경 속에 앉아 순수한 행복에 대해 꿈꾸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아, 당신에 관한 상상도 한답니다! 그녀가 얼마나 당신을 칭송하던지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듣고 싶어 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

아아, 그 아담하고 그리운 작은 방 안에서 당신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춤을 추듯 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너무 시끄럽게 하면, 나는 아이들을 모아 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용히 내 주위에 앉혀 놓을 텐데요.

태양은 흰 눈이 반짝이는 대지 위로 장엄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눈보라도 지나갔는데, 나는—다시 내 새장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알베르트 씨가 당신 곁에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맙소사, 이런 질문을 하다니, 죄송합니다!

2월 8일

일주일 전부터 몹시 사나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기분이 좋다네. 내가 이곳에 온 이후 날씨가 맑기만 하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내 기분을 망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지. 세차게 비가 내리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녹아 질퍽거리면, 아하,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거야. 아니, 그 반대로 그게 더 좋을 거야 하고 나는 생각한다네. 아침에 태양이 높이 솟아오르며 화창한 하루를 약속해 주면, 나는 이렇게 외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 즉 오늘도 다시 하늘의 선물을 받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서로 망쳐 버릴까! 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서로 망쳐 버리지 않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네. 건강, 고매한 명성, 기쁨, 위안 등 모든 것을 망쳐 버리지! 대개는 우매하고 이해심이 없고 마음이 좁은 데서 비롯된 것인데, 그들의 말을 들어 보면 아주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네. 때때로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그렇게 날뛰면서 자기 속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지 말라고 간청하고 싶네.

2월 17일

공사와 나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간이야. 그가 일하는 방식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나는 그에게 반박하며 때때로 내 생각과 내 방식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네. 그것은 물론 공사의 마음에 들 리가 없지. 공사는 최근에 궁정에 가서 그런 일을 가지고 나를 비난했고, 장관은 아주 온건한 말로 날 질책했지. 그러나 그것은 정계였던 셈이지.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려 생각했는데, 그때 나는 장관에게서 사적인 편지<sup>2</sup>를 한 장 받았네. 나는 그 편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장관의 고귀하고도 현명한 뜻을 우러러보았다네. 그분은 너무나도 예민한 내 감수성을 훈계하고,

2 이 훌륭한 분에 대한 존경심에서, 여기에서 말한 이 편지와 훨씬 뒤에 언급할 다른 한 통의 편지를 이 서간집에는 넣지 않았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아무리 따뜻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런 대답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원주.

효율성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나 철저한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나의 과격한 생각들을 젊은 시절의 고귀한 용기라 칭찬하며, 그런 용기를 죽이지 말고 약간 완화시켜서, 능력의 진가를 발휘하게 하여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라고 했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나도 기운을 차렸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게 되었네. 영혼의 안정이란 소중한 것이며, 그 자체가 기쁨이라네. 사랑하는 친구여, 보석이 아름답고 값진 만큼 그 또한 쉽게 깨지지도 않는다 면 얼마나 좋겠는가.

2월 20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느님이 내게서 빼앗아 가신 행복한 나날들을 모두 그대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알베르트 씨, 당신이 나를 속인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들의 결혼식이 언제인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주 엄숙하게 로테의 실루엣 초상화를 벽에서 떼어 내어, 다른 서류들 속에 묻어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부부가 되었는데, 초상화는 아직도 여기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걸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나 또한 당신들 곁에 있는 기분이며,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로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난 로테의 마음속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으며, 차지하고 싶고 또 차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아, 만일 그녀가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나는 미쳐 버릴 것입니다. —알베르트 씨, 이런 생각 속에는 지옥이 깃들어 있습니다. 알베르트 씨,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늘의 천사 로테여, 잘 살아요! 잘 살아요!

3월 15일

몹시 불쾌한 일이 있어서 난 이곳을 떠날 거야. 이가 다 갈린다네! 젠장할! 이런 기분은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네. 마음에도 들지 않는 이런 자리에 취직을 하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괴롭혔던 자네들에게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네. 지금 내가 그러하니 자네들도 그런 기분일 테지! 한테 내 지나친 생각이 모든 걸 망쳐 버린다고 자네가 또 말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친구여, 연대기 편자가 기록하듯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겠네.

귀족 출신의 C 백작이 나를 아끼고 각별하게 대해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자네에게도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네. 바로 어제 나는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지. 바로 그날 저녁에 신사 숙녀들로 구성된 고상한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더욱이 우리 같은 하급 관리가 그 모임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네. 아무튼 좋네. 나는 그의 집에서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커다란 홀을 왔다 갔다 하며 백작과 또 거기에 참석한 B 대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러는 동안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었다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지 못했네. 그때 지나치게 점잔을 빼는 S 부인이 남편과 잘 부화된 거위 새끼 같은 딸, 밋밋한 가슴에 예쁘장한 코르셋을 한 딸과 함께 들어와서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오만한 눈초리에 콧날을 높이 세운 채 옆으로 지나갔네. 나는 그런 인간들이 정말로 마음에 거슬려서 그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백작이 쓸데 없는 잡담을 어서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B 양이 들어왔네. 그 여자를 만나면 언제나 마음이 약간 들떠 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녀의 의자 뒤에 가서 섰지. 시간이 얼마 지나서야 나는 그녀가 여느 때와는 달리 별로 솔직하지도 못하고, 나와 이야기할 때 약간 당황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네. 그런 태도가 뚜렷이 눈에 띄었네. 이 여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나 하고 생각하며, 기분이 상해서 떠나려 했지.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기꺼이 이해하고 또 그런 걸 믿지 않으며, 그녀에게서 어떤 정다운 말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네. —자네도 그걸 원했을 것이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지. F 남작은 프란츠 1세의 대관식 때 입었던 복장을 하고 나왔고, 여기서는 귀



죽임을 나타내는 폰 R 씨로 통하는 R 궁중고문관은 귀머거리 부인을 데리고 왔으며, 고대 프랑켄식 의상이 해진 곳을 새로 유행하는 형식으로 기워 입고 나온 J도 잇을 수가 없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 나는 몇몇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그들 모두가 별로 말이 없었네. 나는 생각에 잠겼고, 그러고는 B 양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네. 그래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홀 한쪽 구석에서 여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남자들에게로 옮겨갔고, 마침내는 S 부인이 백작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야. (후에 B 양이 모든 이야기를 내게 해 주었네) 그러고는 드디어 백작이 내게로 다가와서는 나를 창가로 데리고 갔지. —“우리의 이상한 사회적 관계를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하고 그가 말을 꺼냈네. “여기 온 손님들은 자네가 여기 있는 게 내키지 않는 모양이야. 모든 걸 말하고 싶진 않지만…….” —“백작님” 하고 내가 말을 가로막으며 대답했네. “정말로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만 했는데, 이런 실례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부터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좋지 못한 생각 때문에 그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 말하고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네. —백작은 힘주어 내 손을 잡았는데, 거기엔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 나는 조용히 그 고귀한 모임에서 빠져나와 말 한 마리가 끄는 경쾌한 이륜마차를 타고 M이란 곳으로 달려갔네. 그곳 언덕에 서서 넘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호메로스를 펴들고 오디세우스가 돼지 치는 훌륭한 목자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멋진 노래를 읽었지. 거기까진 모든 것이 괜찮았네.

저녁때가 되어 나는 식사를 하러 돌아왔네. 식당에는 사람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어. 몇몇만이 한쪽 구석에서 식탁보를 뒤집어 놓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네. 그때 정직한 아델린이 들어와 나를 뻔히 바라보며 모자를 벗어 놓더군. 그러고는 내게로 다가오더니 “오늘 불쾌한 일을 당했다면서요?” 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네. —“네가요?” 하고 물었지. —“그 파티에서 백작이 당신을 쫓아냈다면데요.” —“파티 같은 건 악마가 끌어가 버리라지!” 하고 나는 말했네. “바깥 공기가 좋아서 내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니 다행이군요. 내가 불쾌하게 여기는 건 어딜 가나 온통 그 이야기뿐이란 거지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러자 나도

그 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지. 식사를 하러 와서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 모두가 그 때문에 날 쳐다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화가 치밀고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네.

오늘은 어디를 가나 불쾌한 일뿐이고, 나를 질시하는 자들이 개가를 올리며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네. ‘약간 머리가 좋다고 자만하며, 그것을 내세워 모든 관계를 무시해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놈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라’고 말일세. 더구나 개 같은 험담이 들려오니—가슴에 칼을 찔러 죽고 싶은 심정일세. 사람들은 저마다 제멋대로 떠들어 대고 있네. 그러나 그 비열한 인간들이 자기가 좀 유리한 입장에서 있다 하여 마구 떠들어대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를 만나 보고 싶네. 그자들의 험담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면, 아아, 그러면 오히려 쉽게 넘겨 버릴 수 있을 텐데.

3월 16일

모든 일이 나를 괴롭히고 있네. 오늘 가로수 길에서 B 양을 만났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사람들과 약간 떨어지자마자 얼마 전 그녀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해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했네. —“오오, 베르테르 씨” 하고 그녀는 진실된 어조로 말하더군. “당신은 제 마음을 잘 아시면서, 제가 당황해한 모습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홀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전 당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모든 걸 미리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백 번이나 당신에게 귀찮게 주려고 했어요. S 부인이나 T 부인이 당신과 같이 있느니보다는 차라리 남편들과 함께 떠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백작께서도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일이 시끄럽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하고 말하면서 나는 놀란 마음을 감추었네. 그저께 아델린이 내게 했던 이야기가 이 순간 한꺼번에 끓는 물처럼 내 혈관을 타고 흘러갔네. —“저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하고 그 귀여운 여인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네. —나는 자신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외쳤네. —그녀의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네.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지.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저 닦아 내기만 했네. —“저의 아주머니를 알고 계시지요” 하고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 “아주머니 께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오, 당신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어떠했는지 아세요. 베르테르 씨, 어제저녁에는 그런대로 꼭 참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당신과 교제하는 것을 두고 설교를 들어야만 했어요. 당신을 깎아내리며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을 절반도 변호해 드릴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이 허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비수वाद 같이 내 가슴을 찔렀네. 이 모든 걸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 일인지를 그녀는 느끼지 못했지.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꾀재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말을 덧붙이더군. 사람들은 나의 오만함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듯한 내 태도를 두고 오랫동안 나를 비난해 왔는데, 이제 그 형벌을 받고 얼마나 고소해하고 기뻐하겠느냐는 말도 했네. 빌헬름, 정말 동정 어린 목소리로 그녀에게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니, 나는 산산이 부서진 느낌이니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들끓고 있다네. 감히 나를 대놓고 비난하는 놈이 있다면, 그자에게 칼을 꽂아 줄 수도 있을 텐데. 피를 본다면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네. 아아, 나는 이 답답한 가슴에 숨통을 좀 트이게 하려고 벌써 수백 번이나 칼을 움켜잡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은 귀한 혈통의 말(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열나게 달려 흥분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혈관을 물어뜯어 호흡을 돕는다고 하네. 나도 자주 그런 기분을 느끼지. 내 혈관을 열어젖혀 영원한 자유를 얻고 싶네.

3월 24일

나는 궁정 당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곧 수리되길 바라고 있네. 사직서를 내는 것을 두고 우선 자네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용서해 주기 바라네. 아무튼 떠나야만 하겠네. 나를 이곳에 그냥 머물게 하려고 자네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지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어머니께는 이 소식을 조심스레 전해 주게.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추스르지를 못하니, 어머니를 도와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처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네. 추밀 고문관이 나 공사가 될 수도 있는 당신의 아들이 막 내딛은 화려한 인생행로를 갑자기 중단하고, 하찮은 짐승처럼 마구간으로 뒤돌아가니 말이야!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하게 나. 그리고 내가 처할 수 있고 처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보게. 아무튼 나는 떠나겠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알려 주겠네. 이곳에 영주가 한 사람 와 있는데, 나와 사귀는 데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지. 내 계획을 얘기했더니, 그는 자기 영지(領地)로 가서 아름다운 봄을 즐기며 지내자고 하더군. 그는 전적으로 내 요구대로 해 줄 것을 약속했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 볼 생각이며, 행운을 믿고 그와 함께 떠나겠네.

## 통지(通知)에 의해서

4월 19일

두 번에 걸친 자네의 편지 고맙네.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은 내 사직서가 당국에 수락될 때까지 편지를 부치지 않고 보류해 두었기 때문이네. 어머니께서 장관에게 부탁하여 내 의도를 어렵게 하시지나 않을까 염려해서였지. 그러나 이제는 일이 잘 되어 이곳을 떠나게 되었네. 사람들이 마지못해 사직을 허가했으며, 장관께서 직접 내게 편지까지 보냈다는 이야기는 말하고 싶지 않네. —자네들이 또 한탄할 테니까 말이야. 황태자께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 어린 인사말과 함께 퇴직금으로 25두카텐<sup>1</sup>을 보내왔더군. 그래서 최근에 어머니께 보내 달라고 했던 돈은 필요 없게 되었네.

5월 5일

내일 나는 이곳을 떠난다네. 내가 태어난 고향이 가는 길에서 6마일(약 9.6킬로미터—웁긴이)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찾아가 행복한 꿈에 젖었던 옛 시절을 회상해 보고 싶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어머니께서 날 데리고 성문을 나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 견딜 수 없는 도시로 옮겨 와 갇혀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바로 그 성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고 싶다네. 그럼 안녕, 빌헬름! 내 여행 소식을 다시 전하겠네.

5월 9일

순례자들이 지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고향 순례를 마쳤는데, 나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감회에 사로잡혀 있다네. S 도시 쪽으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커다란 보

1 두카텐(Dukaten) :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사용된 유럽의 금화 이름.

리수나무가 서 있는데, 거기서 마차를 멈추게 했네. 마차에서 내려 마부에게 먼저 시내로 들어가라고 했지. 천천히 거닐면서 갖가지 추억을 새로이 생생하게 맛보고 싶었기 때문이네. 우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보았지. 예전 어렸을 때 나는 이 나무를 산책의 목적지이며 한계선으로 삼았다네. 그런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네! 그 당시에는 다행스럽게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저 멀리 미지(未知)의 세계를 그리워했지.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에서 많은 마음의 양식과 기쁨을 얻고자 했으며, 가슴속의 열망과 그리움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리라 생각했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드넓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이라네. —아아 친구여, 얼마나 많은 희망이 좌절되었고,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던가! —나는 내 앞에 가로놓인 산들을 바라보았는데, 이 산들은 언제나 내 소망의 대상이었지. 그 옛날 난 몇 시간이고 여기에 앉아 저 산 너머 미지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바로 앞에서 다정하게 어스름이 깃들고 있는 숲과 골짜기를 절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다시 돌아가야만 했을 때, 이 정겨운 곳을 떠나기가 얼마나 싫었던지! —나는 시내 쪽으로 걸어가면서 낮익은 정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새로 지은 집들은 마음에 거슬렸네. 그 밖의 여러 가지 변화도 불쾌했다네. 성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곧 옛날의 나 자신을 완전히 되찾았네. 친구여,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네. 내게는 매력적인 일이지만 이야기가 단조로워질 테니까 말아야. 나는 옛날 우리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있는 장터에 숙소를 정하기로 했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 간간하고 나이 많은 여선생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몰아넣곤 했던 교실이 잡화상점으로 변해 버린 것을 알아차렸지. 저 비좁은 구멍 같은 교실에서 겪었던 불안과 눈물, 어리석었던 생각, 두려움들이 떠올랐다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을 끌지 않는 것이 없었네. 성지로 떠난 순례자라 할지라도 경건한 추억이 담긴 장소를 이렇게 많이 가 보지는 못할 것이며, 그의 영혼도 이처럼 성스러운 감동으로 가득 차기는 어려울 것이네. —말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네. 나는 어느 농가에 다다를 때까지 강물을 따라 걸어 내려갔지. 이곳도 예전에 내가 다니던 길이며, 우리 어린이들이 납작한 돌을 던져 수면 위로 멀리까지 보내는 물수제비 놀이를 하던 장소였지. 여러 번 멈춰 서서 강물을

바라보자니 생생하게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네. 즉 경이로운 예감에 사로잡혀 강물의 흐름을 뒤쫓았던 일이야. 그때 나는 이 강물이 흘러갈 고장들이 얼마나 모험으로 가득 찬 세계일까 상상해 보았다네. 내 상상력은 곧 한계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멀리, 더 멀리 달려가야만 했어. 그리하여 마침내는 아득히 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자신의 넋을 완전히 잃어버리곤 했다네. —생각해 보게, 친구여. 훌륭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제한된 세계 속에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들의 감정이나 문학은 얼마나 천진난만했던가! 오디세우스<sup>2</sup>가 가늠할 수 없는 바다와 끝없는 육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진실하고 인간적이며, 진정으로 절실하고 신비스러웠네. 지금 내가 어린 학생을 붙들고 지구가 둥글다고 말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인간이 그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약간의 흙덩이만 있으면 되고, 그 밑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적은 흙으로도 충분할 것이네.

나는 지금 여기 영주의 사냥용 별장에 와 있네. 그 영주와는 아주 잘 지낼 수 있지. 그분은 진실하고 소박한 사람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네. 그들은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정직한 사람들 같지도 않아. 때로는 성실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신뢰할 수가 없다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영주가 종종 그저 자기가 듣고 읽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3자가 설명한 그대로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점이야.

또한 영주는 나의 이성(理性)과 재능을 내 마음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어. 그러나 내 유일한 자랑거리인 이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원천이지. 모든 힘과 모든 행복, 그리고 모든 불행의 원천이란 말이네. 아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러나 이 마음만은 나만의 것이라네.

2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이름.

5월 25일

사실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실행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네. 그러나 이제는 다 허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없게 되었어. 난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었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었지. 내가 영주를 따라 이곳으로 온 것도 그 때문이야. 그는 모처에 근무하는 장군이야. 산책을 하다가 내 계획을 말했더니, 그는 적극적으로 나를 설득하고 말리더군. 내 생각은 열정이라기보다는 변덕스러운 망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네. 그렇지 않았다면 난 영주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을 테니까.

6월 11일

자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가 없네. 여기서 대체 무얼 할 단 말인가? 하루하루가 지루하기 짝이 없네. 영주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해 주지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근본적으로 우린 그럴듯한 공통점이 없adne.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아주 평범한 이성을 가진 사람일 뿐이야. 그와의 교제는 그저 잘 쓰인 책을 읽는 것보다 별로 나을 게 없네. 일주일만 더 있다가 방랑길을 떠나야겠네. 여기서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그림 그리기라네. 영주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어. 역겨운 학술적 지식이나 전문용어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들, 그는 예술을 좀 더 깊이 이해했을 거야. 가끔 나는 상상력을 동원해 그를 자연과 예술의 세계로 따뜻하게 안내해 주지만, 그가 갑자기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흔해 빠진 진부한 용어들을 거듭 늘어놓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에는 정말 이가 갈릴 지경이라네.

6월 16일

그래, 난 방랑아에 지나지 않네. 이 지상의 순례자일 따름이지! 한테 자네들은 그 이상의 존재란 말인가?



6월 18일

내가 어디로 떠나려 하느냐고? 자네에게만 은밀히 가르쳐 주지. 두 주일 동안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네. 그 다음에는 모처에 있는 광산을 찾아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네. 허나 그건 핑계일 뿐이네. 그저 다시 로테에게로 가까이 가려는 것이라네. 그게 전부야. 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비웃고 있지. —그러면서도 마음을 따르고 있다네.

7월 29일

그래, 그게 좋아! 모든 게 다 잘 된 거야!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면! 오,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여, 만일 제게 이런 행복을 베풀어 주셨더라면, 제 일생 동안 늘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원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이 헛된 소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가 내 아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 여인을 내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빌헬름, 알베르트가 낯선 그녀의 몸을 껴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난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말 못 할 건 또 뭐 있겠나, 빌헬름? 로테는 알베르트보다는 나와 같이 사는 것이 더욱 행복했을 것이네! 아아, 그는 결코 로테의 소망을 모두 이루어 줄 수 있는 인물이 못 되네. 감수성에 결함이 있지. 결함이, 그 게 어떤지는 자네 마음대로 생각하게. 그의 마음은 어디에도 공감하는 적이 없다네. —아아! —재미있는 책을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나의 마음과 로테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할 때도 그렇고, 그 밖에 여러 다른 사건에서 제3자의 행위에 감동을 받아 우리가 큰소리로 감탄하는 경우에도 그렇다네. 사랑하는 빌헬름! —그러나 알베르트는 온 영혼을 다 바쳐 로테를 사랑하고 있네. 그러한 사랑, 그런 사랑이면 얻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나!

귀찮은 사람이 찾아와 내 이야기를 중단시켜 놓았네. 내 눈물도 말라 버렸네. 마음도 흐트러졌네. 그럼 잘 있게, 사랑하는 친구여!

8월 4일

나 혼자만 이렇게 지내는 것은 아닌 모양이야.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속고, 기대에 배신당하고 있다네. 나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사는 그 착한 부인을 찾아갔지. 제일 큰아이가 내게로 달려 나왔고, 그 기뻐하는 소리에 어머니도 밖으로 나왔는데 몹시 풀이 죽은 모습이었네. “아이고, 선생님, 우리 한스가 죽었답니다!” 하고 그녀는 말문을 열었지. 한스는 그녀의 막내아들이었네. 나는 말문이 막혀 버렸지. — “그리고 제 남편은” 하고 그녀는 말을 계속했네. “스위스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구걸까지 할 뻔했답니다. 게다가 오는 도중에 열병까지 걸렸어요.”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으며, 아이들에게 그저 약간의 돈을 쥐여 주었네. 그녀가 사과라도 몇 개 가져가라고 하기에, 그것을 받아들고는 그 슬픈 추억의 장소를 떠나왔다네.

8월 21일

내 마음이 변하고 있다네. 때때로 인생의 즐거운 빛이 다시 반짝이려 하지만, 아아, 그것은 단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네! —내가 망상에 빠지게 되면, 이런 생각도 억제할 길이 없다네. 즉 만일 알베르트가 죽는다면 어떨까? 그럼 너는 그녀의 남편이 된다! 그래, 그녀는—이럴 때면 나는 계속 그런 망상을 좇다가 깊은 심연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야 깜짝 놀라 발을 멈추곤 한다네.

내가 무도회에 가려고 마차로 로테를 처음 데리러 갔던 길, 그 성문 앞길에 와 보니,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더군!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지나간 과거가 되어 버렸네! 지난날의 흔적도 하나 없고, 그때 고통치던 내 감정의 맥박도 모두 없어져 버렸네. 마치 전성기를 누리던 어떤 영주가 성을 건축해 온갖 화려한 장식을 해 놓고, 임종할 때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뿌듯한 마음으로 물려주었는데, 훗날 망령이 되어 성터에 다시 돌아와 불에 타 버리고 허물어진 성채를 보고 느끼는 기분이 이런 걸 거야.

9월 3일

나는 때때로 내가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도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네! 나는 그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모르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9월 4일

그래, 그건 그래. 자연이 가을로 기울어 가듯이 내 마음도 내 주위 세계도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네. 내 마음의 깊은 노랗게 단풍이 들고, 주위의 나무에서는 잎들이 떨어지고 있다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언젠가 어느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이번에 다시 발하임에 갔다가 그의 안부를 물어보았지. 그는 주인집에서 쫓겨났다는데,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은 그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더군. 그런데 어제 나는 다른 마을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그를 만났네. 내가 말을 걸자 그는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그 때문에 나는 이중 삼중으로 큰 감동을 받았네. 그 이야기를 하면 자네도 쉽게 이해할 것인데. 하지만 어째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을 어찌하여 나 혼자 간직하지 못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자네까지 우울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어째서 자네에게 날 가엾게 여기며 훈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한단 말인가? 어쨌든 이런 것도 내 운명이겠지!

그의 태도에는 약간 수줍어하는 빛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은 처음에는 슬픈 표정으로 내가 묻는 말에 조용히 대답하더군. 그러나 잠시 후 자기 자신과 나를 다시 알아본 듯, 더 솔직히 자기 잘못을 털어놓고 자신의 불행을 슬퍼하더군. 친구여,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대해 자네의 판단을 구할 수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는 추억을 더듬는 일에 일종의 희열과 행복을 느끼면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즉 주인 여자를 향한 그의 정열이 나날이 더해 갔고, 결국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할지조

차 모르게 되었다는 거야. 그는 음식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으며, 잠을 잘 수도 없었다는군. 목구멍이 꼭 막혀 버렸으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부탁 받은 일들을 잊어버리게까지 되었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어떤 악령에 이끌리 기라도 한 듯이, 그녀가 위층 방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네. 아니, 그보다는 그녀에게 이끌려갔다고 하는 것이 옳을 거야. 그러나 주인 여자가 그의 간청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여자를 강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자신도 잘 모르지만, 하느님에게 맹세하건대, 그녀에 대한 그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순수했다는 거야. 그가 갈망했던 바는 그녀와 결혼해서 여생을 함께 지내고자 한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그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데, 말할 자신이 없는 사람처럼 멍치거리더군. 그러더니 약간 수줍어하면서 고백하기를, 그녀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 정다운 태도를 보여 주기도 했으며, 또한 그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바도 있었다고 말하더군. 그는 두세 번 말을 중단했다가 되풀이해 열심히 변명했는데,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녀의 태도를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전과 다름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군. 그런 말을 여태껏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다면서, 결코 자신이 미쳤거나 지각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네 친구여, 나는 여기서 내가 영원히 되풀이할 옛 노래를 다시 시작해야겠네. 내 앞에 서 있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자네에게 보여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의 운명에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으며, 또 공감할 수밖에 없는지를 자네가 느끼도록 이 모든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네. 자네는 내 운명도 알고, 또한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기에 자네는 내 마음이 모든 불행한 사람에게, 특히 이 불행한 남자에게 얼마나 깊이 끌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거야.

이 편지를 다시 읽어 보다가 그 이야기의 결말을 말해 주는 걸 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러나 그 결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 그녀는 몸을 지키려고 실랑이를 했지. 게다가 그 농부를 오래전부터 미워하고 있었고, 그를 집에서 내쫓

으려 했던 그녀의 남동생까지 가세했다네. 그 이유는 누나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자기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 그 상속재산을 놓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지. 이 남동생이 그를 집 밖으로 쫓아내 버렸고, 부인이 그를 원한다 해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소동을 일으켰던 거라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은 또 다른 머슴을 고용했고, 그 사람 때문에도 자기 남동생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군. 그 여자는 틀림없이 머슴과 결혼할 거라는 이야기이지만, 그 농부는 그런 꼴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다네.

내가 자네에게 한 이야기는 조금도 과장되거나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네. 아니, 사실보다 약하게 전했다고 말할 수 있지. 너무 약하게 이야기한 거야. 오래된 도덕적인 어휘들을 쓰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거칠어지고 말았네.

이런 사랑, 이런 진실함, 이런 정열이란 결코 문학적으로 창작해 낸 게 아니네. 이런 것은 살아 있는 것이라네. 우리가 교양도 없고 야만스럽다고 말하는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아주 순수하게 살아 있는 것이라네. 우리 교양인들이란……. —아무런 쓸모없는 교육을 받은 자들일 뿐이지! 간청하건대, 이 이야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 주게. 오늘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이었어. 예전처럼 그렇게 난잡하지도 지저분하지도 않은 필적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네. 사랑하는 친구여, 이 글을 또한 자네 친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읽어 주길 바라네. 그 래, 나는 그런 생활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 감히 나 자신을 그와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난 용기와 결단력에서 그 가엽고 불행한 남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네.

9월 5일

로테는 일 때문에 시골에 머물고 있는 남편에게 짙막한 편지를 썼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네. “그립고 보고 싶은 당신이여,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전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그런데 때마침 그곳에서 온 친구가 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네. 그래서 그 편지는 보내지 못하게 되었고, 저녁에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지.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웃었더니 로테가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물었어. —“상상력이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인가요.” 나는 큰소리로 말했지. “순간적이거나 난 이 편지를 내게 보내는 것이라고 상상했으니까요.”—그러자 그녀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 내 말이 그녀의 기분을 언짢게 한 것 같았기에,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네.

9월 6일

내가 로테와 처음으로 춤추었을 때 입었던 파랑고 평범한 연미복을 벗어 버리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었네. 하지만 그 옷은 봐 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낡았어. 그래서 전과 똑같은 연미복을 한 벌 만들라고 했지. 칼라 모양과 접은 옷깃도 똑같이 하고, 게다가 노란 조끼와 바지도 그렇게 다시 만들었네.

하지만 여전히 전과 똑같은 느낌을 주지는 못하네. 모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연미복도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하네.

9월 12일

로테는 알베르트를 맞이하기 위해 며칠간 여행을 다녀왔네. 오늘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니 그녀가 맞아 주더군. 너무나 기뻐서 나는 그녀의 손에 키스를 했다네.

그때 카나리아가 거울 쪽에서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왔네. “새로 온 친구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새를 자기 손 위에 앉게 하더군. “아이들을 생각하고 가져왔어요. 정말 너무 귀여워요! 자, 좀 보세요! 빵부스러기를 주면 날개를 파닥거리며 귀엽게 쪼아 먹어요. 그리고 제게 키스도 해요. 보세요!”

그녀가 새에게 입을 가까이 하자 그 달콤한 입술에 사랑스럽게 키스를 하더군. 카나리아는 마치 자신이 행복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했다네.

“당신에게도 키스를 하게 해 드려야지요” 하고 말하며 그녀는 새를 내게로 넘겨주

더군. 그 귀여운 주둥이는 그녀의 입이 내 입으로 통하는 길을 마련해 주었네. 그리고 그 쏘아 대는 듯한 촉감은 사랑으로 충만한 즐거움의 입김이나 하나의 예감 과도 같았다네.

“새의 키스에는 무엇인가 바라는 게 깃들어 있는 것 같군요” 하고 내가 말했네.

“먹을 것을 찾다가는 실속 없는 애무만 받고 실망하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새는 제 입에서 받아먹기도 한답니다.” 그녀가 말했지. —그녀는 입술에 빵부스러기를 물고 새에게 먹여 주었는데, 그 입술에서는 천진스럽게 따스한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미소가 흘러나왔네.

나는 얼굴을 돌려 버렸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처럼 천상의 순결성과 행복한 모습으로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그리고 때때로 냉담한 이 인생을 잊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내 마음을 깨우지 말았으면 좋겠네! —한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단 말인가? —그녀는 그렇듯 나를 믿고 있다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다네!

9월 15일

빌헬름,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못 하고 느낌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니 미칠 지경이네. 자네는 내가 성(聖) ○○ 마을의 진실한 목사 집을 찾아갔다가 로테와 함께 그 아래 앉았던 호두나무들을 기억하고 있겠지. 크나큰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던 그 멋진 호두나무들 말이야! 그 나무는 목사관의 뜰을 얼마나 정답고 서늘하게 해 주었는지 모른다네! 가지들은 또 얼마나 멋졌는지! 그 나무를 회상하면 아주 오래전에 그 나무를 심었던 훌륭한 목사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네. 교장 선생님은 할아버지에게 들었다는 목사 한 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종종 말해 주곤 했지. 그분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야. 나무 밑에서 그분을 생각하면 언제나 거룩한 느낌을 받곤 했었지. 자네에게 말하건대, 어제 우리가 그 나무들이 잘려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자 교장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네. —잘려 버리다니! 나도 미칠

지경이네. 그 나무에 첫 번째 도끼를 던 그 개 같은 자식을 죽여 버리고 싶네. 그런 나무 두 그루가 우리 정원에 서 있다가 그중 하나가 늙어 죽었다고 해도, 그것을 보는 게 나는 무척 슬펐을 것이네. 사랑하는 친구여, 그러나 아직 여기에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있다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말이야! 온 마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지. 그 목사 부인이 버터나 달걀이나 그 밖의 다른 선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 마을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는가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나무를 잘라 내도록 한 것은 새로 부임해 온 목사의 부인이기 때문이지.(우리가 아는 지난번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셨네) 깡마르고 병약한 여인이야. 그 부인은 세상사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을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그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 어리석은 여인은 박식한 척 하며, 성서를 열심히 연구한답시고 새로 유행하는 기독교의 윤리 비판 개혁 운동에 가담하고, 라바터<sup>3</sup>의 여러 가지 광신적 태도를 어깨를 으쓱하며 경멸하다가 완전히 건강을 해쳐 버렸는데, 그 때문인지 하느님이 내려 주신 이 땅에서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네. 그런 인간이기에 내 소중한 호두나무들을 잘라 버릴 수 있었던 거네. 알겠지, 난 납득할 수가 없어! 생각해 보게나. 나뭇잎이 떨어지면 풀이 더러워지고, 나무가 무성하면 햇빛을 가로막으며, 호두 열매가 익으면 아이들이 돌을 던져 대는데, 그런 것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켄니코트<sup>4</sup>와 쉘러<sup>5</sup>와 미카엘리스<sup>6</sup>를 비교 연구할 때 깊은 사색을 방해한다는 거지. 마을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왜 그런 걸 보고만 계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지. —“이곳 이장(里長)이 한다는데, 우리야 어쩔 수 있습니까?” 하고 그들은 대답하더군. —그러나 좋은 일이 하나 벌어졌다네. 목사는 수프조차 제대로 끓여 주지 않는 부인이 저지른 변덕스러운 행동을 이용하여

3 라바터(Lavater), 독일의 철학적, 종교적 문필가로, 그의 종교적 의식은 신에 대한 개인적 관계에 입각해 있다.

4 켄니코트(Kennikot), 구약성서의 원전을 비판했다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다.

5 쉘러(Semler), 할레 대학 신학 교수로 종교 비판에서 연구의 자유를 주창했다. 신약성서의 비평가로 유명하다.

6 미카엘리스(Michaelis), 독일의 프로테스탄트파 신학자이자 동양학자로 구약성서에 대한 역사 비판적 학문을 창립했다.



뭔가를 얻고 싶어 했는데, 그 나무를 판 돈을 이장과 함께 나눠 가지기로 생각했지. 그런데 회계국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는 “그 나무를 회계국에 바치라!” 하고 명령했다네. 왜냐하면 회계국은 여전히 그 호두나무들이 서 있던 목사관의 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나무들을 최고의 입찰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이네. 나무들은 그대로 아직 거기 쓰러져 있다네! 아아, 내가 영주라면! 그럼 나는 목사 부인이고 이장이고 회계국이고—영주라! 그래, 정말 내가 영주라면, 내 영토 안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 내 무슨 염려를 하겠는가!

10월 10일

그녀의 검은 두 눈을 보기만 하면, 나는 벌써 행복해진다네! 한데 내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은, 알베르트가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또 만일 내가…… 이라면…… 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네. 난 점선을 사용하여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네. —그리고 이것으로도 그 의미가 분명하리라 생각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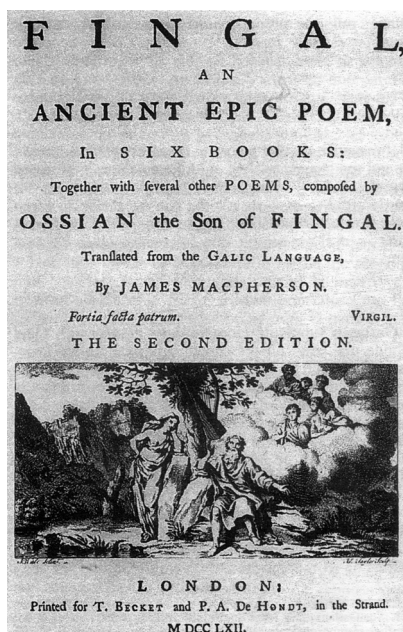
10월 12일

오시안이 내 마음속에서 호메로스를 몰아내고 말았네,<sup>7</sup> 그 훌륭한 시인이 나를 얼마나 황홀한 세계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모른다네! 거친 광야를 방랑하노라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폭풍이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선조들의 정령을 이끌어 가면서 웅웅거린다네. 산에서는 숲 속 시냇물이 포효하는 가운데 반쯤 흘날리는 정령들의 신음 소리가 무덤 속에서 들리기도 하고, 이끼로 뒤덮이고 잡초가 무성한 네 개의 비석 주위에서 죽을 듯이 애통해하는 처녀가 전등터에서 고귀하게 죽어 간 자기 애인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소리도 들린다네. 또 방황하는 백발의 음

7 오시안의 주인공들이 지닌 엄격한 순수성은 호메로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단순성과 서로 통하는 점이 많다.

유시인이 드넓은 광야에서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헤매다가, 아아, 그들의 묘석을 발견하고는 슬픔에 젖어 물결치는 바다 저편으로 사라지는 아름다운 저녁 별을 바라보기도 하지. 그러면 그 영웅의 마음속에서는 정다운 달빛이 아직도 용사들의 위험을 밝혀 주고, 승리를 거두고 화환에 둘러싸여 돌아오는 배를 비춰 주던 과거의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네. 그리고 그의 이마에 드리운 깊은 고통을 읽으며, 최후의 용사가 지칠 대로 지쳐 비틀거리며 무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네. 용사는 영원히 떠난 사람들의 덧없는 그림자와 만나 계속 고통스럽

게 타오르는 기쁨을 맛보고, 차가운 대지나 바람에 나부끼는 무성한 풀을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절규한다네. “방랑자는 돌아올 것이다. 화려했던 시절의 나를 아는 방랑자는 돌아와 물을 것이다. ‘핑갈’의 훌륭한 아들, 그 가수(歌手)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방랑자의 발길은 내 무덤 위를 밟고 지나갈 것이며, 이 세상에서 헛되이 나를 찾아 헤맬 것이다.”—오오, 친구여! 나는 이 고귀한 용사처럼 칼을 뽑아 들고, 나의 영웅을 서서히 죽어 가는 쓰라린 고통으로부터 단칼에 벗어나게 해 주고, 그 해방된 반신(半神)에게 내 영혼을 팔려 보내고 싶다네.



제임스 맥퍼슨이 엮어 출판한  
오시안의 시집 《핑갈(Fingal)》의 표지.

10월 19일

아아, 이 공허감! 여기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무시무시한 공허감! —나는 가끔 그녀를 한 번만, 단 한 번만 품에 안아 볼 수 있다면, 이 공허감은 완전히 채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네.

10월 26일

그래, 그건 확실해.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인간의 존재란 보잘것없다는 것을, 아주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네. 어떤 여자 친구가 로테를 찾아왔어. 그래서 나는 책을 들고 옆방으로 갔지만 전혀 읽을 수가 없었으며, 다음에는 글을 써 보려고 펜을 들었지. 그러자 그들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네. 그들은 누구는 어떻게 결혼을 했고, 누구는 병이 나서 몹시 앓고 있다는 등,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시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네. —“그녀는 마른기침을 하는데, 바짝 말라 얼굴에는 뼈만 남았으며, 가끔은 기절까지 해. 난 그녀가 얼마나 더 살지 보장할 수가 없어” 하고 찾아온 여인이 말했네. —“그 누구누구라는 분도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는데” 하고 로테가 대답하더군요. —“그분은 벌써 몸이 퉁퉁 부었대.” 친구가 대답했네. —그사이 내 활발한 상상력은 나를 이 불쌍한 사람들의 침대들 곁으로 가 있게 했지. 그네들이 죽지 않으려고 무척 반항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네. 얼마나 그들이—빌헬름!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죽어 가는 듯 얘기를 나누었다네. —주위를 둘러보고 방 안을 살펴보니, 로테의 옷가지들과 알베르트의 서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지금은 내게 그렇게도 친숙해진 가구들과 잉크병도 놓여 있었네. 그리고 나는 생각해 보았지. 과연 너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네 친구들은 너를 존경한다! 너는 가끔 그들을 즐겁게 해 주며, 네 마음은 그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네가 이제 떠난다면, 네가 그들의 주변에서 떠나 버린다면? 네가 없음으로써 그들의 운명에 생기게 될 공허감을 그들은 얼마나 느낄 것인가

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아, 인간이란 정말로 덧없는 존재라네. 자기의 존재를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자기 존재의 유일한 참된 인상을 깊이 남겨 놓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과 영혼 속에서조차도 인간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사라져 버려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야!

10월 27일

사람들이 서로 이처럼 냉담하다니, 나는 종종 가슴을 찢어 버리고 머리통을 깨뜨리고 싶어진다네. 아아, 사랑도, 기쁨도, 온정도, 더없는 즐거움도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남도 내게 베풀어 주는 법이 없다네. 그리고 비록 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차갑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는 없다네.

10월 27일 저녁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로테에 대한 감정이 이 모든 것을 삼켜 버리고 만다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네.

10월 30일

별써 나는 수백 번이나 그녀의 목을 끌어안으려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붙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지 대체 누가 알겠나. 그런데 무엇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아이들은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붙잡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11월 3일

하느님만은 아시겠지! 나는 종종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네. 그러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태양을 보게 되면, 기분이 비참해진다네. 아아, 내가 변덕스러울 수만 있다면, 이런 책임을 날씨가 제3자, 또는 실패한 일 탓으로 돌릴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전될 수 없는 불만의 짐이 반이라도 줄어들 텐데. 내 자신이 불쌍해! 모든 잘못이 전적으로 내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네. —아니, 잘못이 아니야! 맞아, 지난날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 내 마음에 있었듯이 지금의 모든 불행의 원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예전에는 넘쳐흐르는 감정에 들떠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원이 뒤따르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려는 마음을 지녔었던만,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내가 아닌가? 그러던 마음은 이제 죽어 버렸고, 더 이상 아무런 환희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네. 두 눈은 말라 버렸네. 눈물은 후련함을 가져다 주었던만, 지금의 내 감각은 그로부터 아무런 생기도 얻지 못한 채 초조하게 내 이 맛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네. 나는 너무 괴로워.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것을 잃었기 때문이지. 즉 내 주위의 세계를 창조하던 거룩하고도 생생한 힘, 그 힘이 사라져 버린 거야! —창가에 서서 저 멀리 언덕을 바라볼 때면, 아침 태양은 안개를 뚫고 언덕 너머 고요한 초원을 비추고, 강물은 잎이 진 버드나무들 사이로 유유히 나를 향해 굽이쳐 온다네. —아아! 이렇게 장엄한 자연도 내 눈앞에는 마치 니스 칠을 한 그림처럼 굳은 채 서 있고, 이 모든 환희도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방울의 행복을 머릿속으로 걸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네. 그리고 이 못난 자식은 하느님 앞에 말라 버린 샘물처럼, 다 깨져 버린 물통처럼 서 있다네! 나는 종종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는 하느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 달라고 빌기도 했지. 마치 하늘이 황동색으로 불타고 대지가 목말라 할 때, 비를 애원하는 농부처럼 말이야.

그러나, 아아,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이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비도 햇빛도 내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생각하면 괴로웠던 그 시절, 왜 그때가 그다지도 행복했던가! 그땐 내가 인내를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고, 하느님이 내려 주신 기쁨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일까!

11월 8일

그녀가 내 무절제한 행동을 꾸짖었다네! 아아, 그렇게도 다정한 태도로 말이야! 내 무절제한 행동이란 때때로 포도주 한 잔으로 시작해서 한 병을 다 마셔 버리는 것이지.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네. “로테를 생각하셔야지요!”—“생각하다니요!” 하고 내가 말했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지요!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 영혼 속에 깃들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당신이 최근에 마차에서 내린 그 장소에 앉아 있었답니다.”—로테는 내가 그런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 버렸네. 친구여,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녀는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가 있네.

11월 15일

빌헬름, 자네의 진심 어린 관심과 호의에 찬 충고 고맙네. 허나 제발 안심하기 바라네. 내가 건디어 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여러 가지로 지치긴 했지만, 아직 끝까지 버틸 힘은 충분히 남아 있네. 내가 종교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네도 알고 있지. 종교가 지친 사람들에게는 지팡이가 되고, 약해진 사람들에게는 소생의 힘을 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과연 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자네가 이 드넓은 세상을 돌아보면, 설교를 들었던 듣지 않았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런데 나에게도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느님의 아들<sup>9</sup>까지도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 주신 자들만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만일 내가 그분에게 보내진 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 마음이 속삭여 주듯이,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갖고자 하신다면? —제발 부탁하건대,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 주게. 이 천진스러운 말 속에 조소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지는 말게. 지금 나는 자네에게 내 마음 전

9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부를 보여 주고 있다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말았을 거야. 다른 사람이나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난 선불리 단 한 마디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야. 사람의 운명이란 자기 분수를 알고 인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느님까지도 그 잔이 인간의 입술에는 너무나 쓰다고 하셨는데, 내 어찌 허세를 부리며, 그 잔이 달콤하다 하겠나? 그리고 내 모든 존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벌벌 떨고, 과거는 암흑으로 뒤덮인 미래의 심연 위로 섬광처럼 번쩍이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가라앉으며, 온 세상이 나와 더불어 몰락하려는 이 무시무시한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해야만 한단 말인가? 이것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자신의 결함을 느끼며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인간이 힘을 헛되이 다 써 버리고 난 뒤 신음하는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sup>10</sup> 하고 말아야. 그런데 왜 내가 그런 표현을 부끄러워해야 한단 말인가? 하늘을 하나의 천처럼 펼쳐 놓은<sup>11</sup> ‘그분’(예수 그리스도—옴긴이)조차도 피하지 못한 그런 순간을 왜 내가 두려워해야만 하겠는가?

## 11월 21일

로테는 나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독약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네. 그런데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녀가 내미는 잔을 나는 황홀한 기쁨을 느끼며 받아 마시고 있지. 그녀가 자주—자주일까? —아니,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나를 바라보는 그 정다운 눈길은 무엇을 뜻할까?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온 내 감정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씨, 내가 인내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이마에 나타나는 동정심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제 내가 떠나올 때도 그녀는 내게 악수를 하며 “안녕히 가세요, 사랑하는 베르

10 <마태복음> 34장 4절 참조, “오후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으셨다.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1 <이사야> 34장 4절 참조, “하늘이 두루마리인 양 말리고…….” <요한계시록> 6장 14절 참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져 버렸고 …….” <시편> 104장 2절 참조, “하늘을 차일처럼 펼치시고 …….”

테르 씨!” 하고 말하더군. 사랑하는 베르테르라! 그녀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 말은 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았네. 나는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어 보았지. 그리고 어젯밤에도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 가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씨!”라는 말이 튀어나왔지. 그리고 나서는 혼자 웃지 않을 수 없었네.

11월 22일

나는 “그녀를 제게 맡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몸이네. 그런데도 종종 그녀가 내 아내 같은 생각이 든다네. “그녀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지. 그녀는 다른 남자의 사람이니까. 난 자신의 고통을 희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의 푸념이 한없이 생겨날 테니까.

11월 24일

그녀는 내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네. 오늘 그녀의 눈길에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왔다네. 내가 갓을 때 그녀는 혼자였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지. 그런데 난 그녀의 모습에서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이나 빛나는 정신의 광채 같은 것을 찾지는 않았네. 그런 것은 이미 내 눈앞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지. 그보다 훨씬 황홀한 그녀의 눈길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네. 진심 어린 관심과 달콤한 연민으로 가득 찬 눈길이 말이야. 어찌하여 나는 그녀의 발밑에 몸을 던져서는 안 된단 말인가? 어찌하여 나는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수많은 키스로 대답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로테는 피아노 쪽으로 몸을 피해 연주를 하면서, 그 소리에 맞추어 달콤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네. 이때처럼 그녀의 입술이 매력적으로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네. 그녀의 입술은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소리들을 갈망 속에서 들이마시려는 듯 벌어져 있었지. 그리고 그 순결한 입에선 은밀한 메아리 소리만이 다시 울려 나오는 것 같았네. —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로테,  
그리고 베르테르와 로테의 여동생.

그래, 내가 그런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 —나는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맹세했네. 나는 결코 저 입술, 하늘의 영(靈)들이 감돌고 있는 저 입술에 감히 키스하려 들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렇지만—난 하고 싶다네. —아아! 자네도 알겠지만, 그런 소망이 내 영혼 앞에 하나의 장벽처럼 가로놓여 있다네. —그런 행복을 맛볼 수만 있다면, 그럼 나는 자신을 파멸시켜 그 죄를 씻겠네. —그런데 그것이 죄일까?

11월 26일

때때로 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네. ‘너의 운명은 특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축복해 주어라. —그렇게 괴로워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느니라’ 하고 말 이야. —그리고 나서 옛 시인의 작품을 읽으면, 마치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지. 난 많은 고통을 견디어 내지 않으면 안 되네! 아아, 나 이전에도 이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11월 30일

나는, 도저히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네! 어디를 가든 내 정신을 산란케

하는 사건을 겪게 되지. 오늘도! 아아, 운명이여! 아아, 인간이여!

나는 정오께 물가로 나가 보았다네. 식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모든 것이 황폐해 보였고, 차고 습한 바람이 산 쪽에서 불어왔으며, 비를 실은 회색 구름이 계속으로 몰려들고 있었네. 멀리서 남루한 초록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 보였는데, 그는 암벽들 사이를 기어 다니며 약초를 찾고 있는 것 같았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인상이 매우 흥미로웠다네. 그 표정에는 전체적으로 조용한 비애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 밖에는 바르고 착한 심성을 지닌 사람으로 보였네. 검은 머리는 핀을 꽃아 두 갈래로 말아 붙이고, 나머지는 굵직하게 땅아서 등 뒤로 늘어뜨려 놓았더군. 옷차림으로 보아 신분이 낮은 사람 같기에, 나는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도 나쁘게 여기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았네. —“꽃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더군. —“지금은 꽃피는 계절이 아니지요” 하고 내가 웃으면서 말했지. “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며 대답했네. “우리 집 정원에는 장미와 인동 덩굴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주신 건데, 둘 다 잡초처럼 자라는 걸요. 벌써 이들 동안이나 그것들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이 야외에도 언제나 노란 꽃, 파란 꽃, 빨간 꽃이 피어 있었어요. 용담초도 아주 예쁜 꽃이고요. 그런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무엇인가 이상스런 느낌이 들어서, 말을 돌려 물어보았네. “꽃을 가지고 대체 뭘 할 건가요?”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실룩거리는 미소로 일그러졌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면” 하고 그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말하더군. “애인한테 꽃다발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것 참 멋지군요” 하고 내가 말했지. —“오오! 그녀에겐 다른 물건들도 많답니다. 부자니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당신이 주는 꽃다발을 좋아할 겁니다.” 내가 대답했네. —“오오! 그녀는 보석이나 왕관 같은 것도 갖고 있어요” 하고 그가 말을 이었지. —“그런데 그녀 이름이 뭔가요?” —“네덜란드가 내게 돈을 지불했더라면, 난 딴 사람이 되었겠지요!” 하고 그가 대답했네. “그렇지요, 내게도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이 꼴이 되었지만요. 이제 나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는 그의 눈물 젖은 눈길이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었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척 행복했었군요?” 하고 내가 물어보았지. —“아아, 다시 한 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네. “그때 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마치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처럼 경쾌한 기분이었지요.” —“하인리히!” 그때 한 노파가 그 길을 따라오며 소리쳐 불렀네. “하인리히, 대체 어디 가 있는 거니? 사방으로 널 찾으러 다녔단다. 자, 밥 먹으러 가자.” —“당신 아드님인가요?” 나는 노파에게로 다가서며 물어보았네. —“그래요, 불쌍한 제 자식이에요!” 노파가 대답하더군. “하느님께서 제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 주셨어요.” —“아드님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지요?” 하고 내가 물었지. —“지난 반년 동안은 그래도 얌전하게 지낸 셈이지요.” 노파가 대답했네. “그만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전에는 일 년 내내 미쳐 날뛰는 바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답니다. 지금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들에게 늘 정신이 팔려 있어요. 아주 착하고 조용한 아이라서 집안 살림을 도와주기도 하고, 글씨도 예쁘게 썼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울해하더니, 그만 심한 열병을 앓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지며, 보시다시피 지금 이 꼴이 되었어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물 흐르듯 쏟아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질문했네. “그럼 아드님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자랑하는 그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바보 같은 녀석!” 하고 그 노파는 동정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그건 제정신이 나갔던 시절 이야기인데, 늘 그걸 자랑삼아 떠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던 때지요.” —그 이야기는 내게 벼락치는 소리처럼 들렸다네. 나는 노파의 손에 약간의 돈을 쥐어 주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왔네.

넌 그때가 행복했었구나! 나는 시내 쪽으로 서둘러 걸어가며 혼잣말로 소리쳤다네. 그때 너는 마치 물속의 물고기처럼 행복했구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인간이 이성을 갖기 이전이나 그 이성을 다시 잃어버렸을 때를 제외하곤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놓았나이다! —불쌍한 사나이여! 그렇지만 나는 너의 우울한 마음, 너를 괴롭히는 정신착란이 부럽구나! 너의 여왕에게 꽃을 꺾어 주겠다는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헤매고 있질 않느냐—이 한겨울에—꽃

을 찾지 못해 슬퍼하면서도, 왜 꽃을 찾을 수 없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데 나는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없이 밖으로 나왔다가 나온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네덜란드가 돈을 지불해 주었더라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를 상상하고 있구나. 축복받은 인간이로다. 행복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을 세상의 방해 탓으로 돌릴 수 있다니! 너는 느끼지 못하는구나! 흐트러진 네 가슴속에, 부서진 네 머릿속에 너의 불행이 깃들어 있으며, 이 세상의 어떤 제왕도 그런 상태에서 널 구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넌 깨닫지 못하는구나. 멀리 떨어진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켜 더욱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환자를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양심의 가책을 떨쳐 버리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자의 무덤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절박한 심정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자는 무참하게 죽어야 마땅할 것이네. 길도 나지 않은 길을 가다 발바닥에 상처를 입는다 해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괴로운 영혼에게 한 방울의 진정제가 되고, 계속 인내하며 걸어간 하루하루의 여행은 불안한 마음을 훨씬 가볍게 완화시켜 줄 것이네. —편하게 앉아 탁상공론이나 하는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망상이라 말할 수 있겠나? —망상이라! —아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저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계신 인간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게다가 인간에게서 약간의 공색한 삶을, 그리고 당신을 믿는, 바로 당신을 믿는 약간의 신뢰마저 빼앗아 버리는 형제들까지 붙여 주시다니요.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여! 치료 효과가 있는 뿌리를 믿고, 포도 덩굴의 즙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을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만물에 우리가 매 시각마다 필요로 하는 치료와 위안의 힘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시여,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예전에는 제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더니, 지금은 얼굴을 돌려 버리신 아버지시여, 부디 저를 당신 곁으로 불러 주소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말아 주소서! 이 목말라 하는 영혼은 당신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나이다. —뜻밖에 다시 돌아온 아들이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에게 분노할 사람이, 분노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나이까.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당신의 뜻을 따른다면 더 계속했어야 할 여행을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왔다고 화내시

지는 마세요. 세상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고 일을 하면 보수와 기쁨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제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에서만 저는 행복하합니다. 당신이 보는 앞에서 저는 괴로워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싶습니다.”—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런데 당신은 그런 아들을 정녕 물리치려 하시나이까?

12월 1일

빌헬름! 지난번 편지에 이야기한 그 남자, 그 행복하고도 불행한 사람은 로테 아버지의 서기였다네. 남몰래 로테에 대한 연모의 정을 키워 오다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해고를 당했고, 그 때문에 미쳐 버렸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무미건조한 글에서라도 느껴 주기 바라네. 알베르트는 태연하게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는데, 아마 자네도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있겠지.

12월 4일

제발 부탁하네. —자네가 알겠지만, 난 이제 끝장이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오늘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네. —앉아 있었던 말이야. 그녀는 피아노로 다양한 멜로디를 연주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 보여 주었어! 모든, 모든 감정을 말야! —넌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그녀의 어린 여동생은 내 무릎 위에 앉아 인형에게 옷을 입히고 있었어. 내 눈에선 눈물이 솟아올랐어. 몸을 굽혀 보니, 그녀의 결혼반지가 눈에 띄더군.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 —그런데 갑자기 로테가 옛날의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말이야. 그러자 내 영혼에는 마음의 위로와 함께 과거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네. 이 노래를 들던 시절, 그 중간 중간 불쾌한 기분으로 우울했던 시간들, 그리고 좌절된 여러 희망에 대한 추억들이 떠올랐지. —나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지만,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마음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 —“제발,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는 격렬한 몸짓으로 그녀에게 달려가며 말했네. —그녀는 연주를 중단하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 “베르테르 씨” 하고 그녀는 내 영혼을 찌르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베르테르 씨, 몹시 편찮으신 모양이에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곡까지 싫어하시다니요. 어서 가 보세요! 그리고 제발 안정을 취하시길 빌어요.” —나는 그녀로부터 도망치듯 떠나왔네.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제 고통을 아십니다. 제발 이제 끝내 도록 해 주소서.

12월 6일

어디를 가든 그녀의 모습이 날 따라다니고 있네! 자나 깨나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어! 두 눈을 감으면 여기, 내면의 시력(視力)이 합쳐지는 이 이마 속에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나타나곤 하지. 바로 여기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군. 눈을 감으면, 그녀의 눈동자가 또 저기에 나타난다네. 바다처럼, 심연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내 앞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깃들이고, 내 이마의 모든 감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네. 반신(半神)이라고 찬양 받는 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가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그 힘이 없어져 버리지 않는가? 그리고 기쁨으로 높이 날아오를 때나 슬픔으로 깊이 가라앉을 때,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그대로 어느 한곳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네. 무한한 충만감 속에서 자신을 간절히 망각하고 싶어 하면서도, 인간은 차갑고 무감각한 의식 세계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 편자(編者)가 독자에게

사실 나는 우리의 친구 베르테르의 주목할 만한 마지막 며칠에 관해 여러 가지 자필 기록이 남아 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가 남긴 편지들이 이어지는 걸 중단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 이야기는 간단하고, 약간의 사소한 일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고, 그 판단도 분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이란, 우리가 거듭 노력해 가는 동안에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고인이 남긴 편지들을 사이사이에 삽입하며, 그리고 발견된 쪽지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 일뿐입니다. 특히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는 그 독특하고도 진정한 동기를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베르테르의 마음에는 불쾌한 기분과 불만이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서로 단단히 뒤얽혀서, 점차로 그의 모든 존재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정신의 균형은 완전히 깨져 버렸으며, 내면의 흥분과 격정은 그의 천성이 지녔던 온갖 힘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아주 지독한 작용을 하여, 그에게 결국 피로감만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싸웠듯이, 이 피로감을 이겨 내려고 노심초사 노력했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정신적인 모든 힘과 활력과 날카로운 감각을 잠식해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는 비애에 잠기어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면 불행해질수록 점점 더 부당한 처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알베르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고 주장합니다. 즉 베르테르는 순수하고도 조용한 남편 알베르트가 오랫동안 소망하던 행복을 어느 정도 성취했고, 이런 행복을 미래에까지도 유지하려는 그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다. 베르테르는 매일매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저녁에는 곤경에 처해 고통

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들은 또 알베르트는 것처럼 단시일 내에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베르테르가 처음 사귀고 매우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던 때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로테를 사랑하고,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녀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훌륭한 여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가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다 해서, 그리고 비록 그 관계가 아주 순수하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나마 이 값진 여인을 어느 누구와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다 해서, 그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고도 말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베르테르가 로테와 함께 있을 때면, 알베르트는 종종 로테의 방을 나가곤 했다는데 그건 그가 친구를 증오하거나 혐오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있으면 베르테르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테의 아버지는 몸이 편치 않아서 방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테에게 마차를 보냈고 그녀는 마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때는 아름다운 겨울날이었고, 첫눈이 많이 내려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르테르가 그녀가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알베르트가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자기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맑은 날씨도 침울한 그의 기분에 별로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울적한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슬픔에 찬 장면들이 떠날 줄을 몰랐으며, 기분은 고통스런 생각에만 사로잡힐 뿐 달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한 영원한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상태도 점점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알베르트와 그의 부인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꾸짖었지만, 거기에는 남편에 대한 남모르는 적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고 그는 남몰래 이를 갈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와 로테 사이의, 서로 믿고 친절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정다운 관계란 말인가.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충실하고 있다고! 그건 지루하고 무관심한 상태다! 지금 그는 귀하고 값진 부인에 대해서보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는가? 자기 행복을 값지게 여길 줄이



나 알고 있을까? 로테에게 어울릴 만큼 그녀를 존중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 그가 그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것들을 알고 있듯, 그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그런 생각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미치게 하고, 또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나에 대한 그의 우정이 온전하단 말인가? 그는 내가 로테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고 자기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로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속으로 비난하는 게 아닐까? 나도 그런 것쯤은 잘 알고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는 날 만나기 싫어하며, 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내 존재가 그에게겐 성가신 것이다.”

때때로 베르테르는 빠른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은 언제나 앞으로 향했으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어느덧 사냥용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로테 아버지와 로테의 안부를 물었는데 어쩐지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아들인 아이가 와서는 저쪽 발하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농부가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베르테르에게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로테가 열심히 늙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나가 그 범행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맞아 죽은 남자는 아침에 대문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살자는 어느 과부의 머슴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과부가 이전의 머슴이 불만을 품고 그 집에서 나간 다음 이 머슴을 고용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르테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니!”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로 가 봐야만 하겠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그는 급히 발하임으로 떠났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베르테르는 자기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

고,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남자가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잠시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체가 놓여 있다는 주막으로 가려면 보리수나무 밑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베르테르는 예전에 그렇게도 좋아했던 장소였지만 웬지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웃 집 아이들이 자주 나와 놀던 문지방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과 충성심이 폭력과 살인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커다란 보리수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없이 서리가 덮여 있었고, 나지막한 교회 담벼락 위에 아치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울타리도 잎이 다 떨어졌으며, 그 틈새로 눈 덮인 묘석들만이 보였습니다.

주막 앞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큰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 무장한 남자들의 무리가 보였고, 모두들 범인을 잡아 오는 것이라고 떠들어 댔습니다. 베르테르가 그쪽을 바라보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그 과부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었고, 얼마 전에 그가 만났던, 남모를 시름에 잠긴 채 절망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하던 바로 그 머슴이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아, 대체 무슨 짓을 했던 말인가!” 하고 베르테르는 범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범인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묵묵히 있더니, 마침내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여자를 가질 수 없어요. 그녀 역시 누구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범인은 주막 안으로 끌려들어 갔고, 베르테르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극심한 충격으로 그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것이 모두 송두리째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비애나 불만, 자포자기의 무관심에서 빠져 나오면서, 견딜 수 없이 그 남자를 동정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람을 구해 보겠다는 간절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며,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마음 깊이 그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의 무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변호할 수 있기를 바랐고, 벌써 그를 위

한 열렬한 변론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냥용 별장으로 급히 달려가면서도 그는 주무관에게 말하려는 이야기를 모두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알베르트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잠시나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주무관에게 자기 생각을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주무관은 몇 번인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베르테르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갖 열의와 정열과 진실을 다해 말했다 할지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주무관은 그 말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친구의 말을 가로막고 맹렬히 반박하며, 몹쓸 살인범을 두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법률이 모두 폐지될 것이며, 국가의 안녕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건에는 가장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상책이며,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경우 주무관께서 눈을 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무관은 그것마저도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그 이야기에 끼어든 알베르트도 주무관의 편을 들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다수에 의해 거절당하고, 주무관이 몇 번이고 “아니, 그는 구할 길이 없네!”라고 말하자 베르테르는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며 길을 떠났습니다.

주무관의 말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우리는 그의 서류에서 발견된 종이쪽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쪽지는 틀림없이 그날에 쓰인 것입니다.

“불행한 자여, 자네는 구제될 길이 없네. 난 우리가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네.”

최근 주무관이 있는 자리에서 알베르트가 그 범인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극도로 베르테르의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자기에 대한 몇 가지 감정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베

르테르의 예리한 마음에도 두 사람의 의견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그런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면, 그는 깊은 내면의 자기 존재를 부정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알베르트와 그의 관계를 모두 설명해 줄 만한 쪽지 한 장을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알베르트—웁긴이)이 성실하고 선량하다고 내가 말하고 다시 또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공정해질 수가 없다네.”

포근한 저녁이고 눈이 녹을 듯한 날씨였기 때문에 로테는 알베르트와 더불어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로테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는데, 마치 베르테르가 함께 오지 않아서 서운한 것 같습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의 판단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르테르의 불행한 열정에 대해 말하면서, 가능하다면 그를 멀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소.” 알베르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하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고, 너무 자주 찾아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소.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벌써 여기저기서 그런 얘길 수군거리는 모양이요.”—로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알베르트는 그녀의 침묵을 예민하게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 이후로는 그녀에게 베르테르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그의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알베르트는 말을 중단하거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곤 했습니다.

베르테르가 그 불행한 남자를 구하려 했던 헛된 시도는 꺼져 가는 등불의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이 고뇌와 무력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이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지난날 현실 생활에서 부딪혔던 모든 불유쾌한 일, 공사관에서 있었던 기분 나쁜 일, 기타 실패로 돌아가 마음 아팠던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온갖 희망을 차단해 버린 채, 평범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능력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그는 아주 이상스런 느낌과 생각과 끝없는 열정 속으로 빠져들었고, 자기가 평화로운 삶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여인과 비극적 교제를 하는 데만 폭풍처럼 치달았으며, 아무런 목적이나 전망도 없이 온 힘을 낭비하면서 점점 슬픈 종말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정신의 혼란과 열정, 지칠 줄 모르는 충동과 노력, 그리고 삶의 피로에 관해서는 그가 남긴 몇 장의 편지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줄 것이므로, 그것을 여기에 삽입하여 소개합니다.

12월 12일

“사랑하는 빌헬름, 나는 지금 사람들이 악령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불행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네. 때때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불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닐세. —알 수 없는 내적 광란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목구멍을 짓누르고 있다네! 괴로워! 정말 괴로워! 그리고 나는 인간을 괴롭히는 계절의 밤이 빚어내는 무시무시한 장면 속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네.

어젯밤 나는 외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네. 갑자기 눈이 녹아내리면서 강물이 흘러 넘치고, 모든 시냇물이 불어나 발하임에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계곡까지 온통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밤 열한 시가 지나서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네. 소용돌이치는 물줄기가 달빛을 받으며 암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광경은 정말 무시무시했네. 발과 초원과 울타리 등 모든 것을 넘어서 드넓은 골짜기 아래위로 휘몰아치며 울부짖는 바다가 되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지! 얼마 후 검은 구름 위로 달빛이 다시 나타났을 때, 내 눈앞에서는 물줄기가 무시무시하리만큼 장엄하게 반사하면

서 요란스레 흘러가고 있었지. 그때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또다시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네! 아아,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심연을 향해 서서 같이 숨을 내쉬었네! 아래로, 저 아래로! 그리고 저 물결처럼 내 고통이, 내 슬픔이 울부짖으며 함께 떠내려가고 있다는 환희에 빠져 넋을 잃고 있었네! 아아! —그러면서도 너는 땅바닥에서 발을 떼지도 못하고, 이 모든 고통을 끝내 버리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내 운명의 시계가 아직 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네! 오오, 빌헬름! 저 폭풍우와 더불어 구름을 찢어 버리고 거센 물결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인간의 삶을 기꺼이 포기해 버릴 수도 있으련만! 아!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환희가 감옥에 갇혀 버린 이 영혼에게도 주어지지 않겠나? —

무더운 여름날 산책을 하다가 로테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 앉아 쉬던 장소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네. 그곳도 물에 잠겨 있었고, 그 버드나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네! 빌헬름, 난 그녀가 사는 초원과 사냥용 별장 주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지. 우리들이 갔던 정자도 지금은 저 사나운 물결에 난장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가축이나 목장을 꿈꾸고 고위 관직을 꿈꾸는 것처럼, 지난날의 일들이 햇살처럼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네. 나는 그렇게 서 있었지! —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 나 자신을 탓하지는 않네. —나는,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런 기쁨도 모른 채, 죽어 가는 생명을 잠시나마 더 연장시키고, 괴로움을 덜어 보려고, 울타리에서 나무를 굽어모으며 이 집 저 집에서 문전걸식하는 노파처럼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네.”

12월 14일

“사랑하는 친구여, 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 스스로가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네!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이 가장 신성하고 순수하며 형제와 같은 사랑이 아니란 말인가? 이제까지 죄 지을 만한 소망을 마음속에 느껴 본 적이 있었던가? —단언하진 않겠네. —꿈이란 것이 있으니까! 아아, 이렇게 모순된 마음의 작용을 알 수 없는 힘의 세계로 돌렸던 사람들, 그들의 그런 느낌은 얼마나 진실한가! 어젯밤 일

이네! 말을 하자니 몸이 떨리는군. 나는 그녀를 두 팔로 힘껏 끌어안은 채, 사랑을 속삭이는 그녀의 입술에 끝도 없이 키스를 퍼부었지. 내 눈길은 그녀의 황홀해하는 눈길 속에 잠겨 있었어! 하느님이시여! 지금도 이 불타오르는 기쁨을 마음 가득히 되새기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제게 죄가 있단 말입니까? 로테! 로테!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의 감각은 혼란에 빠져 있고, 벌써 일주일째나 생각할 힘을 잃고 있으며, 두 눈에는 눈물이 넘쳐흐르고 있네. 나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동시에 어디에서도 행복하다네. 난 바랄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네. 떠나가는 것이 더 좋겠네.”

이 시절, 이런 정신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려는 결심은 베르테르의 마음속에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로테에게로 돌아온 이후 그것만이 늘 그의 마지막 기대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다거나 성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최선의 확신과 가능한 한 침착한 결단을 내리고서 이 행동을 결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회의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은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된 작은 쪽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날짜도 적지 않은 채, 빌헬름에게 보내려고 쓰기 시작한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다는 것, 그녀의 운명, 그리고 그녀가 내 운명에 대해 보여 주는 연민이, 다 타 버린 나의 머리에서 아직도 남은 마지막 눈물을 솟아나게 한다네. 장막을 걷어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네! 그게 다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일까? 장막 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일까? 우리가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엔 혼돈과 암흑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우리 정신의 특징이 아닐까?”

마침내 베르테르는 이 비애에 찬 생각에 익숙하고 친해졌으며, 그의 각오는 더욱

확고하여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친구에게 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편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월 20일

“빌헬름,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해 준 자네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네. 그래, 자네 말이 옳아. 나는 떠나는 편이 더 좋을 거야. 자네들 곁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 적어도 나는 먼 길로 돌아가고 싶네. 특히 계속되던 혹독한 추위가 그치고 길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 자네가 날 데리러 오겠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기쁘네. 하지만 두 주일간만 연기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 편지를 기다려 주게. 무엇이든 무르익기 전에는 따지 말아야 할 거야. 두 주일이 더 있고 없고에 따라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네. 어머니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려 주게. 내가 기쁘게 해 드려야 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도 내 운명인 것 같네. 그럼 내 가장 친애하는 친구여, 잘 있게! 하늘의 온갖 축복이 자네와 함께하길 빌겠네! 잘 있게!”

이 무렵 로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남편에 대한, 그리고 불행한 친구에 대한 그녀의 심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성격을 알고 있기에 조용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라면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고 그녀와 더불어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베르테르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녀가 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정답게 그를 아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베르테르에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에게는 정말 이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리란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테는 그 무렵 더욱 진지하게 행동하도록 마음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침묵해 왔듯이, 그녀의 남편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실제 행동으로 자



기가 속으로 남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 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베르테르가 여기 삼입된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던 날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그가 로테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마침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몇 가지 장난감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이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도 어렸을 때 예기치 않게 문이 활짝 열리고 촛불과 사탕과 과자와 사과 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면, 마치 천국이라도 온 것처럼 황홀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하고 로테는 당황하는 빛을 사랑스러운 미소로 감추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암전하게 있으면,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긴 양초나 뭐 그런 것 말예요.” —“암전하게 있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베르테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요? 사랑하는 로테!” —“목요일 저녁이”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때 아이들도 올 거고, 아버지께서도 오실 거예요. 그때 모두가 자기 선물을 받게 되니까, 당신도 그때 오세요. —하지만 그전에 오시면 안 돼요.” —베르테르는 놀라 주춤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겠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어요.” —베르테르는 그녀에게서 눈을 돌려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다!” —이런 말 때문에 그가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낀 로테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 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로테 씨” 하고 그가 외쳤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하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베르테르 씨, 당신은 우릴 다시 만날 수 있고, 꼭 다시 만나러 오셔야만 해요. 그저 적당하게 오시면 돼요. 아아, 당신은 어찌하여 이토록 격렬한 성격과 무엇이든 한번 마음먹은 것을 너무나 고집하는 열정을 타고나신 걸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로테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자제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정신,

당신의 학식, 당신의 재능이면 얼마든지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 주세요! 당신을 안타깝게 여길 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저 같은 여자에 대한 슬픈 집착을 다른 데로 돌려주세요.”—베르테르는 이를 악물고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베르테르 씨,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일부러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세요! 베르테르 씨, 대체 어째서 저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저 같은 사람을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는 걱정스러워요. 당신의 소망을 자극하는 이유가 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는 불쾌하여 굳어진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명한 말씀이로군요!” 베르테르가 말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알베르트가 가르쳐 준 모양이지요? 정치적이로군요! 아주 정치적이네요!”—“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로테가 대답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소망을 채워 줄 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요? 단호히 결단을 내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여자를 만나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 스스로를 얹어매고 있는 제한된 생활이 당신을 위해서나 저희를 위해서나 걱정스러워지니까 말이에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해요! 여행이라도 하시면 기분이 좀 풀어질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를 찾아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진정한 우정의 행복을 누리기로 해요.”

“그런 말은 인쇄를 해서 가정교사들에게 추천해 주면 좋겠군요.” 베르테르는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씨! 나를 잠시 동안만 내버려 두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그것만은 지켜 주세요, 베르테르 씨.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오시면 안 돼요!”—그가 막 대답하려 했을 때, 알베르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차갑게 저런 인사를 나누고는 어색한 모습으로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곧 중단해 버렸으며, 알베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부인에게 몇 가지 부탁했던 일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아직 그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시 로테에

게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베르테르에게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심지어는 너무나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떠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여덟 시까지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만과 불쾌감은 점점 더해 갔으며, 결국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그는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알베르트가 더 있다가라고 말했지만, 그에겐 하찮은 인사치레로 들렸기 때문에, 냉정하게 예의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베르테르는 집으로 돌아왔고, 하인이 들고 가려던 등불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혼자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큰소리로 울며 몹시 격분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사나운 발걸음으로 방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밤 열한 시경에 하인이 조심스레 들어와서 그대로 쓰러진 베르테르를 발견하고는 장화를 벗겨 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하인이 하는 대로 내맡겨 두었으며, 내일 아침에는 자기가 부를 때까지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로테에게 다시는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베르테르.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일찍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그가 죽은 다음 봉인된 채로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로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그 편지를 일부분씩 나누어 여기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테 씨, 결정했습니다. 난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어떤 낭만적 과장도 없이 침착하게,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날 아

침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알지 못했던 불안하고 불행한 인간의 굳어 버린 육체 위에 차가운 무덤이 덮여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시무시한 하룻밤을 지냈지만, 아, 그것은 한편으로 자비로운 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단단히 결심하게 된 밤이었으니까요. 난 죽으려고 합니다! 어제 당신과 헤어졌을 때 내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격분해 있었고, 온갖 것들이 내 마음에 사무쳐 왔으며, 당신 곁에 있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는 내 존재가 처참하고도 차갑게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간신히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정신없이 무릎을 꿇었지요. 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게 마지막 위안으로 아주 쓰디쓴 눈물을 흘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희망들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마지막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는 자리에 누웠지요. 다음 날 아침, 고요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그 생각은 확고히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딘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요, 로테 씨! 무엇 때문에 숨길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세 사람 중 하나는 사라져야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아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여! 갈기갈기 찢어진 이 가슴속에서는 때때로, ‘당신 남편을 죽여 버릴까! —당신을 죽여 버릴까! —나를 죽여 버릴까!’ 하는 생각이 사납게 날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에 산을 오르게 되면, 그렇게도 자주 이 골짜기에 올라오던 내 모습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석양의 햇빛을 받으며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릴 때면, 교회 묘지 저편에 있는 내 무덤도 한번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침착했지만, 지금 나는 어린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이 내게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

밤 열 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렀고, 옷을 입으면서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날 것

이니, 옷들을 손질해 주고 짐을 꾸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지불할 계산서를 받아 오고, 빌려 준 책들도 찾아올 것이며, 몇몇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일마다 얼마씩 나눠 주던 돈 두 달분을 미리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자기 방으로 가져오라고 했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말을 타고 주무관 집으로 갔는데, 마침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정원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슬픈 추억들을 모두 차곡차곡 쌓아 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은 베르테르를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뒤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뛰어오르기도 하고, 내일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로테의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 올 것이라고도 하고, 또 아이들 상상력에 어울리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라!” 베르테르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그가 어린이들에게 다정한 키스를 해 주고 떠나오려 할 때, 한 작은 아이가 뭔가를 그의 귀에 속삭여 주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형들이 멋진 연하장을 아주 큼직하게! 써 놓았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한 장은 아빠에게, 한 장은 알베르트와 로테에게, 그리고 또 한 장은 베르테르 씨에게 썼는데, 그들은 그걸 설날 아침에 전해 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감격하여 베르테르는 아이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눠 주고 말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하고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베르테르는 다섯 시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녀에게 난롯불을 돌보게 하고, 밤중까지 꺼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에게는 책과 내복을 트렁크 아래에 잘 넣고 옷가지를 꿰매 두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다음 대목을 쓴 것 같습니다.

“설마 내가 오리라 기대하지는 않겠지요!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하여, 크리스마스 이브에나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오, 로테여!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신은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몸을 떨면서, 당신

의 다정한 눈물로 내 편지를 적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아,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는 동안에 로테는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베르테르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녀는 그와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또 베르테르가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알베르트가 있는 자리에서 로테는 지나가는 말로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베르테르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트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웃에 사는 관리에게 갔으며, 거기서 그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로테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동생도 하나 없었으며, 그래서 조용히 자기 처지에 관한 생각들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영원히 맺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남편의 사랑과 성실한 태도를 잘 알고 있고, 자신도 남편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침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은 건실한 아내가 그 위에 인생의 행복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늘이 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와 아이들에게 영원히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는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베르테르도 그녀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도 아름답게 서로 공감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지속된 그와의 교제와 이제까지 겪은 여러 가지 사연이 그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녀가 흥미롭게 느끼고 생각한 것을 모두 그와 함께 나누곤 했었는데, 그와의 작별이 이제 그녀의 온 존재에 다시 메울 수 없는 구멍을 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럴 때 베르테르를 오빠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베르테르를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결혼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알베르트와 그의 관계도 완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로테는 자기 친구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지만, 모두가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베르테르에게 어울릴 만한 여인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로테는 뭔가 분명치는 않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온

밀히 바라는 것은 베르테르를 자기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를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아서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이렸습니다. 순결하고도 아름다우며, 여느 때에는 무슨 일이든 그렇게도 쉽사리 경쾌하게 해치우던 그녀의 마음에도 행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우수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가슴은 짓눌린 채 답답했고, 두 눈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시간은 저녁 여섯 시 반이 되었으며, 그때 베르테르가 계단을 올라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테는 그의 발걸음 소리와 그녀를 찾는 그의 목소리를 당장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왔을 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테는 자기가 집에 없다고 그를 거절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걱정적으로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 “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 “그럼 최소한 제 간청은 들어주셔야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평화를 위해 간청했던 거예요.”

그녀는 베르테르와 둘이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가지고 온 책들을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로테는 마음속으로 친구들이 와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다른 한편 오지 말았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하녀가 돌아왔고, 친구는 둘 다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테는 하녀에게 옆방에서 일을 하며 앉아 있으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이내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로테는 피아노 옆으로 가서 미뉴에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베르테르의 옆에 가 앉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안락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뭐 읽으실 것 없으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기 제 서랍 속에” 하고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번역하신



오시안의 노래가 몇 편 들어 있어요. 아직 그걸 읽지 못했는데, 실은 당신이 직접 낭독하시는 걸 듣고 싶었어요. 그 이후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고, 그런 기회를 만드려고 하지도 않았어요.”—베르테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 노래 원고들을 꺼내 왔습니다. 그걸 손에 들자 몸이 떨려 왔고, 그걸 들여다보자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깊어 가는 밤하늘에 뜬 별이여, 그대는 서쪽 하늘에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구나. 찬란한 얼굴을 구름 속에 내밀어 보이며, 장엄하게 언덕 위를 흘러가는구나. 그대는 거친 황야 그 어느 곳을 비추는가? 사나운 바람도 잠잠해지고, 멀리서 속삭이는 시냇물 소리 들려오고, 암벽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데, 웅웅대는 밤벌레 소리 별판 위에 그윽하다. 아름다운 별빛이여, 그대는 어느 곳을 비추는가? 그대는 미소 지으며 떠나가 버리지만, 물결은 즐거이 그대를 끌어안고 사랑스런 머리카락을 적셔 주고 있구나. 잘 가거라, 고요한 빛이여. 나타나라, 너 오시안 영혼의 장엄한 빛이여!

그 빛이 이제 힘차게 나타나는구나. 헤어졌던 나의 옛 친구들이 다시 보인다. 흘러간 옛날처럼 로라 언덕 위에 다시 모였도다. —축축한 안개처럼 핑갈이 찾아오고, 그 주위에 그의 용사들이 모여든다. 그런데 보라! 노래 부르는 저 음유시인들을. 백발의 울린! 당당한 리노! 정다운 가수 알핀! 그리고 그대, 나직이 탄식하는 미노나를! —친구들이여, 셀마의 언덕에서 축제가 열린 이후, 그대들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그때 우리는 노래를 겨루어 영예를 얻고자 하였으니, 언덕 너머로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에 나직이 사랑대는 풀잎이 나부끼듯이.

그때 마침 아름다운 미노나의 모습이 나타났으니, 아래로 내리뜯 두 눈엔 눈물이 가득하고, 언덕으로부터 몰아치는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은 한없이 나부꼈도다. —미노나의 사랑스런 목소리가 울리자, 영웅들의 마음은 침울해졌노라. 그들은 노래에서 때로 살가르의 무덤을 보기도 하고, 창백한 콜마의 음산한 집을 보기도 했기 때문이니라. 콜마, 조화로운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언덕 위에 홀로 버려졌노라. 살가르가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했건만, 사방에는 어두운 밤만이 밀려왔도다. 언덕 위



에 홀로 앉은 콜마의 목소리를 들어 보라.

## 콜마

캄캄한 밤! —폭풍우 몰아치는 이 언덕 위에서, 나 홀로 길 잃은 채 헤매고 있어요. 바람은 산중에서 사납게 울부짖고, 암벽에선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요. 비바람 휘몰아치는 언덕에 홀로 버림받은 나, 내겐 비를 피할 오두막조차 없구나.

오, 달여, 구름을 헤치고 나타나 다오! 밤하늘의 별들이여, 비추어 다오! 한줄기 빛이라도 내 사랑하는 님이 사냥에 지쳐 쉬고 있는 곳으로 날 이끌어 다오. 시위 늦춰진 활을 옆에 놓고, 사냥개들 헐떡이며 그를 에워싸고 있는 곳으로. 그런데 난 여기 잡초가 우거진 강가의 암벽 위에 홀로 앉아 있구나. 소란스런 물소리와 바람 소리에,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구나.

나의 살가르는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자기가 한 약속을 잊었던 말인가? —저기엔 암벽과 나무가 있고, 여기엔 속삭이는 듯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당신은 이곳으로 오겠노라 약속했지요. 아아! 나의 살가르는 어느 곳을 헤매고 있을까? 나는 당신과 도망치기 위해, 완고한 아버지와 오빠들을 버렸어요! 우리들 집안은 오래전부터 원수지간이지만, 오, 살가르, 우리는 원수가 아니랍니다!

오, 바람아, 잠시만 조용해 다오! 오, 강물아, 잠시만 멈추어 다오! 내 목소리 계곡으로 울려 퍼져, 길 잃은 내 님이 들을 수 있도록. 살가르여, 저 여기서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어요! 내 사랑, 살가르! 저 여기에 있어요. 어인 일로 당신은 오기를 주저하시나요?

보세요, 달빛이 나타나고, 골짜기에는 냇물이 반짝이며, 언덕 위에는 잿빛 암벽이 우뚝 솟아 있어요. 하지만 이 높은 곳에서도 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냥개들도 앞서 달려와 그의 도착을 알려 주지 않는구나. 그래, 나 홀로 여기 앉아 있어야만 하는군요.

그런데 저 아래 황야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내 님인가? 나의 오빠인가? —오오, 다정한 분들이여, 말 좀 해 줘요! 그네들은 아무 대답이

없고, 내 마음은 한없이 불안하구나! —아아, 그들은 죽은 것이로구나! 그들의 칼은 결투로 빨갛게 물들어 있구나! 아, 오빠, 나의 오빠여! 어찌하여 나의 살가르를 죽이셨나요? 아, 나의 살가르여! 어찌하여 당신은 오빠를 죽이셨나요? 두 분 모두가 제겐 너무나 소중한데! 오오, 당신은 언덕 위의 수많은 용사들 중 가장 아름다웠는데! 전투할 때에는 누구보다 무서웠지요, 대답해 주세요! 그리운 이들이여! 제 목소리를 들어 주소서! 그러나 아아! 그들은 말이 없네! 영원토록 침묵을 지키는구나! 당신들의 가슴은 흙덩이처럼 차갑군요!

오오, 언덕의 암벽으로부터, 비바람 몰아치는 산봉우리에서 말해 다오, 죽은 이들의 정령들이여! 말해 다오! 내 결코 겁내지 않으리니! —그대들은 어느 곳에서 쉬고 있는가? 산속 어느 무덤에서 나 그대들을 찾을 수 있을까? —세찬 바람 소리에 희미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언덕의 폭풍 속에 나부끼는 대답조차 들리지 않네요.

나는 슬픔에 잠긴 채 여기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아침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 죽음의 친구들이여, 무덤을 파 다오. 그러나 내가 갈 때까지는 흙을 덮지 말아 다오. 내 인생도 꿈처럼 사라질 것이니, 내 어찌 홀로 뒤에 남아 있겠는가? 울어 대는 암벽에 흐르는 냇가에서, 나 여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리라. — 언덕 위에 어두운 밤이 깃들고, 광야에 바람이 휘몰아치면, 내 낮은 바람 속에 나부끼며 내 친구들의 죽음을 슬퍼하리라. 사냥꾼이 산장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소리를 좋아하게 되리라. 친구들을 슬퍼하는 내 목소리 달콤하게 울리리니, 나 그들 두 사람을 그다지도 사랑했노라!

오오, 미노나, 살며시 얼굴 붉히는 토르만의 딸이여, 이것이 그대의 노래였노라. 콜마를 위해 눈물이 흘러내리니, 우리들의 영혼도 침울해지는구나.

울린은 하프를 들고 나와 알핀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알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리노의 영혼은 불빛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좁은 무덤 속에 쉬고 있으니, 그네들의 목소리는 셀마에서 사라져 갔다. 그 용사들이 전사하기 전 언젠가 울린이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언덕 위에서 다투어 부르는 용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 노래는 부드럽지만 비장했으니, 용사 중의 용사인 모라르의 죽음을 탄식했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은 핑갈의 영혼과 같았고, 그의 칼은 오스카의 칼과 같았노라. —그러나 그는 전사했고, 그의 아버지는 슬픔에 잠겼으며, 누이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노라. 훌륭한 용사 모라르의 누이동생 미노나의 눈에 눈물이 흘렀노라. 올린의 노랫소리 울리기 전에 미노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으니, 그 모습은 마치 서편의 달이 폭풍우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아름다운 그 얼굴 구름 속으로 숨기는 것과 같도다. —나는 올린이 부르는 슬픈 노래에 맞춰 하프를 탔노라.

### 리노

비바람은 지나가고, 한낮이 명랑하게 개며, 구름은 산산이 흩어지는구나. 정처 없는 태양이 언덕 위로 달아나며 햇빛을 비춰 주고, 산속 시냇물은 계곡을 따라 불게 물들어 흐르고 있네. 냇물이며, 졸졸 흐르는 너의 소리 달콤하지만, 내게 들리는 목소리 더욱 달콤하구나. 그것은 알핀의 목소리, 그는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고 있노라. 그의 머리는 나이가 들어 구부러지고, 눈물 어린 두 눈도 빨갛게 물들었노라. 알핀, 훌륭한 가수여! 어찌하여 말 없는 언덕 위에 혼자 있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숲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먼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슬퍼하고 있는가?

### 알핀

리노여, 내 눈물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내 목소리는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로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대 모습은 날씬하고, 광야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구나! 그러나 그대도 모라르처럼 전사할 것이며, 그대 무덤가에도 슬퍼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리라. 언덕은 그대를 잊을 것이며, 그대 활은 화살도 메기지 않은 채 홀 안에 그냥 놓여 있으리라. 오오, 모라르여, 그대는 언덕을 달리는 사슴처럼 빠르고, 밤하늘의 불꽃처럼 무시

무시했노라. 그대의 분노는 폭풍우 같았고, 싸움터에서 그대 칼은 광야를 지나는 번개와 같았노라. 그대 목소리는 비가 온 뒤의 숲 속 냇물 소리 같고, 먼 언덕 위에 울리는 우렛소리 같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대 손에 쓰러졌고, 그대 분노의 불길 이 그들을 삼켰노라. 그러나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대 표정은 얼마나 평화로웠던가! 그대 얼굴은 소나기 지난 다음의 태양과도 같았고, 고요한 밤의 달빛과도 같았도다. 그대 가슴은 사나운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고요했노라.

이제 그대의 집은 너무나 비좁고, 그대 안식처는 너무나 캄캄하구나! 오오, 그대여! 예전에 그대는 것처럼 위대했건만, 그대 무덤은 세 걸음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끼 낀 네 개의 망두석만이 그대를 기억나게 해 줄 뿐이구나. 잎이 다 떨어진 나무, 바람결에 나부끼는 무성한 풀들만이, 용맹스러웠던 모라르의 무덤임을 사냥꾼의 눈에 알려 주는구나. 그대를 위해 울어 주는 어머니도 없고, 사랑의 눈물을 흘려 주는 처녀 하나 없구나. 그대를 낳아 준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모르글란의 딸들도 전사하고 말았노라.

저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자는 누구인가? 나이 탓으로 머리는 백발이 되고, 눈물로 두 눈이 붉어진 저 사람은 누구인가? 오오, 모라르여! 그는 그대의 아버지, 그대밖에는 자식이 없는 아버지라오! 그는 전쟁터에서의 그대 명성을 들었고, 먼 처처럼 흠어진 적들의 이야기도 들었도다. 모라르의 명성에 대해 듣고 있었노라! 아아! 그런데 그가 입은 상처 이야기는 듣지 못했던가? 울어라, 모라르의 아버지여, 울어라! 그러나 아들은 당신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의 잠은 깊고, 그들이 벤 흙 베개는 낮게 묻혀 있나니.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무리 불러도 결코 깨어나지 못하리라. 오오, 이 무덤에는 언제 아침이 돌아와, 잠자는 자에게 깨어나라!고 외치게 되려나.

잘 자거라, 인간들 중 가장 고귀한 자여! 그대 전쟁터의 정복자여!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그대를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어두운 숲도 그대 강철 검 광채로 다시는 빛나지 못하리라. 그대는 아들 하나 남겨 놓지 않았지만, 이 노래가 그대 명성을 보존하리라. 훗날에도 길이길이 그대에 대해서, 전사한 모라르에 대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리라. —

용사들의 비탄의 소리가 드높았지만, 가슴 터지는 듯한 아르민의 한숨 소리 가장 드높았노라. 그는 청춘의 나이에 전사한 아들의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그 이름 드높은 갈말의 영주 카르모르는 용사들 가까이에 앉아 있었노라. ‘탄식하는 아르민은 무엇을 그리도 슬퍼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했노라. ‘대체 눈물 흘릴 일이 무엇이더냐? 냇을 위로하는 즐거운 노랫소리 울리지 않는가? 그 노랫소리 호수에서 골짜기로 피어오르는 부드러운 안개와도 같구나. 그 습기가 피어나는 꽃들을 축축이 적셔 주는구나. 그러나 힘차게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다시 사라지고 말지어다. 사방이 호수로 둘러싸인 고르마의 지배자 아르민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그리도 슬퍼하는가?’

‘슬프구나! 나 지금이 슬픈 건 사실이지만, 내 슬픔의 이유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카르모르여, 그대는 아들 하나 잃어 보지 않았고, 꽃다운 딸도 잃어 본 적도 없소. 용감한 콜가르도 살아 있고, 가장 예쁜 처녀 안나라도 살아 있소. 오오, 카르모르여, 그대 집안의 가지는 꽃이 필 것이오. 그러나 이 아르민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라고. —오오, 다우라야! 너의 잠자리가 캄캄하구나. 무덤 속에서 자는 너의 잠도 음침하겠구나. —너는 언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며 깨어나려 하느냐? 일어나라! 가을바람이여, 어서 불어라! 침울한 광야 위로 휘몰아쳐라! 숲 속의 거센 물결이여, 쇄쇄 쏟아져라! 폭풍이여, 떡갈나무 꼭대기에서 울부짖어라! 오오, 달이여, 찢어진 구름 사이를 흘러가며, 창백한 네 모습을 다시금 보여 주려마! 내 아이들이 숨진 그 끔찍한 밤을 회상시켜 다오! 용감한 아들 아린달이 전사하고, 귀여운 딸 다우라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을.

내 딸 다우라야, 넌 참으로 예뻤다. 푸라 언덕에 떠오른 달처럼 예쁘고, 내리는 눈 같이 살결이 희고, 숨 쉬는 공기처럼 달콤했다! 내 아들 아린달아, 전쟁터에서 네 활은 강했고, 너의 창은 쏘살처럼 빨랐다. 너의 눈길은 파도 위의 안개와 같고, 너의 방패는 폭풍 속의 불구름 같았노라!

전쟁터에서 이름을 떨친 아르마르가 찾아와, 다우라의 사랑을 구했고, 다우라도 오랫동안 거절하지는 않았지. 친구들의 희망도 아름답게 부풀어 올랐고.

오드갈의 아들 에라트는 분노하고 있었으니, 아르마르의 칼에 그의 형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에라트는 뱃사공으로 변장하고 돌아왔노라. 그의 배는 파도 위에 아름답게 넘실거리고, 고수머리는 늙어서 백발이 되었는데, 진지한 그의 표정만은 평온했네. ‘치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치녀여’ 하고 그가 말했노라. ‘아르민의 사랑스런 딸이여, 저기 저 암벽 위에, 그리 멀지 않은 저 바다 한가운데, 빨간 나무 열매가 반짝이는 그곳에서, 아르마르가 그대 다우라를 기다리고 있소. 아르마르의 연인인 그대를 데리러 내가 물결치는 바다를 건너온 것이요.’

다우라는 그를 따라가 아르마르를 불렀지만, 암벽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노라. ‘아르마르! 사랑하는 내 님! 그리운 그대여! 어찌하여 당신은 날 이다지도 애타게 하시나요? 들어 보소서, 아르나트의 아들이여, 들어 보소서! 다우라가 와서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배신자 에라트는 미소 지으며 육지로 도망쳤노라. 다우라는 목소리를 드높여, 아버지를 부르고 오빠를 불렀다오. ‘아린달이여! 아르민이여! 다우라를 구해 줄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 바다를 건너 울려왔다오. 그때 내 아들 아린달이 거칠게 사냥질을 하다 언덕을 뛰어내려 왔노라. 허리에 찬 화살이 덜렁거리고, 손에는 활을 들고 있었으며, 다섯 마리의 짙은 회색 사냥개가 그를 둘러쌌노라. 해변에서 뻔뻔스런 에라트를 발견하고는, 그를 붙잡아 딱갈나무에 매어 놓으니,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인 포로는, 바람결에 신음 소리만 내지를 뿐이로다.

아린달은 다우라를 데려오려고, 배를 타고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다오. 그때 격분한 아르마르가 와서, 회색 깃털이 달린 화살을 쏘았으니, 그 화살은 웅웅 소리를 내며 너의 가슴에 박혔구나. 오, 나의 아들, 아린달이여! 배신자 에라트 대신 네가 죽다니. 배는 암벽에 도달했으나, 아린달은 그곳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노라. 네 발 밑에 오빠의 피가 흘렀으니, 오, 다우라야, 너의 슬픔이 오죽했겠느냐!

사나운 파도가 배를 부숴 버렸소. 아르마르가 바다로 뛰어들었으니, 다우라를 구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죽기 위해서인가. 이때 언덕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파도 속에 몰아쳤고, 아르마르는 물속으로 가라앉더니, 다시는 떠오르지 못했다오.

파도치는 암벽 위에 나 홀로 서서 내 딸의 탄식을 듣고 있었소. 외치는 소리 애절

하게 드높았지만, 아버지는 딸을 구할 길이 없었다오. 밤새도록 바닷가에 서서 나는, 희미한 달빛 속에서 내 딸을 보고 있었소. 밤새도록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오. 바람 소리 요란하고, 세찬 비가 산허리를 내려치고 있었소. 아침이 되기 전에 딸의 목소리가 약해지더니, 다우라는 암벽의 풀밭 사이에서 저녁 바람처럼 죽어 사라졌다고. 슬픔에 싸인 채 내 딸은 가 버리고, 이 아르민만 홀로 남겨놓았소! 전쟁터에서 강했던 내 힘도 사라지고, 처녀들 사이에서의 내 자랑도 없어지고 말았구나.

산에서 폭풍우가 불어칠 때면, 북풍이 파도를 드높이 몰아칠 때면, 나는 노호하는 바닷가에 앉아 저 끔찍한 암벽을 바라본다오. 기울어 가는 달빛 속에 나는 종종 내 자식들의 망령을 보나니, 그 아이들은 가련하게도 사이 좋게 어울리며 가물가물 어스름 속을 배회하고 있다오.”

로테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짓눌렸던 가슴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베르테르는 낭송하던 노래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 원고를 내던지고 그녀의 손을 잡고는 쓰디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테는 다른 한 손에 몸을 기대고,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의 감동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인물들의 운명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았으며 그들과 함께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로테의 팔에 닿아 있던 베르테르의 입술과 두 눈이 불길처럼 타올랐으며, 로테는 온몸을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빼려 했지만, 마음의 고통과 동정하는 마음이 그녀를 마비시키며 납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고 정신을 가다듬은 그녀는 흐느끼며 베르테르에게 계속 낭송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천사와도 같은 목소리로 애원했던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몸이 부르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원고를 집어 들고 애끓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봄바람아, 어찌하여 나를 깨우는가? 너는 아양을 떨면서 ‘하늘의 이슬방울로 축

축이 적서 주려 하노라!’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시들어 갈 시간이 멀지 않고, 내 잎들을 떨쳐 버릴 폭풍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나니!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고 갔던 나그네가 내일 다시 돌아와 이리저리 들판을 둘러보며 나를 찾겠지만, 나를 다시 만나지는 못하리라. —”

이 노래의 힘찬 위력이 불행한 베르테르를 압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로테 앞에 몸을 던지더니,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자기 눈과 이마에 비벼 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는 베르테르가 뭘 하려는지에 대한 무시무시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테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슬픔에 젖은 채 그에게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불타는 듯한 그들의 뺨과 뺨이 서로 맞닿았습니다. 순간 그들에게는 온 세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베르테르는 두 팔로 로테를 품에 끌어안았으며, 말을 더듬으며 떨고 있는 그녀의 입술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베르테르! 베르테르 씨!” 그녀는 몸을 돌리면서 숨 막힐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힘없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떠밀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그녀는 고귀한 감정에서 나온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금 외쳤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고 자기 품에 안고 있던 그녀를 풀어 주고는 정신없이 그녀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로테는 얼른 일어나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런 마음에 사랑과 분노로 몸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씨! 다시는 절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고는 가련한 베르테르를 사랑으로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더니 급히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를 향해 두 팔을 뻗었지만, 감히 그녀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안락의자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삼십 분 이상이나 꼼짝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인기척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녀가 들어와 식사 준비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옆방 문 앞으로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테! 로테 씨! 한 마디만 하겠소! 안녕이란 작별 인사요!”—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



다리다가 애원하고 또 애타게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몸을 뿌리치듯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안녕, 로테여! 영원토록 안녕!”

베르테르는 시내 성문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미 그를 잘 알고 있던 파수꾼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열한 시경에야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르테르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인은 주인이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감히 그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옷만 벗겨 주었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의 모자는 나중에 산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비탈진 언덕 위의 바위 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캄캄하고 진눈깨비 내리는 밤에 그가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부름을 받고 커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베르테르는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로테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 내용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이 눈을 떴습니다. 아아, 이 두 눈은 다시는 태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둡고도 짙

게 안개가 낀 날이라서 태양도 가려

져 버렸습니다. 자연이여, 슬퍼해

다오! 그대의 아들, 그대의 친구,

그대의 연인이 종말을 향해 다

가가고 있다오. 로테여! 이것

은 정말 무엇과도 비길 데 없는

느낌입니다. 마치 몽롱한 꿈을

꾸는 것과 아주 가깝습니다. 나

는 이것이 마지막 아침이라고 혼

자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아침이라!

로테 씨,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



로테의 팔을 잡고 얼굴을 비비는 베르테르.

습니다. 마지막 아침이라! 지금 나는 힘이 넘쳐 여기 서 있지 않나요? 그런데 내일은 사지가 축 늘어진 채 땅바닥에 누워 있겠지요. 죽음이라!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너무나 제한된 존재라서, 자기 존재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나의 이 존재는 지금은 아직 내 것이요, 당신의 것입니다! 오오, 사랑하는 님이여, 당신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에—서로 헤어져 이별을 하게 되다니요. —혹시 영원히 이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로테여, 절대 아닙니다. —내 어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당신이 어찌 사라질 수 있으리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공허한 음향일 따름입니다. 내 가슴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답니다. —로테여! 죽는다는 건 차가운 흙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대답하게! 그렇게도 캄캄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어린 시절,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여자 친구가 있었지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나는 그 시신을 따라가 무덤 앞에 서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관을 아래로 내리더니, 관 밑에서 밧줄을 쑥쑥 뽑아내어 재빨리 다시 위로 올리더군요. 첫 번째 삼질을 하자 흙덩이가 아래로 떨어지고, 불안을 느낀 듯 관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나왔으며, 그 소리가 점점 둔해지고 약해지더니 마침내는 완전히 다 덮어 버리고 말더군요! —나는 그만 무덤 곁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흥분되고 불안하여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죽음! 무덤! 난 이 말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 용서해 줘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제 일을 말입니다! 어제가 내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아아, 천사 같은 그대여!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아무런 의문 없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환희의 감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날 사랑한다! 그녀가 날 사랑해!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성스러운 불길이 아직도 내 입술에 타고르고 있다고. 새롭고도 뜨거운 환희가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날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아,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정감에 가득 찬 첫 눈길을 보고 알았고, 첫 번째 악수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당신 곁을 떠나왔을 때나, 알베르트가 당신 곁에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열병 같은 의혹에 빠져 다시금 절망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내 주신 그 꽃을 기억하시나요? 언젠가 그 유쾌하지 못했던 모임에서 당신이 내게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고 악수도 할 수 없었을 때 보내 준 꽃 말입니다. 아아, 그날 밤 나는 밤중까지 그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그 꽃이 내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아! 그런 감동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성스러운 계시를 눈으로 보고 하늘 가득히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던 신앙인의 마음에서 그 은총에 대한 감동이 점차 다시 사라지듯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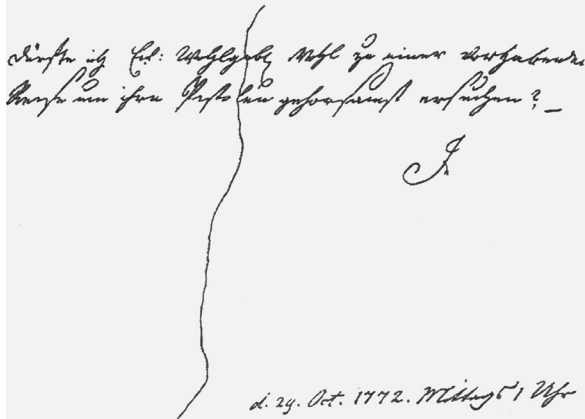
세상만사는 덧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어제 당신의 입술에서 맛보았고, 지금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는 이 타오르는 생명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날 사랑한다! 이 팔로 그녀를 포옹했고, 이 입술은 그녀의 입술에 닿아 떨어졌으며, 이 입이 그녀의 입술을 더듬었다. 그녀는 나의 것이다! 그래요, 로테, 영원토록 내 것입니다.

알베르트가 당신 남편이라는 것, 대체 그게 어떻게 말입니까? 남편이라! 그렇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의 일일 뿐이겠지요.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의 품에서 당신을 빼앗으려는 것도 이 세상에서 죄가 되겠지요? 죄라고요? 좋습니다. 나 스스로 자신에게 벌을 주겠습니다. 나는 천상의 환희 속에서 그 죄를 맛보았으며, 이 죄를, 생명의 향기와 힘을 내 가슴에 다 빨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순간부터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오, 로테여!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곁으로, 당신의 (‘아버지’ 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 즉 하느님을 뜻한다—옴긴이) 곁으로. 나는 아버지께 이 일을 호소할 것이며, 아버지께선 당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로해 줄 겁니다. 당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로 날아가 당신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느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포옹을 한 채 당신과 함께 머무를 겁니다.

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 가까이에 이르니 내 정신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어머니를 만나 될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찾아, 아아, 어머니 앞에 내 마음을 전부 털어놓을 겁니다! 당신 어머니께, 당신 모습 그대로인 그분에게.”

밤 열한 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알베르트가 돌아왔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인은 그가 말을 끌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하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봉하지 않은 채 건네주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권총을 좀 빌려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Ich bin dir: Albrecht! Ich zu einem anderen  
 Briefe mir ihre Briefe zu schreiben, aufzuheben? -  
 I  
 d. 24. Oct. 1842. Charlotte's Brief

케스트너에게 권총을 빌려 달라고 쓴 예루살렘의 편지.

사랑스러운 부인 로테는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리라고는 예감도 못하고 두려워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순수하고 조용히 흐르

던 피가 열병을 앓듯이 몹시 요동치기 시작하고, 수천 가지 감정들이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로테가 가슴속 깊이 느낀 것은 베르테르의 포용으로 생겨난 불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대한 불쾌감이었을까요? 또는 어디까지나 천진난만하고 자유롭고 순진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을 믿고 살던 옛날에 비해 현재의 상태가 불만스럽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고백해도 좋을 일이라면, 감히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장면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들 부부는 벌써 오랫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 왔는데,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깨고 적당치도 않은 때에 남편에게 얘기치도 못했던 일을 털어놓아야만 할까요? 전에는 베르테르가 찾아왔었다는 소식만으로도 남편에게 불쾌한 인상을 남기거나 앓을까 염려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얘기치 못했던 파국적인 사건을 고백해야만 하다니요! 그러면 남편이 정말 올바른 생각으로 그녀를 보아 주고, 아무런 편견 없이 그녀를 이해해 주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그녀의 심정을 충분히 읽어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더욱이 투명한 유리처럼 언제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왔으며,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고 또 숨길 수도 없는 남편에게 거짓으로 꾸며 댈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걱정스러워지며,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테의 생각은 언제나 베르테르에게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로서는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잃는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로테는—유감스럽게도!—그냥 그 자신에게 맡겨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녀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그들 부부 사이의 막혀 버린 상태가 지금은 로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것처럼 이해심이 많고 것처럼 선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침묵을 지키게 되었고, 제각기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서로 형클어지고 악화되어서, 결국 모든 것이 결린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매듭을 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서로 행복했던 신뢰감으로 그들이 좀 더 일찍이 가까워졌더라면, 그들 사이의 사랑과 관용이 활발하게 살아나 서로

의 마음이 확 열려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의 친구 베르테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이상한 상황이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 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르테르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소망을 결코 비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알베르트도 가끔 베르테르와 그것을 두고 논쟁을 했고, 로테와 그녀 남편 사이에서도 때때로 그런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자살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알베르트는 평소 그의 성격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자살을 꾀하는 진의에 대한 동기부터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짓에 대해 어느 정도 야유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금도 믿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로테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로테의 생각이 비애에 찬 장면을 연상할 때에는 그녀를 진정시켜 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간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근심 걱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 없도록 만 들기도 했습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오자 로테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명랑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웃에 사는 관리가 정말 완고하고 소심한 인간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길이 좋지 못해서 기분이 더욱 안 좋았던 것입니다.

알베르트가 아무 일도 없었느냐고 묻자, 로테는 성급하게도 어제저녁에 베르테르가 왔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편지 온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편지와 소포 몇 개를 방에 갖다 놓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건너가 버렸고, 로테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돌아와 있으니, 그녀의 마음은 아주 새로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귀한 마음씨와 사랑과 친절함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더욱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따르려는 충동을 느낀 로테는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일거리를 들고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소포를 뜯고 편지를 읽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 섞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테가 몇 가지 질문을 하자 그는 간단히 대답하고는 책상 옆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시간 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데, 로테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기분이 아주 좋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을 그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들었고, 그런 기분을 숨기고 눈물을 억제하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베르테르가 보낸 어린 하인이 찾아왔을 때, 로테는 너무나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인이 알베르트에게 쪽지를 전하자, 그는 침착하게 자기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권총을 내줘요.”—그리고 하인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로테에게 마치 벼락 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다 비틀거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가서 그녀는 몸을 떨면서 권총을 내려 먼지를 털어냈지만, 그래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알베르트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재촉하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로테는 한 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하인에게 그 불길한 무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집을 나가자 그녀는 하던 일을 거두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해하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갖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장 남편의 발치에 엎드려 어젯밤의 일과 자신의 잘못과 예감 등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남편에게 베르테르한테 가 보라고 설득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무엇을 좀 물어보려고 왔다가 곧 가려고 했지만, —그냥 머물게 되어서 식사하는 동안 함께 이런저런 건달 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속에 없는 말을 지껄이기도 하며, 자신을 잊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어린 하인이 권총을 가지고 베르테르에게 돌아왔습니다. 로테가 손수 권총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르테르는 황홀한 기분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하고, 하인에게 식사하러 가라고 한 다음, 자리에 앉아 편

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총은 당신의 손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이 먼지를 털어 냈군요. 당신의 손길이 닿았기에, 나는 수없이 이 권총에 키스를 했답니다. 하늘의 정령이여, 그대는 내 결심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 로테여, 당신이 이 권총을 건네주었어요. 당신의 손에서 죽음을 받고자 그렇게 소망했었는데, 아아, 이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아아, 하인에게 모든 걸 다 물어보았지요. 권총을 건네줄 때 당신은 몸을 떨면서, 작별 인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슬프니다! 슬프니다! 안녕이란 말 한 마디 없으시다니! —나를 영원히 당신에게 붙잡아 뒀던 그 순간 때문에, 당신은 내게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려야만 했나요? 로테여, 수천 년이 지나도 그런 감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 이토록 불타고 있는 사람을 당신이 미워하지는 않으리라 느끼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짐을 완전히 다 꾸리라 이르고, 여러 가지 서류를 찢어 버리고는 외출해서 남아 있던 약간의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비가 내리는데도 다시

성문 앞을 지나 백작의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훨씬 더 멀리까지 그 부근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밤이 깊들 무렵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빌헬름이여, 나는 마지막으로 들과 숲과 하늘을 바라보았네. 자네도 잘 지내게 바라네!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베르테르의 하인에게 권총을 건네주는 로테.



빌헬름, 어머니를 위로해 주게!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내 물건은 모두 정리해 놓았네. 그럼 잘 있게! 우리 저세상에서 다시,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로 하세!”

“알베르트 씨, 난 당신에게 배운망덕한 일을 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 부부 사이에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아, 내가 죽음으로써 당신들이 부디 행복해지기를 빕니다! 알베르트! 알베르트여! 그 천사 같은 여인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도 하느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그날 밤에도 베르테르는 이것저것 서류들을 들춰내더니, 많은 것들은 찢어서 난로 속에 던져 버리고, 몇 개의 소포 문치는 빌헬름의 주소를 써서 봉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찢막한 글이나 단편적인 감상을 써 놓은 것인데, 편집자인 저도 그중 여러 가지를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열 시경에 그는 난롯불을 더 지피고 포도주를 한 병 가져오도록 하고는 하인은 자러 가라고 보냈습니다. 하인의 방은 그 집 사람들의 침실과 마찬가지로 훨씬 뒤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를 하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우편 마차가 새벽 여섯 시 전에 집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밤 열한 시가 지나서.

사망의 모든 것이 조용하고, 내 영혼도 아주 고요합니다. 하느님이시여,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파스함과 이러한 힘을 베풀어 주신 당신께 감사하나다.

사랑하는 로테여,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달아나듯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영원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따오! 그래, 너희 별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으리라! 영원한 하느님이 너희들을, 그리고 나를, 그분의 가슴에 품어 주시리라. 나는 수많은 별들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큰곰자리의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당신과 헤어져서

집 문을 나서면, 저 별은 언제나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난 얼마나 황홀한 기분으로 저 별을 바라보곤 했었던가!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저 별을 현재의 내 행복에 대한 증표로, 성스러운 표지로 삼곤 했던가! 그런데 지금도, 오오, 로테여, 당신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난 성스러운 당신의 손길이 닿은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린이처럼 모두 탐욕스럽게 굶어모으지 않았던가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실루엣이오! 당신에게 이것을 돌려 드리려 합니다. 로테여, 부디 이를 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루엣에 나는 수천 번, 수만 번이나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도, 집으로 돌아와서도 수없이 눈길을 보내며 인사를 했지요.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짝박한 편지를 써서 내 시신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 묘지에는 들판을 향한 뒤쪽 구석에 보리수나무가 두 그루 서 있어요. 난 그곳에 잠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친구인 나를 위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경건한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의 육신을 이 가련하고 불행한 자의 시신 곁에 묻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아, 차라리 나는 어느 길가에나 어느 한적한 골짜기에 묻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제들이나 레위 인들이<sup>1</sup> 색다른 내 묘석 앞에 축복을 내리면서 지나갈 것이고, 사마리아 인들은 한 방울쯤 눈물도 흘려 주겠지요.

보십시오, 로테! 나는 이 차갑고 끔찍한 잔을 들고, 죽음의 도취를 마시려 하면서도 전혀 떨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잔을 건네주었으니,<sup>2</sup>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두! 모두가! 이렇게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모두 다 이루어졌소! 이렇듯 냉정하게, 이렇듯 완고하게 죽음의 철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는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로테여,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다시 찾아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용감

1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누가복음> 10장 31~34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참조할 것.

2 <요한복음> 18장 11절 참조.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히, 기쁜 마음으로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음을 통해 친구들에게 몇 백배 새로운 생명의 불을 피워 준다는 것은 소수의 숭고한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일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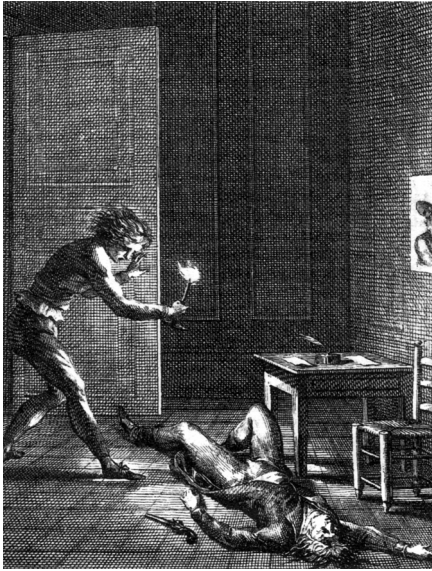
로테여, 난 이 옷을 입은 채로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아 성스러워진 옷이니깐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께도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내 영혼이 이미 관 위를 맴돌고 있대요. 누구도 내 주머니를 뒤져서는 안 됩니다. 색 바랜 이 연분홍 리본은 내가 아이들에 둘러싸인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이 가슴에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아, 그 아이들에게 수천 번이라도 키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행한 친구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들은 늘 내 곁에 모여들곤 했었지요. 아아,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단단히 매어져 있었던가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본을 함께 묻어 주십시오. 내 생일날 당신이 보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얼마나 탐냈던가요! —아아, 그러나 내 인생길이 이곳으로 통하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

총알은 재여 있습니다. —열두 시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럼! —로테! 로테여, 안녕! 안녕!”

이웃 사람이 화약 터지는 불빛을 보았고 총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섯 시에 하인이 불을 켜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쓰러진 주인을 발견하고, 권총과 흐른 피를 보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주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꾸르륵 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하인은 의사에게로, 또 알베르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로테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깨웠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인이 울부짖으며 더듬더듬 그 소식을 전하자, 로테는 정신을 잃고 알베르트 앞에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불쌍한 베르테르에게 달려왔을 때, 이미 그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소생할



방바닥에 쓰러진 주인을 발견하는 하인.

가망이 없었습니다. 아직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사지는 모두 뻣뻣하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위의 머리를 쓰았기 때문에 뇌수가 밖으로 터져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팔의 정맥을 찌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피가 묻은 것으로 보아 베르테르는 책상 앞에 앉아서 자살했고, 그 다음 아래로 굴러떨어져 의자 주위를 경련을 일으키며 뒹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 창

문 쪽을 향해 반듯이 누웠는데, 파란 연미복에 노란 조끼로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장화도 신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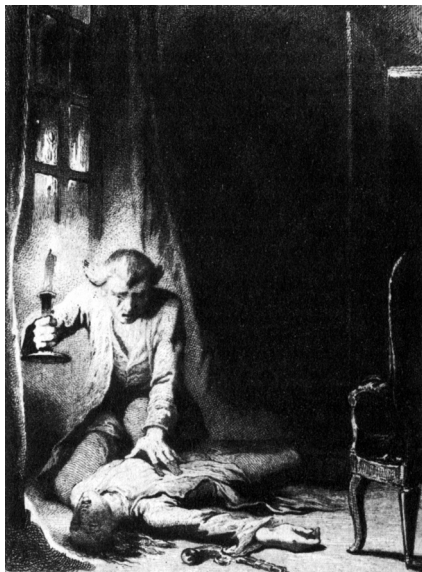
집 안이고 이웃이고 할 것 없이 온 시내가 발각 뒤집혔습니다. 알베르트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베르테르를 침대에 눕혀 놓고 이마를 동여매 놓았지만,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 같았고 사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폐만이 아직 지독스레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것도 약해졌다 강해졌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임종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포도주는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에밀리아 갈로티><sup>3)</sup>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베르트가 당황해하는 것이나 로테가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3 독일 계몽주의 작가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이 쓴 시민 비극 <에밀리아 갈로티(Emilia Galotti)>. 이 작품에서 에밀리아는 자신이 공작의 정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자신의 도덕적 존엄을 지키기 위해 위임에 의한 자살을 결행한다.

늙은 주무관이 소식을 듣고 달려 왔으며, 죽어 가는 사람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했습니다. 그의 큰 아이들도 곧 아버지를 뒤따라와서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베르테르의 손과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베르테르가 가장 사랑했던 첫째 아들은 그가 숨을 거두었는데도 그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억지로 그 아이를 떼어 내야만 했습니다. 낮 열두 시에 베르테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무관이 자리



죽어가는 베르테르를 진찰해 보는 의사.

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열한 시경에 그는 베르테르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 시신을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늙은 주무관과 그의 아들들이 유해를 뒤따라갔지만, 알베르트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테의 생명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시신을 메고 갔습니다. 성직자는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 작가 연보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49.8.28~1832.3.22)

1749년 8월 28일 요한 볼프강 괴테(Johann Wolfgang Goethe)는 마인 강변의 프랑크 푸르트에서 법학박사이자 황실 고문관인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 괴테(Johann Kaspar Goethe)와 텍스토르(Textor)가(家) 출신의 어머니 카타리나 엘리자베트(Katharina Elisabeth)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남.

1750년 12월 7일 여동생 코르넬리아(Kornelia) 태어남.

1752년(~55년) 유치원에 다님.

1755년 암 그로센 히르쉬그라벤가(街)에 있는 생가(生家) 개축. 부친의 감독 하에 개인교습을 받기 시작함. 11월 1일, 리사본에 지진이 일어나자 괴테는 종교적 충격을 받음.

1759년 1월(~63년 2월) 프랑스군(軍)이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함. 토랑(Thoranc) 백작이 괴테의 생가에 숙영(宿營).

1764년 4월 3일 요셉 2세(Joseph II)가 신성로마제국의 독일 황제로 즉위. 괴테는 관람객들 틈에 끼여 대관식을 구경함.

1765년 10월(~68년 8월) 라이프치히 대학에 다님. 술집 처녀 쉰코프(Kätschen Schönkopf), 베리쉬(Behrisch), 미술학교 교장 외저(Öser)등과 사귀.



괴테의 아버지 요한 카스파 괴테(위)와 어머니 카타리나 엘리자베트 괴테



《아네테 가요집(Das Buch Annette)》, 《연인의 변덕(Die Laune des Verliebten)》 발표.

1768년 7월 심한 병에 걸림.

8월 28일 라이프치히를 떠남.

9월(∼70년 3월) 와병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요양함.

어머니의 친구인 경건주의자 클레텐베르크(Susanna von Klettenberg)와 사귀.

《동죄자(同罪者)들(Die Mitschuldigen)》 발표.

1770년 4월(∼71년 8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 다님.

9월(∼71년 4월) 헤르더(Johann G. Herder)가 슈트라스부르크에 체류.

10월 처음으로 세젠하임 방문. 브리온(Friederike Brion)과 알게 됨.

1771년 《프리데리케 브리온을 위한 시(Gedichte für Friederike Brion)》 발표.

8월 6일 법학박사 학위 받음.

8월 중순 프랑크푸르트로 귀향.

8월 말 프랑크푸르트 배심재판소의 변호사로 승인 받음.

《셰익스피어의 날에 붙여(Zum Shakespears Tag)》, 《고트프리트 폰 베를리히엔 역사 극본(Geschichte Gottfriedens von Berlichingen dramatisiert)》 발표.

1772년 1월(∼2월) 메르크 및  
다름슈타트 시(市) 감  
상주의파와 사귀.



샤를로테를 그린 파스텔화와 목화로 그린 샤를로테의 실루엣.

5월(∼9월) 베를라 소재 제국대법원에서 법관시보. 샤를로테 부프(Charlotte Buff)와 알게 됨.

《독일 건축술에 관하여(Von deutscher Baukunst)》 발표.

잡지 <프랑크푸르트 학자보(學者報)>의 동인이 됨.

《방랑자의 폭풍 노래(Wanderers Sturmlied)》 발표.

1773년 《넝마춘락의 대목장 축제(Jahrmarktsfest zu Plundersweilern)》, 《사티로스(Satyros)》, 《연극적 협주곡(Concerto drammatico)》, 《신(神)들과 영웅과 빌란트(Götter, Helden und Wieland)》, 《에르빈과 엘미레(Erwin und Elmire)》, 《목사의 편지(Brief des Pastors)》 발표.

1773년(∼1775년) 《초고 파우스트(Urfaust)》,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마호메트(Mahomet)》 발표.

1774년 7월(∼8월) 라바터와 바제도브와 함께 란 지방 및 라인 지방 여행. 뒤셀도르프에 있는 야코비 형제(Friedrich H. Jacobi와 Johann G. Jacobi) 방문.  
12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작센-바이마르-아이나흐의 황태자 아우구스트(Karl August) 공작과 처음 만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클라비고(Clavigo)》, 《클라우디네 폰 빌라 벨라(Claudine von Villa Bella)》, 《영원한 유대인(Der Ewige Jude)》 발표.

1775년 4월 쇠네만(Lili Schönmann)과 약혼.

5월(∼7월) 첫 스위스 여행.

9월(∼10월) 아우구스트 공작이 괴테를 바이마르로 초대. 쇠네만과 파혼.

《슈텔라(Stella)》, 《릴리의 노래(Lili-Lieder)》 발표.

《에그몬트(Egmond)》 집필 시작.

10월 30일 프랑크푸르트 떠남.

11월 7일 바이마르 도착.

11월 슈타인(Charlotte von Stein) 부인과 처음 만남.

1776년 1월(∼2월) 바이마르에 장기간 체류할 것을 결심.

3월(∼4월) 라이프치히로 여행.

4월 일름 강변의 초원에 있는 별장으로 이사하여 1782년 6월까지 그곳에서 생활함.

6월 11일 바이마르공국(公國)의 국무에 종사하기 시작. 비밀공사관 참사관으로 임명됨.

10월 헤르더가 신교의 총 지방감독으로 바이마르에 올.

11월 일메나우 광산의 재가동을 위한 준비책임 맡음.

12월 라이프치히와 뉘른베르크 여행.

《슈타인 부인을 위한 시(Gedichte für Frau Stein)》, 《형제자매(Die Geschwister)》, 《프로제르피나(Proserpina)》 발표.

1776년(∼그 이후 몇 년) 바이마르 애호가 극장의 공연에 참여.

1777년 6월 8일 여동생 사망.

9월∼10월 아이제나흐와 바르트부르크 성(城)에 체류.

12월 말을 타고 하르츠 여행.

《릴라(Lila)》, 《감상(感傷)의 승리(Der Triumph der Empfindsamkeit)》 발표.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Wilhelm Meisters theatralische Sendung)》 첫 부분 완성. 《겨울의 하르츠 여행(Harzreise im Winter)》 발표.

1778년 5월 아우구스트 공작과 함께 베를린과 포츠담 여행. 《인간성의 한계(Grenzen der Menschheit)》 발표.

1779년 1월 국방위원회 및 도굴공사위원회의 지도 맡음. 그 이후 공국의 여러 지역을 자주 여행.

2월(∼3월) 《타우리스 섬의 이피게니에(Iphigenie auf Tauris)》 발표.

9월 추밀고문관으로 임명됨.

9월(∼80년 1월) 아우구스트 공작과 두 번째로 스위스 여행.

《수상(水上) 정령들의 노래(Gesang der Geister Über den Wassern)》, 《예리와 배텔리(Jery und Bätely)》 발표.

1780년 광물학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

《토르크바토 타소(Torquato Tasso)》집필 시작.

1781년 여름(~그 이후 몇 년) 티푸르트에서 바이마르궁정 사교계에 참석.

11월(~82년 1월) 바이마르 자유미술학교에서 해부학 강연.

《여자 어부(Die Fischerin)》, 《엘페노르(Elpenor)》 발표.

1782년 3월(~5월) 외교적 임무로 튀링겐궁전 여행.

5월 25일 부친 사망.

6월 2일 프라우엔플란에 있는 집으로 이주.

6월 3일 황제 요셉 2세에 의해 발급된 귀족 증서 받음.

6월 11일 재정부의 임무를 맡음.

12월(~83년 1월) 데사우와 라이프치히로 여행.

1783년 9월(~10월) 두 번째로 하르츠 여행. 괴팅겐과 카셀 여행.

《신적(神的)인 것(Das Göttliche)》 발표.

1784년 2월 24일 일메나우에서 새로운 광산 개장.

3월 인간의 삽간골(挿間骨) 발견.

8월(~9월) 아우구스트 공작과 브라운쉬바이크 여행. 크라우스(Georg Kraus)와 함께 세 번째 하르츠 여행.

《익살과 간계와 복수(Scherz, List und Rache)》, 《비밀(Die Geheimnisse)》 발표.

1785년 식물학 연구 시작.

1월(~86년 봄) 여러 차례 일메나우와 예나에 체류.

6월(~8월) 카를스바트에 체류.

《빌헬름 마이더스의 연극적 사명》 끝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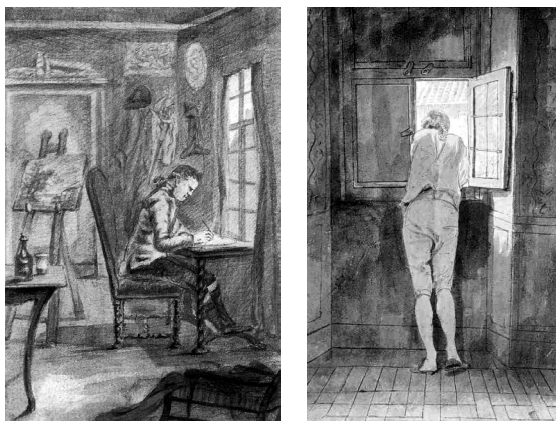
1786년 7월(~8월) 카를스바트에 체류.

9월 3일 카를스바트로부터 남몰래 이탈리아 여행에 오름.

9월 28일(~10월 14일) 베네치아에 체류.

10월 29일 로마에 도착. 《타우리스 섬의 이피게니에》를 운문으로 개작.

1787년 2월(~6월) 나폴리와 시칠리아로 여행.



작업실에 앉아 있는 괴테(왼쪽)와 로마의 집 창가에 선 괴테.

4월 팔레르모 식물원에서 식물 원형(原型)의 원리 인식.

(~1788년) 《에그몬트》 끝냄. 《나우시카(Nausikaa)》 구상. 《파우스트(Faust)》와 《토르크바토 타소》 작업.

1788년 4월 23일 로마 떠남.

6월 18일 바이마르로 돌아옴.

6월 일메나우 위원회를 제외하고 일체의 정무(政務)에서 물러남. 그 후 공공의 학문기관 및 예술기관 지도.

7월 불피우스(Christiane Vulpius)와 동거.

9월 7일 루돌슈타트에서 실러(Friedrich von Schiller) 만남.

《로마의 비가(Römische Elegien)》 발표.

1789년 9월(~10월) 아쉐르스레벤과 하르츠 여행.

12월 25일 아들 아우구스트(August) 태어남. 《토르크바토 타소》 끝냄.

1790년 3월(~6월) 베네치아 여행.

4월 두개골의 척추골 이론 발견.

7월(~10월) 프로이센군(軍)의 야영지인 슐레지엔 지방을 돌아봄. 크라카우와 스텐스토하우 여행.

《색채론(Farbenlehre)》연구 시작. 《식물의 변형(Die Metamorphose der Pflanzen)》, 《베네치아의 경구(警句)(Venezianische Epigramme)》 발표.  
《파우스트, 프라그멘트(Faust, ein Fragment)》 인쇄함.

1791년 1월 바이마르 궁정극장 감독 맡음.

《대(大)코프타(Der Groß-Cophta)》, 《광학(光學)에 대한 기고(Beiträge zur Optik)》 발표.

1792년 8월(∼10월) 아우구스트 공작 수행하여 프랑스에서 종군.

9월 20일 발미 대포격.

11월(∼12월) 뒤셀도르프에서 야코비(Friedrich Heinrich Jacobi) 방문, 뮌스터에서 갈리친(Galitzin) 영주 부인 방문.

1793년 5월(∼7월) 마인츠가 포위되었을 때 이를 목격함.

《시민 장군(Der Bürgergeneral)》, 《라이네케 폭스(Reineke Fuchs)》 발표.

1794년 7월 말 예나에서 자연연구학회 회의가 끝난 뒤 쉴러와 식물원형에 관한 대답. 쉴러와의 교우 시작.

7월(∼8월) 아우구스트 공작과 함께 뉘른베르크와 드레스덴 여행.

《흥분한 자들(Die Aufgereagten)》, 《독일 피난민들의 대화(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 발표.

(∼그 후 몇 년) 자주 예나에 체류하면서 예나 대학 교수들과 교제. 자연과학 연구, 특히 변형론과 색채론에 몰두.

1795년 7월(∼8월) 카를스바트에서 체류. 《동화(Das Märchen)》 발표. 《크세니엔(Xenien)》 집필 시작.

1796년 《크세니엔》 발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 끝냄. 《헤르만과 도로테아(Hermann und Dorothea)》 발표. 베네누토 첼리니(Benvenuto Cellini)의 전기 번역.

1797년 8월(∼11월) 세 번째 스위스 여행.

8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체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봄.

12월 바이마르 도서관과 고전(古錢) 진열실의 최고 감독.

《담시(Balladen)》 발표. 《파우스트》 다시 집필 시작.

1798년 3월 바이마르의 근교 오버로슬라에 토지를 갖게 됨.

10월 12일 쉴러 작품 《발렌슈타인의 야영(Wallensteins Lager)》 공연으로  
개축된 바이마르 궁정극장 개관.

예술잡지 <프로필레엔(Propyläen, Eine periodische Schrift)> 출간 시작  
(1800년까지 계속됨).

1799년 9월 바이마르 미술 애호가들의 첫 번째 전시회.

12월 쉴러가 예나로부터 바이마르로 이주.

《아킬레스(Achilleis)》 발표.

《자연스러운 딸(Die natürliche Tochter)》 집필 시작. 볼테르(Voltaire) 작  
품 《마호메트》 번역.

1800년 4월(~5월) 아우구스트 공작과 라이프치히와 데사우 여행. 《파우스트》  
제2부의 <헬레나 장면(Helena-Szene)> 집필. 볼테르 작품 《탕크레드  
(Tancred)》 번역. 《팔레오프론과 네오테르페(Paläophron und Neoterpe)》  
발표.

1801년 1월 안면 단독(丹毒) 병에 걸림.

6월(~8월) 피르몬트 · 괴팅겐 · 카셀 등 여행.

1802년 1월(~6월) 예나를 자주 여행.

2월 첼터가 처음으로 바이마르 방문.

6월 26일 라우흐슈테트에 신축 극장이 개관됨. 여름에 여러 번 라우흐슈테  
트에 체류.

1803년 5월 라우흐슈테트, 할레, 메르제부르크, 나움부르크 여행.

9월 리머가 괴테 아들의 가정교사가 됨.

11월 예나 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의 최고 감독 맡음. 《자연스러운 딸》 끝냄.

1804년 8월(~9월) 라우흐슈테트와 할레에 체류.

9월 13일 실질 추밀원고문관으로 임명됨.

《빙켈만과 그의 세기(Winckelmann und sein Jahrhundert)》 발표.

1805년 1월(∼2월) 신장병으로 중태에 빠짐.

5월 9일 쉴러 사망.

7월(∼9월) 라우흐슈테트를 여러 번 방문.

8월 마그데부르크와 할버슈타트 여행.

《쉴러의 종(鐘)에 대한 에필로그(Epilog zu Schillers Glocke)》 발표.

1806년 4월 13일 《파우스트》 제1부 끝냄.

6월(∼8월) 카를스바트 체류.

10월 14일 예나 전투. 바이마르가 점령됨.

10월 19일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와의 결혼식.

《동물의 변형(Metamorphose der Tiere)》 발표.

1807년 4월 10일 아우구스트 공작의 모친 안나 아말리아 Anna Amalia 사망.

5월(∼9월) 카를스바트에 체류.

11월(∼12월) 예나에 있는 프름만의 집 여러 차례 방문. 민헨 헤르츠리프와 알게 됨.

《소네트(Sonette)》 발표.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Wilhelm Meisters Wanderjahre)》 집필 시작.

1808년 5월(∼9월) 카를스바트와 프란첸스바트 요양지에 체류.

9월 13일 어머니 사망.

10월 2일 에르푸르트에서 나폴레옹(Bonaparte Napoleon)과 대담. 10월 6일과 10일에도 바이마르에서 계속 대담.

《판도라(Pandora)》 발표.

1809년 《친화력(Die Wahlverwandschaften)》 발표. 《색채론》 집필.

1810년 5월(∼9월) 카를스바트, 테프리츠, 드레스덴에 체류.

《색채론》 끝냄.

《필립 하케르트(Philipp Hackert)》 집필.

13권으로 된 《괴테 작품집(Goethes Werke)》 발간.

1811년 5월(∼6월) 크리스티아네 및 리머와 카를스바트에 체류.



《시와 진실(Dichtung und Wahrheit)》제1부 발표.

1812년 5월(∼9월) 카를스바트와 테프리츠에 체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과 오스트리아 황제 부인 마리아 루도비카 만남.

《시와 진실》제2부 발표.

1813년 1월 20일 빌란트(Wieland)사망.

4월(∼8월) 테프리츠에 체류

10월 16일(∼19일) 라이프치히 전투.

《시와 진실》제3부 발표.

1814년 5월(∼6월) 바이마르 근교의 바트베르크에 체류.

7월(∼10월) 라인 지방과 마인 지방을 여행. 마리안네 폰 빌레머와 만남. 하이델베르크에서 브와스레 형제 방문.

8월 16일 빙겐에서 성(聖) 로투스 축제 참가.

《서동시집(West-östlicher Divan)》일부 집필 발표.

1815년 2월 비엔나 회의 결정으로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으로 합병.

5월(∼10월) 라인 지방과 마인 지방으로 두 번째 여행.

7월 말 슈타인 남작과 함께 나사우로부터 쾰른으로 여행.

9월 26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마리안네 폰 빌레머 마지막 만남.

12월 12일 “바이마르와 예나의 학술 및 예술기관의 총감독”으로, 대공국의 모든 문화적 연구소들이 괴테의 지휘 하에 총괄됨. 재상으로 임명됨.

《서동시집》일부 집필 발표. 《온건한 크세니엔(Zahme Xenien)》일부 발표.

1816년 6월 6일 크리스티아네 사망.

7월(∼9월) 바트 텐슈데트에 체류.

《서동시집》일부 집필 발표. 《이탈리아 여행기(Italienische Reise)》제1부·제2부 발표. 잡지 〈예술과 고대(Über Kunst und Altertum)〉 발간 (1832년까지 계속).

1817년 3월(∼8월), 11월(∼12월) 자주 예나에 체류.

4월 13일 궁정극장의 감독직 사퇴.

6월 17일 아들 아우구스트가 오틀리에 폰 포그비쉬와 결혼.

10월 예나의 도서관 연합의 감독 맡음.

《말(言)의 원형, 신비한(Urworte, orphisch)》, 《나의 식물연구사(Geschichte meines botanischen Studiums)》 발표. 잡지 〈자연과학, 특히 형태학(Zur Naturwissenschaft überhaupt, besonders zur Morphologie)〉 발간(1824년까지 계속).

1818년 4월 9일 손자 발터(Walther) 태어남.

7월(∼9월) 카를스바트에 체류.

1819년 8월(∼9월) 카를스바트에 체류.

《서동시집》 끝냄. 20권으로 된 《괴테 작품집》 발간(1815년에 시작).

1820년 4월(∼5월) 카를스바트 체류.

여름과 가을 예나 체류.

9월 18일 손자 볼프강(Wolfgang) 태어남.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집필. 《온건한 크세니엔》 일부 발표.

1821년 7월(∼9월) 마리엔바트와 에거에 체류. 올리케 폰 레베초브와 처음 만남.

1822년 6월(∼8월) 마리엔바트와 에거에 체류.

《프랑스 종군기(Kampagne in Frankreich)》 끝냄.

1823년 2월(∼3월) 심낭염(心囊炎)에 걸림.

6월 10일 에커만(Johann P. Eckermann)이 처음으로 괴테를 방문함.

7월∼9월 마리엔바트, 에거, 카를스바트에 체류.

《마리엔바트 비가(Marienbader Elegie)》 발표.

11월 극심한 경련성 기침병에 걸림.

1824년 《슐러와의 서신교환(Briefwechsel mit Schiller)》 출판 준비.

1825년 2월 《파우스트》 제2부 집필에 다시 착수.

3월 21일 바이마르 극장에 화재.

11월 7일 괴테의 바이마르 도착 50주년 축하연.

1826년 《파우스트》의 〈헬레나 장면〉 끝냄. 《단편소설(Novelle)》 발표.

1827년 1월 6일 샤를로테 폰 슈타인 사망.

10월 29일 손녀 알마(Alma) 태어남.

《온건한 크세니엔》 발표.

1828년 6월 14일 칼 아우구스트 대공작 사망.

7월(~9월) 도른부르크에 은거.

1829년 1월 브라운쉬바이크에서 처음으로 《파우스트》 공연.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완성.

《이탈리아 여행기, 제2차 로마체류(Italienische Reise, Zweiter römischer Aufenthalt)》 발표.

1830년 2월 14일 대공작 부인 루이제 사망.

11월 10일 아들이 로마에서 죽었다는 소식 받음.

11월 말 대(大)객혈.

《시와 진실(Dichtung und Wahrheit)》 제4부 발표.

40권으로 된 《괴테 작품집, 최종 완성판(Goethes Werke, Vollständige Ausgabe letzter Hand)》 출간(1827년에 시작).

1831년 7월 22일 《파우스트》 제2부 끝냄.

8월 28일 일메나우에서 마지막 생일 지냄.

1832년 3월 16일 마지막 발병.

3월 22일 정오 무렵에 영면.

3월 26일 괴테의 관 후작묘지에 안치.

1832~42년 20권으로 된 《유작집(Nachgelassene Werke)》 발간.

지은이 소개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49~1832)

독일 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프랑크푸르트 출생.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청년기 사랑 체험을 문학화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24세에 발표하여 일약 문명(文名)을 떨쳤다. 이후 독일 개성 해방 문학운동인 'Sturm und Drang(질풍노도)'의 중심인물로 활약했다. 1775년 바이마르로 가서 공직에 참여하다 재상이 되어 국정을 펼치는 한편 지질학·광물학·해부학 등 과학 연구에 몰두했다. 1786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 1천 마에 이르는 스케치를 남겼고, 《타우리스섬의 이피게니》 《에그몬트》 등을 쓰면서 고전주의로의 지향을 확립했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외 다수의 작품이 있으며, 만년에는 생애에 걸친 대작 《파우스트》를 60년 만에 완성하고 1년 후 영면에 들었다.

옮긴이 소개 | 이인웅

충북 진천 출생. 현재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 명예교수. 한국외대와 동 대학원 독어과를 졸업했다. 독일정부초청 장학생(DAAD)으로 원헌대학교와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통역대학원장, 부총장 등 보직을 수행했고, 국비유학 자문위원, 한국독어독문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와 역서로는 《파우스트》 《현대 독일 문학 비평》 《헤르만과 도로테아》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황야의 이리》 《싯타르타》 《동방순례》 외 다수가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표한 40여 편의 논문이 있다.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사단법인 올제

발행 | 2016년 5월 10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교열 | 김화란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제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http://www.olje.or.kr)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